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계승해야 할 전통시대 마을과 성씨의 역사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이 책에서는 연기군 서면이었던 연서면과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면 마을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주민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왔고, 그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Ⅲ

연서면
장군면

연서면 · 장군면

세종문화원



세종문화원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Ⅲ)

- 연서면 · 장군면 -



연서면의 복숭아 꽃



행복도시 세종



연서면 사무소



장군면 사무소



고북저수지 전경



효교비



충렬사 전경



덕천군 묘소에서 바라본 덕천군 시우와 태산리 마을모습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II

연서면
장군면

임선빈 외



세종문화원

□ 발간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종전의 연기군만이 아니라 공주시의 일부와 충북 청원군의 일부를 포함하여 1읍 9면 1행정동과 14법정동의 넓은 면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첨단 시설의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물들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오손도손 살아왔던 연기군 시절의 지난 일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연기군 시절 우리 문화원에서는 자칫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연기군의 뿌리가 어떠한지 망각 속으로 사라질까 우려하여 충청남도과 연기군의 예산지원으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조사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금남면 남면 동면 지역을 1차년도 사업으로, 연기군 북부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지역을 2차년도 사업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3개면씩 조사했던 것은 예산상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일

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기군의 조치원읍과 서면 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군은 사라지고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세종시에서도 앞서 진행했던 사업을 공감하여 마무리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새로 장군면과 부강면이 세종시에 포함되어 조사 대상은 4개의 읍면(조치원읍, 연서면, 장군면, 부강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3차년도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과 새로 공주시에서 편입된 장군면 지역으로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 II의 출판과 마찬가지로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향토사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 2차년도 사업에 이어 임선빈 박사와 강현숙, 남정환 향토사가의 수고가 컸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의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중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2013년 12월 20일
세종문화원장 임영이

□ 머리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그동안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매일 매일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는 연기군 시절에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조사사업을 계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종전의 연기군 서면에서 세종시 연서면으로 바뀐 지역과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이 그동안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 왔고,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핀 것이다.

필자는 2013년 6월에 세종문화원으로부터 본 사업을 의뢰받아 12월까지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 및 원고 집필을 진행했다. 조사는 필자의 책임 하에 세종시 향토사가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1, 2차년도에 참여했던 강현숙, 남정환 선생님이 시종일관 함께 했다.

문헌조사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등 조선시대 지지류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등 일제강점기의 자료, 『한국지명총람』 4, 『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지역의 성씨’, 『공주의 전통마을』 1권~10권, 『진주류씨와 충렬사』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나아가 연서면 지역은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인 2013년 10월에

발간된 『연서면지』의 도움이 컸으며, 장군면 지역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회 홍제연 선임연구원이 제공해 준 자료(『대교천을 따라 이어진 진주유씨의 흔적』)가 큰 도움이 되었다.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준 홍제연 연구원에게는 특별히 감사한다.

현지조사는 3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연서면 일원을 먼저 조사하고 장군면 일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지조사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했다. 마을의 성씨조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료 제공과 족보 열람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특히 장군면 지역의 조사는 이곳에 오래 사시면서 지역 사정에 해박하신 유근우 어르신과 시종일관 함께 다니면서 관련 문중 인사를 섭외하고 안내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에 이 책의 말미에 수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조사와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문화원 임영이 원장님과 길미숙 사무국장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20일
조사책임자 임선빈

□ 목차

발간사 12
머리말 14

제1장 조사지역 개관 / 19

제2장 연서면의 터전과 뿌리 / 25

연서면 고복리	32	연서면 쌍류리	112
연서면 국촌리	48	연서면 쌍전리	127
연서면 기룡리	54	연서면 와촌리	137
연서면 봉암리	68	연서면 용암리	158
연서면 부동리	80	연서면 월하리	165
연서면 성제리	86	연서면 청라리	178
연서면 신대리	96		

제3장 장군면의 터전과 뿌리 / 189

장군면 금암리	196	장군면 송학리	244
장군면 대교리	209	장군면 용암리	252
장군면 도계리	224	장군면 용현리	260
장군면 봉안리	227	장군면 은룡리	263
장군면 산학리	231	장군면 태산리	266
장군면 송문리	237	장군면 평기리	277
장군면 송정리	242	장군면 하봉리	288

참고문헌	313
도움을 주신 분	314
조사후기	315

제1장 조사지역 개관





고지도를 통해 본 조시지역 『조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연기현과 공주목(일부) 합성

조사지역 개관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Ⅲ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에 2회에 걸쳐서 진행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Ⅰ·Ⅱ)를 이어서 발간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종시 연서면(종전의 연기군 서면)과 새로 공주시에서 세종시에 편입된 장군면(종전 공주시의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서면과 장군면이 지금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같은 세종시 관내에 속해 있는 인접한 2개의 면이 되었지만, 이전의 연혁에서 두 면의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고대부터 21세기 초까지 각기 별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연서면은 전근대시기 연기현 고을 치소의 서쪽에 위치했다. 연기현은 백제의 적현성, 두잉지현에 해당하던 곳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757년(경덕왕 16)에 연기현으로 고치고 연산군(현재의 문의 지역)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1018년(현종 9) 청주에 영속시켰다가 1172년(명종 2) 감무를 임명하였으며, 뒤에는 목주감무(木州監務)로 겸임하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 건국 직후에는 연기지역에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406년(태종 6)에 다시 목주와 연기를 나누어 연기현에도 감무를 두었다. 그런데 1413년(태종 13) 10월에 종전의 감무를 종6품 현감으로

고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기현에도 감무 대신 현감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414년(태종 14) 8월에 경외(京外)의 용관(兪官)을 도태시키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전의와 연기를 합쳐서 전기(全歧)라 고쳐 불렀고, 전기현감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만 2년만인 1416년(태종 16) 7월에 다시 합병하였던 군현을 나누어 예전대로 하면서 전의와 연기가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되었다.

조선후기의 연기현은 1680년(숙종 6)에 문의에 병합되었다가, 1685년 분리, 복구되었다. 충청도 연기현은 1895년에 8도제가 바뀌어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주부 연기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자 충청남도 연기군이 되었다. 연기군은 1909년에 전의면 일원과 공주군 일부를 편입하여 7개면을 두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전의를 병합하였다.

조선 전기 연기현의 경역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치소를 중심으로 한 사방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쪽 경계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공주(公州)에 이르기까지 11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주 경계까지 13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연서면 지역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면리제가 실시되는 조선후기에 연기현의 면은 동일면, 동이면·남면·북삼면·북일면·북이면·읍내면의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시기 세종시 연서면 지역은 주로 북삼면과 북일면에 해당되었다.

장군면은 전근대시기 공주목 치소의 동북쪽 연기현과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인 웅진(熊津)이 있던 곳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웅천주, 웅주 등으로 불리었다. 공주라는 지명의 등장은 고려가 등장하여 후삼국을 통일한 후인 태조 23년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주목으로 불리면서 시기에 따른 승강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목사 파견고을에서 일적으로 현으로 강등되어 현감이 파견될 때에는 공산현이라고 일컬었다.

전근대시기 공주목의 관할 구역은 매우 넓었다.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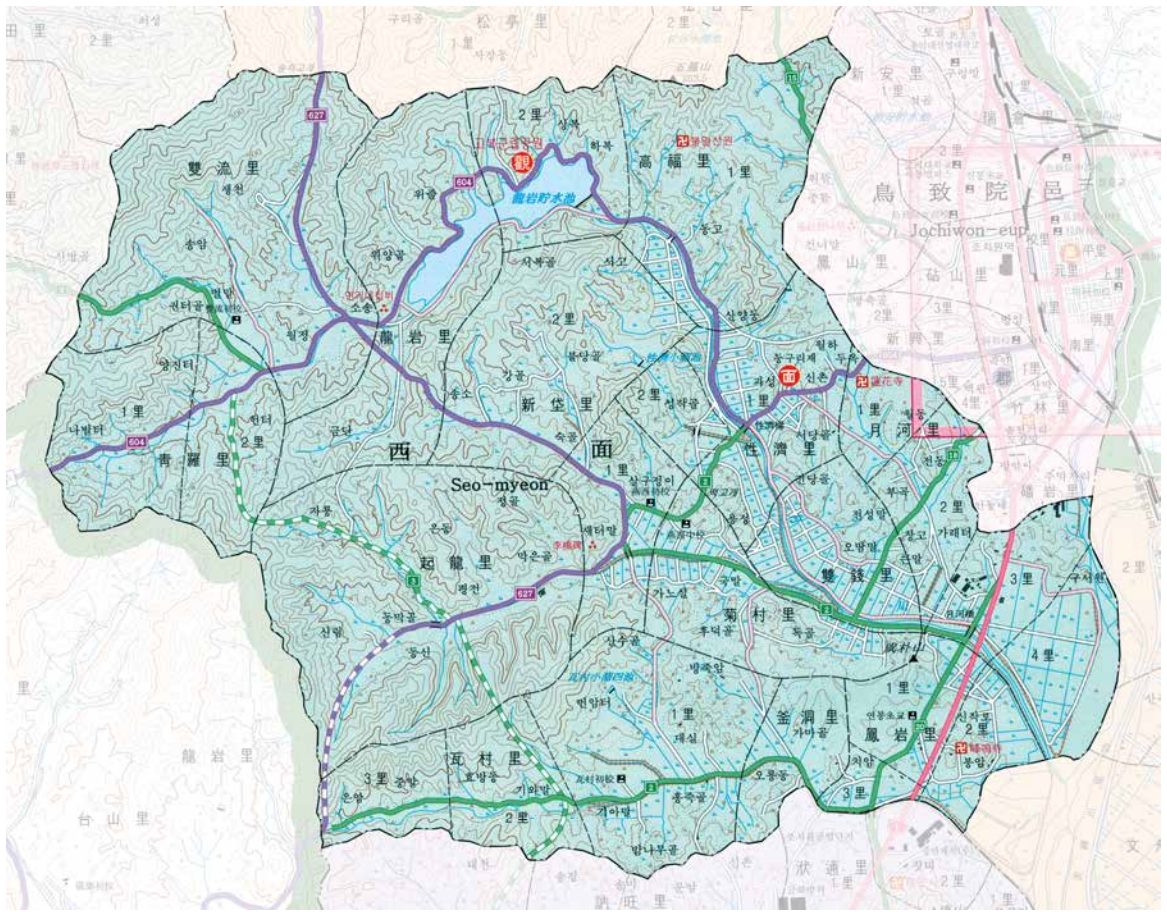
시될 때에 공주목에는 26개의 면[『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근거이 있었는데, 세종시 장군면 지역은 공주목의 동북간에 위치한 장척동면을 중심으로 하며, 의랑면과 요당면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주목은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 개편으로 공주군이 되면서 1년 남짓 공주부(公州府)가 설치되어 27개 군을 관할했다가, 1896년(고종 33)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남도 공주군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계수관 체제에서 연기현은 공주목에 속하지 않고, 청주목에 속해 있었다. 계수관 고을로서의 공주목이 관할하던 고을은 세종실록지리지 기준을 할 때, 임천군 한산군 서천군 남포현 비인현 정산현 홍산현 은진현 연산현 회덕현 석성현 진잠현 부여현 이산현으로, 연기현은 공주목에 가까웠지만 청주목에 속해 있었고 공주목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도제하에서는 충청도에 속하여 충청도관찰사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19세기 말에 잠시 공주부관찰사가 등장했을 때에는 공주부에 편제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충청도관찰사가 공주목사를 겸하고 있던 시기에는 연기현도 충청도관찰사의 통솔하에 놓여 있었으며, 공주부관찰사와 충청남도관찰사가 있던 시기에도 연기군은 공주에 있던 관찰사영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고을로서는 공주목과 연기현, 공주군과 연기군은 수평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연기에 속해 있던 연서면 지역과 공주에 속해 있던 장군면 지역은 세종시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역이다.

이와같이 역사적으로 연서면은 연기현·연기군 지역에 속한 면이었고, 장군면은 공주목과 공주군·공주시 지역에 속해 있었다. 두 개의 면이 하나의 행정단위 안에 포함된 것은 2012년 7월 1일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에서 비롯된다. 이제 연서면과 장군면은 새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행정타운 주변부라는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 수천년 간 나뉘어 있던 경계를 뛰어넘어서 공통의 지역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장 연서면의 터전과 뿌리





제2장 연서면의 터전과 뿌리



연서면은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연기군 서면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으로 바뀐 곳이다. 세종시 연서면 지역은 조선후기 면리제가 시행될 때 연기현 관내의 북이면과 북삼면 지역이었으며, 한말에는 연기군 관내의 북이면과 서면이었고, 다시 1914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이 합쳐져 연기군이 되면서 광역의 서면이 되었다.

조선후기 연서면 지역에 해당하는 연기현 북이면과 북삼면은 『여지도서』 연기현 방리조에 북이면 9개리, 북삼면 23개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는 북이면 12개리, 북삼면 36개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말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북이면에 20개리, 서면에 31개리의 마을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후기 연서면 지역 면리

면명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남/여]	여지도서	호구총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북이면(北二面)	봉암리(鳳巖里) - 5리, 167호, 345/289명 월하동리(月河洞里) - 5리, 90호, 153/130명 전성리(錢城里) - 5리, 15호, 31/29명 두옥동리(斗玉洞里) - 6리, 9호, 12/14명 양지동리(陽智洞里) - 5리, 20호, 45/47명 신리(新里) - 10리, 51호, 113/107명 성재동리(性齋洞里) - 15리, 30호, 41/67명 고산동리(高山洞里) - 16리, 39호, 84/59명 복동리(福洞里) - 20리, 25호, 50/64명 [9]	봉암리(鳳巖里) 월하동(月河洞) 쌍괴정(雙槐亭) 전성리(錢城里) 두옥동(斗玉洞) 양지동(陽智洞) 전당리(錢塘里) 성재리(性齋里) 신리(新里) 고산리(高山里) 복동리(福洞里) 하복동(下福洞) [12]	독동리(獨洞里) 월계리(月溪里) 봉암리(鳳巖里) 월하리(月下里) 전당리(錢塘里) 도산리(道山里) 원봉리(元峰里) 부곡리(富谷里) 전동리(典洞里) 과성리(窠城里) 괴동리(槐洞里) 괴촌리(槐村里) 상복리(上福里) 하복리(下福里) 동고리(東高里) 서고리(西高里) 쌍괴리(雙槐里) 신향리(新香里) 봉촌리(鳳村里) 대박리(大朴里) [20]
북삼면(北三面) ↓ 서면(西面) (한말)	용암리(龍巖里) - 20리, 32호, 47/68명 생천리(生泉里) - 20리, 18호, 25/23명 쌍류동리(雙流洞里) - 20리, 25호, 46/54명 현대리(憲垞里) - 10리, 19호, 20/41명 사방동리(舍房洞里) - 10리, 8호, 18/20명 청라전리(靑羅田里) - 22리, 42호, 76/70명 자룡산리(自龍山里) - 20리, 34호, 57/52명 신림리(新林里) - 15리, 6호, 8/9명 와룡리(臥龍里) - 13리, 32호, 51/66명 마룡리(馬龍里) - 12리, 15호, 41/36명 하마룡리(下馬龍里) - 11리, 8호, 21/17명	용암리(龍巖里) 생천리(生泉里) 화원리(花園里) 사방리(舍方里) 청라리(靑蘿里) 행정리(杏亭里) 복산리(福山里) 쌍류리(雙流里) 자룡리(自龍里) 동산리(東山里) 화동리(和洞里) 기룡리(起龍里) 우덕리(友德里) 봉림리(鳳林里) 효교(孝橋) 용동(龍洞) 마룡리(馬龍里) 용계(龍溪) 관암(觀巖) 신림(新林) 원봉(圓峯) 원당동(元堂洞) 명봉(鳴鳳) 덕산동(德山洞) 방축동(防築洞) 치복사(致福祠) 부동(釜洞) 오룡동(五龍洞) 상대동(上垞洞) 치암(致巖) 서촌리(西村里) 변암리(礮巖里) 울촌리(栗村里) 장은동(獐隱洞) 대아동(大雅洞) 은암리(隱巖里) [36]	기룡리(起龍里) 후덕리(厚德里) 용동리(龍洞里) 행화리(杏花里) 오룡리(五龍里) 신대리(新垞里) 효교리(孝橋里) 은동리(隱洞里) 동산리(東山里) 자룡리(自龍里) 신림리(新林里) 용암리(龍岩里) 송현리(松峴里) 쌍류리(雙流里) 행정리(杏亭里) 청라리(靑蘿里) 망북리(望北里) 월정리(月亭里) 생천리(生川里) 송서리(松西里) 우덕리(友德里) 화동리(禾洞里) 은암리(隱岩里) 와촌리(瓦村里) 효방리(孝防里) 변암리(礮岩里) 서계리(西溪里) 산덕리(山德里) 국촌리(菊村里) 봉강리(鳳岡里) 중암리(中岩里) [31]

관암리(鶴巖里) - 12리, 11호, 24/20명 화동리(禾洞里) - 15리, 9호, 14/25명 노곡리(蘆谷里) - 20리, 3호, 5/3명 원봉리(圓峯里) - 7리, 16호, 36/33명 산덕동리(山德洞里) - 10리, 10호, 23/24명 방축동리(防築洞里) - 8리, 6호, 14/13명 부동리(釜洞里) - 7리, 26호, 36/41명 오룡동리(五龍洞里) - 6리, 8호, 16/25명 반암리(幡巖里) - 10리, 24호, 60/56명 서촌리(西村里) - 10리, 77호, 149/160명 울촌리(栗村里) - 10리, 23호, 43/71명 은암리(隱巖里) - 15리, 42호, 80/78명 성당사(聖堂寺) - 20리, 4호, 4/0명 [24]		
---	--	--

1914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이 합쳐지면서 연기군은 7개의 면과 93개의 동리를 갖추게 되는데, 서면은 종전의 동리를 통폐합하여 기룡리, 용암리, 신대리, 쌍류리, 청라리, 국촌리, 와촌리, 봉암리, 부동리 등의 9개리로 구성되었고, 봉암리가 면소재지가 되었다. 이시기 오늘날의 연서면을 구성하는 고북리, 성제리, 쌍진리, 월하리 등은 연기군 북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연기군 서면으로 이관되었다.

연서면 13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서면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1914년 직전	1914년	1917년	2012년
	『여지도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총수』				
1 고북리	연기현 북이면 高山洞里(16리)·福洞里(20리)	연기현 북이면 북동리, 하북동	연기군 북이면 동고리, 서고리, 상북리, 하북리	연기군 북면 고북리	연기군 서면 고북리	세종시 연서면 고북리
2 국촌리			연기군 서면 국촌리, 독동리, 대박리, 후덕리	연기군 서면 국촌리	연기군 서면 국촌리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3 기룡리	연기현 북삼면 自龍山里(20리)·新林里(15리)	연기현 북삼면 동산리, 기룡리, 신림, 자룡리	연기군 서면 기룡리, 효교리, 동산리, 은동리, 신림리, 봉강리(일부), 자룡리(일부)	연기군 서면 기룡리	연기군 서면 기룡리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4 봉암리	연기현 북이면 鳳巖里(5리)	연기현 북이면 봉암리,	연기군 북이면 봉암리(일부), 군내면 봉암리(일부)	연기군 서면 봉암리	연기군 서면 봉암리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5 부동리	연기현 북삼면 釜洞里(7리)·五龍洞里(6리)	연기현 북삼면 부동리, 오룡동	연기군 군내면 부동리, 치암리, 서면 오룡리	연기군 서면 부동리	연기군 서면 부동리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
6 성제리	연기현 북이면 齋洞里(15리), 북삼면 圓峯里(7리)	연기현 북이면 성제리	연기군 북이면 원봉리, 도산리, 봉촌리, 소성리, 괴동리, 괴촌리	연기군 북면 성제리	연기군 서면 성제리	세종시 연서면 성제리
7 신대리	연기현 북삼면 禾洞里(15리)		연기군 서면 신대리, 용동리, 행화리, 우덕리, 화동리, 봉강리(일부)	연기군 서면 신대리	연기군 서면 신대리	세종시 연서면 신대리
8 쌍류리	연기현 북삼면 雙流洞里(20리)·生泉里(20리)		연기군 서면 송서리, 쌍류리, 월정리, 생천리, 송현리	연기군 서면 쌍류리	연기군 서면 쌍류리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9 쌍전리	연기현 북이면 錢城里(5리)	연기군 북이면 쌍괴정, 전당리	연기군 북이면 쌍괴리, 전당리	연기군 북면 쌍전리	연기군 서면 쌍전리	세종시 연서면 쌍전리
10 와촌리	연기현 북삼면 礪巖里(10리)·隱巖里(15리), 연기현 북일면 礪巖里(10리)		연기군 서면 변암리, 와촌리, 중암리, 효방리, 은암리, 서계리	연기군 서면 와촌리	연기군 서면 와촌리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11 용암리	연기현 북삼면 龍巖里(20리)		연기군 서면 용암리, 자룡리(일부)	연기군 서면 용암리	연기군 서면 용암리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12	월하리	연기현 북이면 月河洞里(5리)	연기군 북이면 월하동	연기군 북이면 월계리, 월하리, 전동리, 부곡리, 신향리, 북일면 번암리(일부)	연기군 북면 월하리	연기군 서면 월하리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13	청라리	연기현 북삼면 羅田里(22리)		연기군 서면 청라리, 망북리, 행정리	연기군 서면 청라리	연기군 서면 청라리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연서면 고복리



조사대상 결성장씨, 봉사재, 한충묘소와 신도비
신창맹씨, 부안임씨

고복리는 1914년에 이전의 연기군 북이면 동고리, 서고리, 상복리, 하복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북면 고복리라 하였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연기군 서면 고복리가 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고복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북이면에 고산동리高山洞里와 북동리福洞里가 수록되어 있다.

고산동리는 당시의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16리의 거리에 위치하였는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39호, 인구는 남자 84명, 여자 59명이라고 하였으며, 북동리는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20리의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25호, 인구는 남자 50명, 여자 64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연기현 북이면에 북동리와 하북동이 수록되어 있다.



고북리 전경



고북리 전경



고북저수지와 북골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고북리를 크게 고산골과 북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고산골^{고산동}은 동고와 서고를 통틀어 부르는 마을 이름으로, 조선초기에 창녕성씨가 이곳에 살면서 높은 산 밑에 마을이 위치하였다고 하여 고산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뒷산을 북이 깃든 높은 산이라 하여 고북산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고산골은 동쪽으로는 오봉산이, 서쪽은 비룡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으며, 고북골 동쪽에 동고, 고북골 서쪽에 서고, 동고 동쪽에 산양골 등의 마을이 있다. 동고와 서고 사이에는 고북(용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월하천이 흘러 쌍전리를 지나 금강으로 들어간다.

북골은 고북골 위쪽에 있는 마을인 위북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인 아래북골, 위북골 서쪽에 있는 마을인 서북골이 있으며, 이 근처의 산에 사방공사를 할 때 생겼다고 하는 사방말이 상북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북리 결성장씨 연기파(봉옹공파) ●●●

연서면 고북리에 살고 있는 결성장씨(結城張氏) 연기파(燕岐派)의 고북리 입향조는 장원주(張元冑, 1634~1700)로 알려져 있다. 장원주의 자는 자장(子將), 호는 봉옹(鳳翁)이다.

장원주는 결성장씨 연기 입향조인 장효충(張孝忠)의 8세손으로 족보를 통해 그의 직조 세계만을 정리하면 장효충(張孝忠, 24세) - 장수기(張守紀, 25세) - 장한준(張漢俊, 26세) - 장설(張說, 27세) - 장세우(張世瑀, 28세) - 장해국(張海國, 29세) - 장진영(張振榮, 30세) - 장원주(張元冑, 31세)로 이어진다.

장원주의 아버지는 호조좌랑을 증직 받은 장진영(張振榮)이고, 어머니는 직장 성광국(成匡國)의 딸인 창녕성씨(昌寧成氏)인데, 이들의 묘소는 세종시 막은동에 위치한다.

장원주의 부인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 봉사(行訓練院奉事)를 지낸 언양 김씨(彦陽金氏) 김성원(金聲遠)의 딸이다.

결성장씨가 연서면에 정착하게 된 정확한 사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연기 동면 송곡리에 살던 장원주가 어려서 외가인 창녕성씨들이 거주하는 서면에 왔다가 어머니의 권고로 서면 고북리 고산골 서고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결성장씨가 고북리에 정착하기 전에는 장원주의 외가인 창녕성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였다고 한다. 장원주는 만년(1680~1690년경)에 오봉산 아래 고산동에 봉서재(鳳棲齋)라는 서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장원주의 호가 '봉옹'인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장원주 이후 고북리의 결성장씨는 장원주의 둘째 아들인 장후한(張後翰) 계통이 있고 있다. 장원주는 효행이 있어 아들 장후한 때 호역(戶役)을 면제 받는 혜택인 복호(復戶)를 지급 받았다. 조선시대 법전 규정에 의하면, 충신·효자·열녀로서 복호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처자(妻子) 또



고북리 장씨마을 전경 봉서재에서 바라본 모습



고북리 장씨마을 전경 예전 봉서재가 있던 마을



고복리 장씨마을 전경 현재 봉서제가 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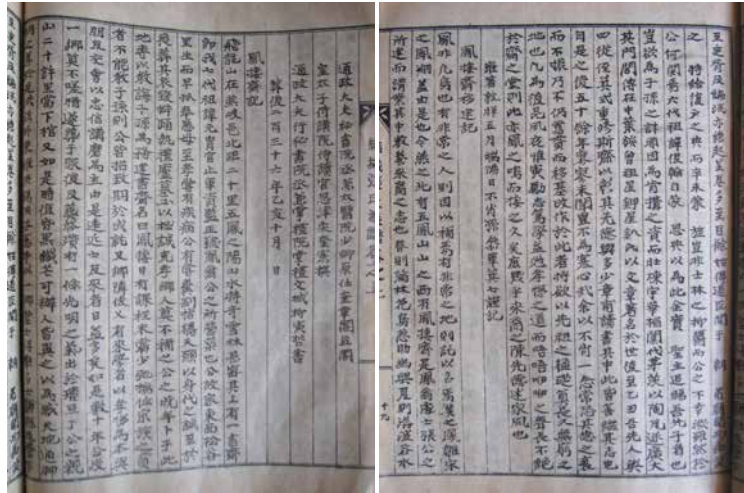
는 자부子婦가 있으면 그들에 한하여 계속 복호를 내려 주었고, 후손이 없으면 3년 동안 복호로 지정해 주었다. 본래 복호는 호역 중 잡역만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물貢物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宮家의 복호 남용도 많았다. 장원주의 증손인 장규정張奎貞은 1794년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는데, 그의 증조인 장원주도 법전에 의해 군사감정軍資監正을 증직 받았다. 장원주의 묘는 고복리 비룡산 아래에 있으며, 그의 묘갈명은 1935년에 유인철柳寅哲이 지었다.

현재 결성장씨는 서면 고복리와 용암리 이외에도 동면 예양리, 노송리, 송용리, 음암리 등지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1	2
3	4
5	6

- 1 결성장씨 세계표, 시조부터 후손의 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 2 고봉리 입향조 장원주의 기록이 보이는 족보
- 3 고봉리 입향조 조사모습
- 4 봉옹공의 묘와 묘비
- 5 봉옹공의 묘와 묘비
- 6 효자 봉옹공 행장



1	2
3	4



1 봉서재기
3 봉서재 안내판

2 봉서재이건기
4 봉서재의 현재 모습

고북리 봉서재 ●●

고북리 동고 마을에는 봉서재鳳棲齋가 있다. 봉서재는 1600년대 말 봉옹 鳳翁 장원주張元胄(1634~1700)가 만년에 창건하여 자제와 인근 마을 학동들을 교육하였던 서당이다. 봉서재가 건립된 시기는 장원주의 만년인 1680년대 이후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면 노송리에 있는 결성장씨의 문중서당인 육영재育英齋(옛 송동재)와 비슷한 시기이다.



예전 봉서재의 위치

봉서재의 역대 훈장으로는 1800년대에 장성갑, 장술선, 장태산, 김남철, 유인철, 홍종우, 송창헌 등이 있으며, 홍종우를 마지막으로 학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유인철은 1906년에 봉서재에 신식학교를 도입,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부임하여 측량과 등을 두었고, 시대에 적합한 천문 등을 교과목으로 가르쳤으며, 배달가倍達歌를 작사·작곡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초기의 봉서재는 현 위치의 북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구서당이라는 골짜기 비룡산飛龍山 산기슭에 있었으나, 1918년 장기철 등에 의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의 봉서재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봉서

재鳳樓齋'라는 현판은 애국지사인 묵재墨齋 홍일섭洪日燮이 쓴 것이며, 우측 마루에는 1918년에 장기칠張箕七(1850~1937)이 지은 「봉서재기鳳樓齋記」와 1922년 유인철이 지은 「봉서재이건기鳳樓齋移建記」가 있었다고 하고 유림들이 지은 시 10여 편의 편액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다.

종전의 조사에서는 동몽선습, 논어, 맹자, 대학, 고문진보, 주역, 시경, 서경 등의 경서류와 통감 및 통감절요 등의 역사서가 소장되어 있고, 1869년부터 쓰인 서당계 문서와 1921년부터 쓰인 도조기가 남아 있어 구한말 및 일분강점기까지의 서당운영 현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 봉서재는 세종시 지방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북리 한충 묘소와 신도비●●●

고북 1리 산양골 마을 뒷산에 한충韓忠 묘소가 있다.

한충의 증조曾祖 한자강韓自強은 영호군領護軍이고, 할아버지 한지韓智는 만호萬戶 겸 감목監牧, 아버지 한창유韓昌愈는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로 후에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증직 되었다. 한창유가 교위校尉 강철손姜哲孫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1486년(성종 17)에 청주淸州 학곡리鶴谷里에서 한충을 낳았다.

한충(1486~1521)의 자字는 서경恕卿, 호는 송재松齋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기묘사화己卯士禍는 1519년에 중종의 밀지密旨를 받은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이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김구金絳·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기준奇遵 등을 체포·구금하며 발생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붕당朋黨을 결성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물들을 배척하였다는 것과 후배들을 이끌어 지나치게 격렬한 언사를 자행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조광조의 사사賜死를



1	2
3	4

1 고복리 한충의 묘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
3 고복리 한충의 묘 비석과 상석뿐인 검소한 모습

2 고복리 한충의 묘 전경
4 고복리 한충의 묘 옛비석



1	2
3	

- 1 고복리 한충의 묘 근래의 비석 2 고복리 한충의 묘앞 신도비
 3 고복리 청주한씨 정당공파 증친회사무실

필두로 신진 사림이 화를 당하면서 사림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들이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이 혁파된 반면, 삭훈(削勳)된 정국공신의 작위 회복, 현량과의 혁파, 향약의 폐지 등 이들이 혁파했던 조치는 다시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충은 다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장살 당했다. 신사무옥은 안처겸옥사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은 안처겸 집안과 가족처럼 지내던 송사련(宋祀連)이 기묘사화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안처겸(安處謙)의 불만 토로와 행실을 남곤·심정에게 고변(告變)하면서 발생하였다. 남곤·심정 등은 이 사건이 무옥(誣獄)임에도 불구하고 안처겸을 역모로 간주하여 안처겸과 교류하던 많은 사람을 여기에 연루시켜 축출하였다. 신사년(1521)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신사무옥(辛巳誣獄)이라고도 한다.

이때 화를 입은 사람이 신원된 것은 사람이 다시 정계에 등용되기 시작한 1540년(중종 35)부터이다. 이때 사림의 일부가 신원되었다. 그리고 권신·척신 정치가 해소된 1566년(명종 21)에 안당의 손자 안운(安玠)의 상소로, 이전에 화를 입었던 안처겸 등 대부분의 인물이 신원되고 직첩(職牒)을 돌려받았다. 한충도 뒤에 무고가 밝혀져서 1746년(영조 22)에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문정(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처음 묘소는 청주 동림산에 있었는데 연산군 때에 이곳 산양동으로 옮겼다. 묘소에는 구비의 마멸이 심하여 1978년에 새로 세운 비가 있다. 묘소 아래에는 같은 해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처음 신도비를 세운 연대는 정확치 않으며, 1978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비문은 봉조하(奉朝賀) 이돈우(李敦宇)가 지었다. 신도비는 귀부 위에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 규모는 77.5cm × 43cm1 × 221cm이다. 묘소 주변에 후손들은 살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외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와서 벌초 등 묘소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북리 신창맹씨 ●●●

고북리에 거주하는 신창맹씨 호군공파와 마을의 인연은 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신창맹씨들은 아산 송악면에 대대로 세거하고 있었는데, 한성좌윤을 역임한 맹주서(1622~1679)대에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맹주서는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맹사성(孟思誠)의 10대손이다. 맹주서의 아버지는 맹세형(孟世衡)(1588~1656, 자 汝平, 호 霽谷)으로 이들의 원래 세거지는 충청도 온양(溫陽) 금곡촌(金谷村)이다. 맹세형의 묘소는 충청도 천안(天安) 광덕산(廣德山) 지금동(支金洞)에 있는데, 맹주서(孟耑瑞)의 부탁으로 우암(尤庵) 송시열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 있다. 맹주서의 어머니는 해주최씨(海州崔氏)로 찰방 최준(崔濬)의 딸이다. 맹주서는 맹세형의 차남으로 관찰사(觀察使)를 지냈고, 맹주서(孟耑瑞)의 처는 조선 중기 선조~인조 때 활동한 문신인 홍명원(洪命元)(1573~1623, 자 樂夫, 호 海峯)의 2남 홍처심(洪處深(현감))의 장녀이다.

맹주서는 1654년(효종 4) 식년시에서 문과에 을과 1위(4/34)로 급제한 후, 한성부좌윤, 전라도감사, 충청감사 등 많은 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충청감사를 역임할 당시 감영이 있었던 공주와 가까운 연서면 고북리에 묘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특히 맹주서의 부인이 세종 시의 유력성씨인 남양홍씨인 점으로 보아 처가와 관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증조부인 맹유백의 묘소가 아산 송악에 있었는데, 고북리 선영으로 옮겼다고 한다. 또한 당시 맹씨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전부 맹씨 땅이라고 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고 전하며, 현재 마을 뒷산 역시 신창맹씨들의 종산으로 주민들도 맹씨 종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400여년전 처음 묘자리를 잡은 뒤 누대로 세거한 것은 아니며 천안 광덕면 지역에 살다가 연서면에 기반이 있어 맹정섭(1858~1920)대에 마을에 터를 잡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맹세형의 유명한 자손으로는 맹만시(孟萬始), 맹만익(孟萬益), 맹만택(孟萬澤), 맹만석(孟萬錫)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맹주서의 차남 맹만택(孟萬澤)은 현종의 딸 명선공주(明善公主)의 부마로 간택되었으나, 납징(納徵) 후 혼례를 치르기 전에 공주가 죽었다. 맹만익의 묘소는 고북저수지의 물이 빠지는 곳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현재 위치인 정강골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묘를 파자 까투리 한 마리가 날아갔다고 해서 묘소가 있던 자리를 까틀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뒷산인 종산 정강골 맹주서의 묘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신도비가 함께 서 있었으며, 신도비의 하단에는 거북이 모양의 받침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반출 했다고 한다.

고북리 부안임씨 ●●●

전통시대 고북2리는 맹씨와 임씨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성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안임씨는 양화리에 누대에 걸쳐 세거하였던 세종시의 유력성씨로 양화리에서 분파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언제 고북2리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유래가 알려지지 않았다. 고북2리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선조들의 묘가 전동면 송정리에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송정리에서 고북리로 분파를 한 것인지 고북리에서 살다가 묘소만 가까운 송정리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연서면 국촌리



조사대상 기계유씨

국촌리는 1914년에 이전의 연기군 서면 국촌리, 독동리, 대박리, 후덕리를 합쳐서 국촌리가 되었다. 이 마을에 국화가 무성하였으므로, 국말 또는 국촌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서면 국촌리도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국촌리가 되었다.

현재의 국촌리는 2개의 행정동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산이라는 산을 경계로 국촌1리와 국촌2리로 나뉜다.

국촌2리의 주민들에게는 덕촌德村이라는 마을 이름이 더 친근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덕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덕촌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믿고 있다. 마을 입구부터 차례로 후덕골, 가느실, 국말이 자리한다.

후덕골은 마을의 인심이 좋고 후덕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는데, 후덕동厚德洞이라고도 표기한다. 마을 유래를 살펴보면 마을 뒤에 있다는 기계유씨 묘와 관련이 있다. 기계유씨는 천성이 착실하여 어느날 우연히 큰 고을에 갔다가 고아가 된 정동鄭童을 주워다가 키웠다. 그는 머리가 좋고 글도 잘 읽어서 10여년을 공부한 끝에 크게 성공하여 전라도에서 벼슬을



국촌리 마을 모습



국촌리 마을 모습

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키우고 크게 성공시킨 유씨가 죽자 전라도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묘지를 정해서 유씨를 안장하고 유씨가 살던 이 마을을 후한 인덕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후덕동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독골(독똥)은 국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어느 총각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리를 정했다 하여 독골, 독동이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또는 홀로 국화가 피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현재 기계유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국말은 독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을이면 국화꽃이 만발하는 곳이라고 하여 국말, 또는 국촌(菊村)이라 부른다. 마을의 전체적인 지형이 활짝 핀 국화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전해진다.

함박산[太栢]은 독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뒤에 함박산이 있다. 대박동 뒤에 위치한 산이 비룡산 줄기로서 20리를 잔잔하게 산세를 뺏어 내려오다가 끝부분에서 함박모양, 즉 큰 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기계유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느실은 간은실이라고도 적고 세곡[細谷]이라고도 일컫는데, 마을의 지형이 가늘고 긴 협곡으로 되어 있다. 국말과 후덕골에 비해 주민들이 많이 살지는 않으나, 기계유씨가 세거하던 마을이다.

국촌리 기계유씨 ●●●

국촌리에는 기계유씨 집성촌산 형성되어 있다. 연서면에 기계유씨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위치는 연서면사무소 앞 재실이 위치한 곳이라고 한다. 전언에 의하면, 낙향을 하여 거주할 곳을 물색하던 중, 연서면이 산세가 좋고 내가 흘러 살기 좋다고 판단하여 이곳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제일 먼저 국촌1리에 들어와 터를 잡은 선조는 기계유씨 동정공파 유덕기 俞惠基이며, 이렇게 기계유씨가 먼저 연서면에 터를 잡고 기반을 다지면서 하나 둘씩 물려들기 시작한 듯하다. 마을 뒤로 기계유씨들의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 선조들의 묘가 모여져 있다.

국촌리 기계유씨의 시조묘는 경북 영덕군 기계면 미현리에 있으며, 유형무를 파조로 하는 동정공파는 400여년 전 파조의 고손 유선이 조선 초 강진으로 유배 후 연기지역 성제리로 은거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족보에 기록된 유선의 품계와 관직은 ‘자헌대부 호조판서 감사원 사직’이라고 하였지만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당시에 없었고 사직이라는 관직은 자헌대부 호조판서와는 품계가 달라서 사실 여부에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1	2
3	4
5	6
	7

- 1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9대조 이하 고조까지 가족묘로 모셨다.
- 2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국촌리 기계유씨 입학조의 묘표
- 3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가족묘의 전경
- 4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가족묘 돌래석에 모셔진 분들을 이름을 새겨서 비를 대신했다.
- 5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가족묘로 모시기전 묘비와 상석을 이렇게 한곳으로 모셔두었다.
- 6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선산을 별초하고 있는 후손의 모습이다.
- 7 국촌리 기계유씨 선산 별초하고 있는 후손의 선친으로 교육감을 지내셨다.



유선의 묘소는 성제리에 동북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기계유씨의 후손들은 현재 국촌리에 많이 살고 있다. 국촌리 입향조는 유덕기로 200여년 전 이곳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후손들의 전언으로 예전에는 서면에 ‘유홍림(兪洪林)’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기계유씨, 남양홍씨, 부안임씨 등 세 문중의 세력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남양홍씨 문중의 홍순복에게 출가한 유선의 딸을 남양홍씨 족보에서는 강진유씨라고 기록하고 있어 가끔 두 문중간의 언쟁이 오가기도 하였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 아마 강진에 유배되었다가 연기지역으로 은거한 유선을 강진에서 왔다 하여 당시에는 강진유씨라고 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서면 기룡리



조사대상 **평택임씨**, **효교비**, **경주김씨**, **충간공파**, **계림공파**

기룡리는 1914년에 이전의 연기군 서면 기룡리, 효교리, 동산리, 은동리, 신림리와 봉강리(일부), 자룡리(일부)를 병합하여 서면 기룡리라 하였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기룡리가 되었다. 기룡이라는 지명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하여 그 뜻을 따서 기룡(起龍)이라 하였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삼면에 자룡산리(自龍山里)와 신림리(新林里)가 수록되

어 있다. 자룡산리는 당시의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는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34호, 인구는 남자 57명, 여자 52명이다. 신림리는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1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6호, 인구는 남자 8명, 여자 9명이다. 『호구총수』에는 연기현 북삼면에 동산리, 기룡리, 효교, 신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통시대 기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망골(막은골, 孝橋)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 앞을 지나 서울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도둑이 심하여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막은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망골이 되었다고



기룡리 마을 모습



기룡리 마을 모습

한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홍씨 집안에서 일곱효자(5대에 걸쳐 일곱 효자)가 났으므로 영조가 효교로 동명을 고쳐주었다고 한다.

동막골(동맥)은 망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요화리(堯化里)는 동막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전에 요화방(堯化坊)이 있었다고 한다. 기룡리 주민들에게는 요화방이라는 지명이 친근하다. 어떠한 연유로 요화방이라는 지명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룡리 일대의 모든 마을을 통틀어 지칭하는 마을 이름은 요화방이라고 하며, 일대 주민들은 기룡리 주민들을 요화방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은골(隱洞)은 망골 북쪽 산에 쑥 들어가 있는 마을이고, 자룡(自龍)은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용이 올라갔다는 굴이 있다. 정골(鼎峯)도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그릇점이 있었다. 이곳

은 예전 참의를 지낸 홍연경^{洪延慶}의 3자인 정량공이 처음 정착한 곳으로 마을의 형태가 문경의 조령과 같다 해서 봉강이라 부른다고 한다. 평전은 망골 남서쪽 평탄한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평전 동쪽 건너에 있는 마을이 기룡의 원마을로, 원기룡^{원내}이라 불린다.

신림^{新林}은 임씨들이 새로 이룩한 마을이다. 예전 평택임씨의 일가로 공조참의를 지낸 임순우^{林舜宇}가 공주에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정착하면서부터 형성된 마을인데, 그 당시 새로 임씨들이 이룩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신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기점골^동은 신림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사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시묘골^{侍墓洞}은 효교 앞에 있는 골짜기로, 숙종때 효자 홍우적 홍우평 홍우구가 그 부모상을 당하여 이곳에서 시묘하는 데 범이 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 오르다가 시묘가 끝나니 범도 가고 우물도 말랐다고 한다. 효자가 효도하는 골짜기로 효묘동 또는 시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기룡리 평택임씨 충간공파 ●●

연서면 기룡리에 거주하는 평택임씨는 충간공파^{忠簡公派}로 기존의 조사에서 입향조는 임승변이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임승변^{林承蕃} 임승렬^{林承烈} 형제가 전라도 옥구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여, 형 임승변은 연서면 기룡리에 입향하여 세거지를 이루었고, 동생 임승렬은 남면 연기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임승변의 손자 임순우가 기룡리 입향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족보에 보이는 임승변의 묘소는 남원이고, 임순우의 아버지 임연련의 묘소는 신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전되어 설단을 모신 상태이다. 임순우의 묘소가 비로소 남면 수산리에 있다는 기록과 함께 묘소도 확인할 수 있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400여년 전 임순우가 공주 도신



- | | |
|---|---|
| 1 | 2 |
| 3 | |
- 1 기룡리 평택임씨 세보 및 자료
 - 2 기룡리 평택임씨 족보 묘소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입향조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3 기룡리 평택임씨 조사모습



1	2
3	4
5	

- 1 기룡리 평택임씨 훈의 묘
- 3 기룡리 평택임씨 순우의 묘
- 5 기룡리 평택임씨 응협의 묘

- 2 기룡리 평택임씨 승번의 묘
- 4 기룡리 평택임씨 언련의 묘



기룡리 평택임씨 조상님께 절하고 있는 후손의 모습

에 자리 잡으려 하였다가 당시 도신에 거주하던 진주강씨들에게 기싸움에 밀려서 기룡리에 자리잡게 되는데 평택임씨가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는 의미로 신림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한다. 현재 신림에는 경주김씨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고 평택임씨 후손들은 사기점골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기룡리 연서효교비 ●●●

연서효교비燕西孝橋碑는 연서면 기룡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비석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5대에 걸쳐 9명의 효자가 나온 흥씨 집안을 기리기 위해 1773년(영조 49)에 세운 비석이다. 9명의 효자란 조선시대 공조참의를 지낸



1	2
3	4 5 6
7	

- 1 **효교비** 효교비각과 정자등이 있는 현재의 모습
- 2 **효교비** 효교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다.
- 3 **효교비** 조선 영조때 세운 효교비이다
- 4 **효교비** 좌측면
- 5 **효교비** 뒷면
- 6 **효교비** 우측면
- 7 **효교비** 효교비각 현관



1	2
	3
	4

1 효교비 효교비가 상량문
3 효교비 정원일기초 원문

2 효교비 효교정 증수기
4 효교비 홍우구 만시

홍연경洪延慶과 그의 아들 홍연설洪延高, 손자 홍우적洪禹積 · 홍우평洪禹平 · 홍우구洪禹九, 증손자 홍방만洪紡?, 현손洪玄孫 홍득후洪得厚 · 홍득일洪得一, 5세손 홍상직洪相直을 지칭한다.

영조대에 홍연경의 현손인 홍득후가 홍상직을 양자로 들었는데, 홍상직은 대사간大司諫 벼슬에 있으면서 종종 입조入朝하지 못하였다. 영조가 이상하게 여겨 그 사연을 물은즉, 고향의 조상묘에 성묘하느라고 입조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얘기를 들은 영조가 홍상직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그의 본향인 마룡동馬龍洞의 이름을 효교동孝橋洞이라 고쳐 주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 살면서 효교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비는 186cm의 높이로, 4각 대석臺石의 비좌碑座 위에 비신과 우진각 지붕의 돌이 얹혀 있다. 전면에는 ‘孝橋효교’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연경洪延慶은 동생 홍이경洪履慶이 광해군 8년(1616)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 2등 16위(21/100)로 입격한 방목인 『만력44년병진3월증광사마방목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09])에 근거하면, 부친은 통사랑通仕郎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를 지낸 홍의민洪義民이며, 홍여경洪餘慶이 형이고, 홍이경洪履慶 홍익경洪益慶 홍석경洪碩慶 홍상경洪尙慶 홍필경洪必慶 등이 동생이다. 홍이경이 입격한 사마방목에 기록되어 있는 거주지는 연기燕岐이다.

홍득후洪得厚(1689년, 속종 15~미상)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재후載厚이다. 증조는 홍정설洪廷高이고, 조부는 홍우적洪禹績이다. 부친 홍현洪鉉과 모친 이씨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부는 이정항李廷恒이다. 1723년(경종 3) 식년 문과에 유학幼學의 전력으로 35세의 나이에 병과 9위(총 급제자 35명 가운데 19위)로 급제하였다. 『계묘식년문무과방목癸卯式年文武科榜目』(하버드연칭도서관[K 2291.7 1748 (1723.3)], 원본: 연세대학교)에 의하면, 거주지가 연기燕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34년(영조 10)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으며, 1736년(영조 12) 사헌부 장령에 올라 과거시험장의 폐단을 바로 잡는 데 주력하였고, 1742년(영조 18) 남혜로南惠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파직하라는 소를 올리다 영조로부터 미움을 받아 체직되었다. 그 후 다시 장령·헌납 등에 제수되었으나, 교리 한광회韓光會의 탄핵으로 또 다시 파직되기도 하였다. 최종 관직은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까지 이르렀다. 아들로 사헌부 집의 홍상직洪相直이 있다.

홍상직洪相直(1723, 경종 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경이敬以이다. 홍우적洪禹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현洪鉉이고, 아버

지는 홍득제洪得濟이며, 어머니는 이정항李廷恒의 딸이다. 병조참의 홍득후洪得厚에게 입양되었다. 1750년(영조 26) 성균관 취사取士에 뽑혀 직부전시直赴殿試로 이듬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1760년 지평持平으로 재직 중 이조참판 조명채曹命采, 한성우윤 이태화李泰和 등을 탄핵, 배척하였고, 이어 정언正言으로 옮겼으나 지평 이창임李昌任의 탄핵으로 체차되었다. 1762년에는 병조정랑으로 재직 중 공화公賁를 함부로 낭비하였다는 지평 신익빈申益彬의 탄핵으로 체차되었다가 이듬해 지평으로 복귀하였고, 1766년 장령으로 있으면서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을 탄핵하였다. 그 뒤 헌납·정언을 거쳐 장령 재직시 성인의 예율禮律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제공蔡濟恭을 탄핵하는 소를 올려 영조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이어 집의를 거쳐 사간으로 있다가 지평 유훈柳薰의 탄핵으로 삭판削版, 즉 벼슬아치의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으며, 이듬해 사간으로 복귀한 뒤 집의 등을 역임했다.

신림에 터잡은 경주김씨 ●●

신림에 대해 주민들은 임씨가 들어와서 이룩하였다는 의미로 ‘신림新林’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경주김씨이다.

처음 마을에 살고 있던 평택임씨는 좀 더 좋은 곳이라 여겨지는 사기점 골로 옮겨 살게 되었고, 이곳 신림에는 경주김씨가 이어 살게 되었다. 경주김씨 문중의 자료와 후손의 전언으로 추정해 본 결과, 400여년 전 현존 인물의 14대조 경주김씨 계림군과 김남현의 묘소 위치가 기룡리 곡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후손들 또한 초장지라고 단언한다. 묘소에는 2007년도에 문중기록에 의거하였다는 석물과 비석들을 세웠다. 비석은 국한문 혼용이다.

기룡리 신림에는 경주김씨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은 입향조의 집터였던 곳이라고 후손은 전한다. 60여년 전에 지어 40여년전 까지도 입향조인 김남현을 단독으로 모셨던 사당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문중의 위패를 모두



1 기룡리 경주김씨족보(구보)

2 기룡리 경주김씨파보(신보)

1	2
3	4
5	6

3 기룡리 경주김씨묘역

4 기룡리 경주김씨묘역

5 기룡리 경주김씨묘역

6 기룡리 경주김씨묘역

기룡리 입향조 김남현의 묘소인데 근래에 석물등을 새로 해놓았다.

묘역 아래로 평택임씨들이 처음 살았다는 '신타'이라는 마을이 보인다.



1	2
3	4
5	6
7	

- 1 기룡리 경주김씨 입학조 김남현 묘비 2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3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전경 4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현판
 5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두 걸어놓았다.
 6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입학조의 위패가 맨 처음에 있다.
 7 경주김씨 신림파 사족당 사진으로 기억할수 있는 분들은 사진도 걸어 놓았다.



기룡리 경주김씨 조사모습

모신 사족당이 되었다. 2005년에 간행된 족보에는 증직으로 통정대부 좌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보에서는 증직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입향한 연유를 알 수 없다는 신림의 경주김씨는 족보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400여년 전부터 터를 잡고 대를 이어와 살았기 때문에 타성이 거의 살고 있지 않던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타성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연서면 봉암리



조사대상 윤태풍 처 경주최씨 열녀문, 봉황정터, 파평윤씨, 경주이씨, 밀암박씨, 봉암서원 터

봉암리(鳳岩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북이면 봉암리의 일부와 군내면 봉암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서면 봉암리라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봉암리가 되었다. 봉암은 봉바위(부영바위)를 한자 ‘鳳岩봉암’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봉암에서는 상고시대의 구리칼[동검(銅劍)], 구리창[동과(銅戈)]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우 번창하여 전에는 ‘연기는 봉암으로 꾸러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이면에 봉암리(鳳岩里)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167호, 인구는 남자 345명, 여자 289명이라고 하였으니, 그 당시 매우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봉암리는 3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의 봉암은 현재의 봉암 2리가 원자리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마을이 커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암리 마을모습

봉암리의 지명유래는 봉황산 동쪽에 있는 바위인 봉바위(봉암)와 관련이 있다. 이 바위는 봉황과 같이 주둥이가 창고개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봉황이 창고개를 파 먹고 똥을 봉암에다 누므로 봉암은 잘되고 창고개는 가난하게 된다하여 창고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위를 몰래 떨어뜨려 버렸다고 한다. 마을이 매우 유복하게 번성하는 이유가 봉암 동쪽에 있는 봉황산 때문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봉암 뒤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인 주막거리는 예전부터 이 길을 따라 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마을 안쪽까지 주막과 가게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고래실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와 인접한 논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좋다고 하여 옛날 마을 어른들은 ‘고래실에 논을 부쳐야 쌀밥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다 한다.

봉암리 파평윤씨 태위공파 ●●●

봉암리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와 터를 잡은 것은 진주강씨였다고 한다. 그들은 넘들고개에서 집을 짓고 살았고, 그 이후 밀양박씨가 마을로 들어와 많은 세대가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가운데 조선조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낙향한 파평윤씨들이 본격적으로 집성촌을 이루면서 마을에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언서면 봉암 2리에 거주하는 파평윤씨(坡平尹氏) 태위공파(太尉公派)의 파조는 윤안비(尹安庇)이며, 입향조는 윤기환(尹起煥(1582추정-))이다. 그의 부인은 파평윤씨보다 먼저 봉암 2리에 거주하고 있던 밀양박씨이다. 윤기환은 원래 고조부 윤수(尹粹)와 증조부 윤달몽(尹達蒙) 때에 갑자사화로 인해 부관참시를 당하는 등 큰 화를 입었다.

갑자사화는 1504년에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몰러나게 하고 사약(死藥)을 내려 죽게 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



1	2
3	4
5	6

- 1 파평윤씨 봉암리 입향조 윤기환의 묘
- 3 봉암리 파평윤씨 선조들의 설단
- 5 봉암리 파평윤씨 사당 묘역 입구에 있다.

- 2 글씨를 판독할수 없는 옛상석
- 4 봉암리 파평윤씨 사당 현판의 이름이 요강재이다.
- 6 봉암리 파평윤씨 사당 요강재의 모습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원통함을 풀어 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고, 피화인被禍人, 즉 사화士禍에서 처벌된 사람이 무오사화戊午士禍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계기로 신구 재상新舊宰相인 훈신勳臣이 제거되고 이미 무오사화로 처벌 받은 인물에게도 벌이 더해졌으며, 아직 조정에 남아 있던 사람도 축출되었다. 『경국대전』의 법 운용 변질과 능상凌上 또는 불경죄不敬罪를 죄목으로 하여 신료들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사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연산군의 친위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후 연산군은 경연 중지, 홍문관과 사간원의 혁파 등을 통해 언관言官의 언론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고, 궁금宮禁 세력과 척신戚臣 세력을 본격적으로 등용해 갔으며, 노골적으로 황음적荒淫的 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윤기환은 유성 상갑동 일대에 소정공과의 19대손 일가를 찾아 피난하였으나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공주 장기면 갈산리 일대로 이거하였는데, 어려운 상황 중에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자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봉암리 요옥동으로 피신하여 정착하였다. 여기에는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다. 입향조인 윤기환은 가난하였지만 성품이 방정하고 부지런하여 밀양박씨 집안에서 사위를 삼았다. 윤기환이 처가살이를 하던 중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친정 아버지의 못자리가 명당임을 알고 이를 탐낸 윤기환의 처 밀양박씨는 밤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날라다 친정 아버지가 들어갈 못자리에 부었다. 다음날 아침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물이 나오는 안 좋은 터라고 여겨 시신을 다른 곳에 매장하고 그 자리는 비게 되었는데, 후에 남편 윤기환이 죽자 그 자리를 얻어 묘를 쓴 후 윤씨 집안이 발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파평윤씨 집안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밀양박씨 집안은 나날이 힘을 잃어 하나 둘 마을을 떠나갔다. 그리하여 현재 밀양박씨는 마을에 거의 살지 않고, 파평윤씨가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웃골이라고 불리는 봉암 2리 요옥동에 파평윤씨들의 종산이 위치하고



1	2
3	4

- 1 파평윤씨 윤봉균 애국지사 모
송덕비와 공덕비가 함께 있다
- 2 파평윤씨 윤봉균 애국지사 모
- 3 파평윤씨 윤봉균 애국지사 송덕비
- 4 파평윤씨 윤봉균 애국지사 공덕비



있고, 선조들의 묘가 주로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봉암2리를 파평윤씨 못자리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입향조 윤기환의 묘와 재실도 요옥동에 있다.

독립유공자 윤봉균의 아들 윤종구씨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많은 책과 자료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 특히 애국지사 윤봉균과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을 정리한 ‘애국지사 윤봉균’이라는 자료 집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봉암리 경주이씨 국당공파 ●●●

봉암리의 경주이씨慶州李氏는 국당공파菊堂公派로 이 마을의 입향조는 이광복李光復(1763~?)이다. 아버지는 이택간李宅幹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봉암리 밀양박씨 호군공파 ●●●

봉암 2리의 밀양박씨密陽朴氏는 호군공파로 이 마을의 입향조인 호군공 박명을 파조로 한다. 박명의 묘소는 봉암리 연하산에 있으며 재실이 있다.

봉암리 봉암서원 터 ●●●

봉암리 안봉암 마을의 동쪽 끝에 봉암서원鳳巖書院 터가 있다. 봉암서원은 조선시대에 연기현에서는 유일하게 사액받은 서원으로, 한충·김장생·송준길·송시열을 병향하던 곳이다.



봉암서원 사적비
예전 봉암서원이 있던 흔적이다.



봉암서원 사적비
사적비 아래로 서원이 있던 자리였다는 발이 있다.

1	2
---	---

1 봉암서원 사적비 앞면

2 봉암서원 사적비



봉암서원이 처음 창건된 것은 1651년(효종 2)이라고 하는데, 한충의 문집인 『송재집 松齋集』의 「봉암서원청역소 鳳巖書院請額疏」에는 1645년(인조 23)에 반계 礪溪에 처음 건립하였다고 하여 기록상 차이를 보인다. 서원 건립 후 1662년(현종 3)에는 사계 김장생을 병향하고 3년 뒤인 1665년에는 사액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서원의 명칭은 지명을 따라 ‘반암서원 礪岩書院’이라 개칭하였다. 그런데 반암서원은 석담으로 이건되고, 다시 현재의 위치인 봉암으로 재이건되면서 서원 명칭도 ‘봉암서원’으로 바뀌었다. 봉암으로 위치를 옮긴 후에는 1685년과 1721년에 송준길과 송시열을 차례로 추배하였다. 1868년 훼손된 후 재건되지 못한 까닭으로 서원은 없어졌고, 터에는 1757년(영조 33)에 세운 봉암서원 사적비(尹鳳九 찬, 宋煥星 서, 李奎恒 진)만 남아 있다.

봉암리 열녀 윤태풍 처 경주최씨 열녀문 ●●●

윤태풍 尹泰豊의 처 경주최씨 慶州崔氏(1842~1866)의 열행을 기리고자 유럽과



1	2
3	

- 1 윤태풍 처 경주최씨 효열각
- 2 윤태풍 처 경주최씨 효열각 조사하는 모습
- 3 윤태풍 처 경주최씨 효열각 정려각의 모습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유적으로 봉암리 연봉초등학교 동남쪽 길 건너편 북서향 사면의 낮은 구릉 상단부에 위치한다.

경주최씨는 최규崔圭의 딸로, 대덕군(현재의 대전시) 신탄진에서 태어나 과평윤씨 윤태풍에게 출가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경주최씨의 시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편이 먼 지역으로 품팔이를 떠나고 최씨는 병든 시부모를 구걸까지 하면서 봉양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품팔이 떠난 남편마저 병에 걸려 돌아오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약을 사서 봉양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년간을 시묘하는데 매일같이 범이 와서 호위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림과 고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1930년에 정려가 건립되었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며, 공포는 이익공양식을 보이고 있다. 정려의 4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정려 안에는 명

정 현판과 정려기를 걸어 놓았다. 정려기는 가로 120cm, 세로 36cm의 크기로 작은 글자로 조밀하게 써 놓았으며, 명정현판은 가로 175cm, 세로 40cm 크기의 현판에 ‘學生尹公泰豐 配孺人慶州崔氏 孝烈閣(학생 윤태풍의 부인 유인 경주최씨 효열각)’이라고 적혀 있다. 원래의 정려는 현 위치에서 100m 아래쪽 동네 한가운데 있었는데, 1980년에 현 위치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묘는 언서면 봉암 뒤 요옥곡堯玉谷에 간좌良坐로 있으며 남편과 쌍분雙墳이다.

봉암리 봉황정 터 ●●●

봉황정鳳凰亭 터는 봉암리의 봉황산록 남쪽자락에 있다. 유형국柳亨國이 봉황산록에 정자를 건립하고, 월하月河 민후건閔後騫, 만주晩洲(홍석기洪錫箕), 육일당六逸堂 최진원崔進源 등 당대 거유들과 유학을 강론하며 노닐던 곳인데 현재 정자는 남아 있지 않다. 봉황정을 다녀간 여러 명사들의 수창시酬唱詩 1권이 있다.

유형국의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병자호란 때 월하 민후건과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유형국의 처 해주최씨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살면서 1636년(인조 14) 한양에 있는 친정으로 근친을 갔다가 병자호란을 만나자, 승지를 지내던 오빠 최유연이 왕자와 비빈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갈 때 함께 행렬을 따랐다. 그러나 강화도의 성이 함락되어 왕자와 비빈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부녀자들은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혹은 청나라 심양까지 끌려가기도 하였다. 이에 해주최씨는 손가락을 잘라 하얀 적삼에 글씨를 써 남편에게 이르기 “강화도에서 굳게 지키던 성은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포로가 되어 욕을 당하느니보다 차라리 조국을 위해 깨끗하게 이 몸을 바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은 뒤에 장사를 지낼 때 이 옷을 써 주

시기 바라나이다.” 하는 글을 남기고 1637년(인조 15) 정월 25일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홍석기(洪錫箕, 1606~1680)는 조선 후기 인조~현종 때 활동한 문신으로, 자는 원구(元九), 호는 만주(晩洲)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당홍(唐洪)이고, 주거지는 충청도 청주(淸州)라고 한다. 아버지는 생원 홍이중(洪頤中)이고, 어머니 고성남씨(固城南氏)는 현감 남충원(南忠元)의 딸이다. 중추부 동지사 홍순각(洪純愨)의 손자이고, 낙주(洛州) 구봉서(具鳳瑞)의 문인이다.

연서면 부동리



조사대상 유기문 묘소, 이문백 처 의성김씨 정려

부동리釜洞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군내면 부동리와 치암리, 서면의 오룡리, 산숯골, 방죽안, 홍축골을 병합하여 연기군 서면 부동리라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부동리가 되었다.

부동리(가마골, 부동)의 지명유래는 옛날에 그릇 가마를 문었던 자리가 있어서 가마골 또는 부동이라고 하였다고도 하고, 고려 충렬왕 17년에 쌍전리 정좌산 전투에서 고려와 원나라에 반기를 든 함단적을 무찌르기 위한 연기대첩을 위해 밥을 짓기 위한 큰 가마를 설치한 곳이 이곳으로 가마골이라는 지명이 불

게 되었고, 이 가마골을 한자화하면서 부동리가 되었다고도 한다.

마을의 주민들은 예전에는 부동리가 아니라 원부동이라는 지명으로 마을을 지칭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부동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부동리는 여섯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의 원 마을인 원부동,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부근의 산이 모두 붉다는 홍축골(홍축), 마을 밖에 방축이 있었다는 방죽안(방축동), 모양이 평 같이 생긴 바위인 평



부동리 마을모습



부동리 마을모습

바위가 있는 치암, 평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오룡五龍처럼 되었다는 오룡골[오룡동], 오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 산소가 있는 산숯골[산수동, 산덕] 등이다.

부곡리 유기문 묘소 ●●●

유기문(柳起門)(1564년, 명종 19~미상)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문화文化이고, 자는 광전光前, 호는 쌍청당雙淸堂이다. 문간공文簡公 유공권柳公權의 14세손이고, 정신공貞信公 유승柳陞의 11세손이며, 증조는 유삼양柳三陽이고, 조부는 유종수柳宗壽이다. 전 의서습독관前醫書習讀官 종사랑從仕郎 유헌민柳憲民과 모친 이응진李應震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은 유희문柳熙門, 동생은 유흥문柳興門이고, 부인은 홍탁洪鐸의 딸이다.

유기문은 1589년(선조 22) 증광시에서 생원 3등 11위(41/100), 진사 3등 52

위(82/100)로 입격入格하였는데, 사마방목의 거주지는 진천으로 기록되어 있다. 1601년(선조 34) 식년 문과에 병과 6위(16/34)로 급제하였으며,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가운데에는 1601년(선조 34) 6월 이조에서 새로 급제한 생원 유기문柳起門을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로 임명하는 차첩이 현전하고 있다.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등과 함께 갑계甲禊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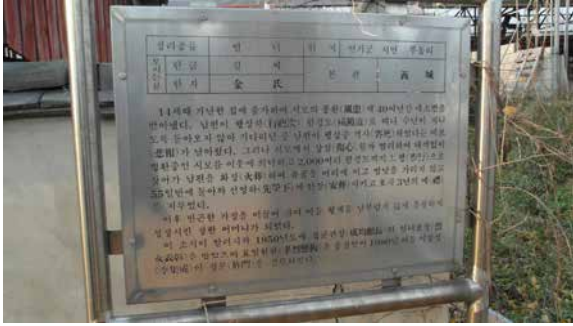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재직 중 1602년(선조 35)에 사간원司諫院으로부터 해당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당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1605년(선조 38)에는 북도평사北道評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사헌부司憲府로부터 성품이 옹졸하여,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을 당하였다. 그 결과 북도평사에서 교체되어,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임명되었다. 이후 감찰監察·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공조정랑工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충청도사忠淸都事에 임명되었는데, 사간원으로부터 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당하여, 해당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이후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유기문은 광해군 때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사건인 이른바 폐모살제廢母殺弟의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아 권력층의 미움을 받아 불안현감으로 쫓겨났다.

만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진천현의 서쪽 벽오리碧梧里에 우거하였으며, 쌍청당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또한 손수 잣나무 두 그루를 심어 역경에도 지조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의 세한후조歲寒後凋의 표상으로 삼았다. 묘墓가 연서면 부곡釜谷에 있다.

부동리 이문백 처 의성김씨 정려●●●

부동리 오룡동 마을 뒷 쪽 구릉의 남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정려는 이문백李文柏의 처 의성김씨義城金氏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	2
3	4
5	

- 1 부동리 의성김씨 정려 이제는 안내판의 행적만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조사 후 후손에 의해서 정려는 헐어졌다고 한다.
- 2 부동리 의성김씨 정려 의성김씨 남편은 연기군지 등에는 이성호라 하였고 후손은 이문백이라 하는데 이곳 정려현판에는 이문근이라고 기록되어있다. 후손의 진술대로 이문백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 3 부동리 의성김씨 정려
- 4 부동리 의성김씨 정려
- 5 부동리 의성김씨 정려가 있던 곳



1980년에 세운 것이었는데 현재는 없다. 이 정려는 연기군지나 연서면지 등에는 이성호의 처로 기록되어 있는 정려이다. 조사 중 현판의 내용이 '효열부 이문근의 처 김씨지문'이라고 쓰인 것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니 열행의 기록은 모두 같았고 정려를 세운 아들 이집성까지 동일인이었으나

남편의 이름만 정려기록과 군지 면지의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었다. 후손에게 확인한 결과 이문백의 손자인 이재영 옹은 할아버지의 함자가 ‘문백’이라는 것이다. 현판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잡기로 하였다. 열녀 의성김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의성 김씨는 시모의 풍환에 40여년간 대소변을 받아냈고, 남편이 함경도에서 객사하자 시모를 이웃에 의탁하고 함경도에 가서 남편을 화장하여 유골을 머리에 이고 55일 만에 돌아와 선영 아래에 안장시키고 호곡 3년의 예를 치루었고 자제를 훌륭하게 키웠다. 1950년 성균관장의 열녀표창을 받았으며 효열현판을 증정 받아 1980년에 아들 이집성(李集成)씨가 사재로 정려를 건립하였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집 건물로 정려기와 명정현판을 걸어 놓았다.

연서면 성제리



조사대상 남양홍씨, 문화류씨, 기계유씨

성제리性齊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북이면 원봉리, 도산리, 봉촌리, 과성리窠城里, 괴동리, 괴촌리를 통합하여 연기군 북면 성제리性齊里가 되었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연기군 서면 성제리가 되었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성제리가 되었다.

조선후기의 『여지도서』에 의하면, 연기현 북이면 성재동리性齋洞里가 연기현 치소로부터 15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30호, 인구는 남자 41명, 여자 67명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삼면 원봉리圓峯里가 연기현 치소로부터 7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16호, 인구는 남자 36명, 여자 33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도 연기현 북이면 성제리性齋里가 보인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性齋성재’, 1914년의 기록에서는 ‘性齊성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재’가 언제부터 ‘제’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 한자 표기상의 오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성제리 마을모습

이 지역은 뒷산이 성처럼 되었으므로 성재 또는 성작골 또는 탄이름으로 도맥道脈이라 하던 곳인데, 남양홍씨의 학자가 당호를 성재性齋라고도 하였다 한다.

성제리는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북(용암)저수지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는 월하천을 경계로 동쪽이 성제1리, 서쪽이 성제2리가 된다.

성제1리는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니, 서당골, 등구리재, 성뜸, 새말, 골말이 그것이다.

서당골은 조선 효종때 공조참판 홍우극 부자와 세문당 홍우채가 서당을 짓고 서생을 가르친 곳이라 한다. 서당의 전통은 계속되어 일제강점기까지도 서당이 있었고, 쌍전리 월하리 성제리 아이들이 와서 배울 정도였다고 한다. 서당골 출신 인물 중에는 교사가 많은데, 이것도 이런 교육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 서당골 안고랑의 기계유씨 종산에서는 고려장터라 알려진 고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동구리재는 두루봉 안쪽 마을이다. 두루봉은 성작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둥글게 생겼는데, 이 두루봉 안쪽에 있는 마을인 동구리재^{과동}는 지형이 동우리처럼 생겼으며, 큰 느티나무가 있다. 무태들이 이 마을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했으며, 성제1리 다섯 개의 마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다.

새말^{과성}, 봉촌^리은 동구리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새의 동우리를 닮았다고 하는데, 동구리재와 혼동되는 것을 피해 한자로 과성^{窠城}이라 하였으며, 새말 또는 봉촌이라고도 하였다.

골말은 과성 옆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기와집골이라 할 만큼 기와집이 많았고 동네가 컸다고 한다. 지금도 골말 앞의 작은 밭인 기와집모퉁이밭에서는 기와편이 많이 나온다. 조선시대 기와집 여러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성 옆 골짜기 마을로 골씨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성뜸은 과성 동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성^성씨가 살았다 하며 연서면사무소가 있다. 서낭당이 있어 성뜸이라는 전설도 전해진다. 원래 연기군 서면 면사무소는 번암리에 있었으나, 조치원이 읍으로 승격하고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면서 번암리가 조치원읍에 소속됨에 따라 서면사무소도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어느 지역에 입지하게 될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서가 있던 성제1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논의에 따라 현 위치에 입주하게 되었다. 전언에 의하면, 면사무소 건물을 짓는 동안에 직원들이 근무할 곳이 마땅치 않아 서당골의 재실에서 얼마간 업무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성제2리는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1, 2, 3반 마을은 토막산 아래에 도라골(도리뜸)의 남향사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4반인 두루봉마을은 남쪽으로 성제교를 지나 하천에 접한 평지에 자리한다. 연서면 농협이 맞은편에 위치한 두루봉은 한때 70~80호가 사는 큰 마을로 원봉이라고도 하였다. 원래 연기군 북면 원봉리에 속하였다가 100여년전쯤 물난리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고 서면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지형이 누에 모습이며

누에의 머리부분이 산사태로 쓸려가 버렸다고 한다. 농사로 먹고 살던 시절에 성제2리는 부촌으로 꼽혔으며, 남양홍씨 집성촌으로 번성한 까닭에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되었다고 한다.

성제1리에는 과거에 남양홍씨, 기계유씨 등이 많이 거주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창녕성씨가 살았다고 하는데, 후손은 전혀 없으며, 서당골에서 발견되는 고춧은 서씨의 묘라 하니 수백년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이 바로 성씨나 서씨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

성제리 남양홍씨 진사공파 ●●

성제2리는 연서면의 대표적인 세거 성씨인 남양홍씨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1500년대 후반에 입향한 이후 후손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왔다. 조선후기 북이면에 속해 있었던 시기에는 성제리가 북이면의 중심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제2리는 연서면에서 대표적인 남양홍씨 집성촌이다. 연서면 일대는 남양홍씨 연기파의 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중은 7개파로 다시 분파되었고, 그 중에서 선조때 진사를 지낸 홍이경의 자손인 진사공파가 1500년대 후반에 자리잡고 번성한 곳이 성제2리다. 진사공파는 연기지역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확산되었으며, 성제2리가 장자 계열인 도장파의 세거지가 되었다. 남양홍씨 진사공 홍이경의 묘가 성제2리에 위치하며 매년 가을 시제를 올리고 있다.

홍이경洪履慶은 『만력44년병진3월증광사마방목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09])에 의하면, 광해군光海君 8년(1616, 丙辰)의 증광시增廣試에서 유학幼學으로 진사시에 응시하여 진사 2등 16위(21/100)로 입격하였다. 위 방목에 의하면, 홍이경의 자는 형원亨遠이고, 생년은 1582년(선조 15, 壬午)으로 합격 당시의 연령은 35세였으며, 본관은 남양南陽[唐], 거주지는 연



1	2
3	4
5	6

- 1 성제리 남양홍씨 조사모습
- 3 성제리 남양홍씨 조사모습
- 5 홍이경 신묘비

- 2 성제리 남양홍씨 조사모습
- 4 남양홍씨 성제리 입향조 홍이경의 기록이 보이는 족보
- 6 홍이경 옛묘비



1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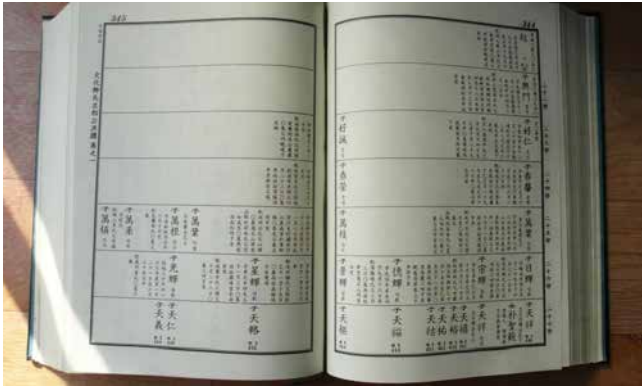
- 1 홍이경 묘소 전경
- 3 홍이경 묘소의 석물들
- 5 홍이경 묘소의 석물들

- 2 홍이경 묘소 전경
- 4 홍이경 묘소의 석물들

기燕岐이다. 또한 아버지는 통사랑通仕郎 전예빈시봉사前禮賓寺奉事 홍의민洪義民이고, 안향으로는 형 홍여경洪餘慶 홍연경洪延慶, 동생 홍익경洪益慶 홍석경洪碩慶 홍상경洪尙慶 홍필경洪必慶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성제리 문화류씨 재상공파 ●●●

성제리 문화류씨 재상공파 입향조는 시조의 23세손 유호성이다. 그의 선친은 청양(당시 공주 만현)에 살았었다 하며 유호성은 사후 고향에 묻혀 그



문화류씨 성제리 입향조의 기록이 보이는 부분이다.



성제리 문화류씨 재상공파보

의 묘의 위치는 기록상 공주 만현으로 되어 있다. 24세 유춘영 이후로 묘가 서면 위양골에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들의 전언대로 유호성이 흥씨가에 사위로 연고를 맺으면서 성제리에 살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들이 주변에 터전을 일구어 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손은 33세손으로 입향시기는 250년전으로 추정된다. 입향조의 아들 유춘영의 묘가 용암리 위양골에 있었으나 얼마 전 납골묘로 모두 한자리에 모셨다 한다.

성제리 기계유씨 동정공파 ●●●

연서면 성제리의 기계유씨 杞溪俞氏는 동정공 同正公 유형무 兪迥務를 파조로 하는 동정공파 同正公派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기계유씨 동정공파의 성제리 입향조는 파조로부터 4세손인 유선 兪善(조선 개국 초)으로 지는 우문 禹聞이며, 벼슬은 자헌대부 資憲大夫 호조판서 戶曹判書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는 진사 進士를 지낸 유홍적 兪弘迪, 어머니는 허씨 許氏이고, 부인은 전주이씨 全州李氏이다.

입향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이 개국되자 유선은 고려의 유신으로서 황해



1	2
3	4
5	6

- 1 성제리 기계유씨 묘역
- 3 성제리 기계유씨 입향조 묘소
- 5 성제리 기계유씨 묘역에서 조사모습

- 2 성제리 기계유씨 입향조 선대의 설단
- 4 성제리 기계유씨 입향조 유선의 묘비
- 6 성제리 기계유씨 묘역에서 바라본 모습



성제리 기계유씨 사당

도 개성에서 연기지역으로 은거하였다고만 전해질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기계유씨 동정공파는 성제리, 와촌 3리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성제 1리 서당골에 유선의 묘가 있으며, 유선을 모신 재실인 경운사(慶雲祠)가 묘소 근처에 있다. 마을 일대에 기계유씨의 종토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집안 소유지가 많다. 주요 후손으로는 유선의 아들로 통훈대부 행 직장(通訓大夫 行 直長)을 지낸 유상례(兪尙禮)와 효행으로 1887년(고종 24)에 표창 받은 유참순(兪參順) 처 부안임씨(扶安林氏)가 있다.

연서면 신대리



조사대상 남양홍씨, 홍일섭 비석과 기적비

신대리新垔里는 1914년에 연기군 서면 신대리 용동리 행화리 우덕리 화동리와 봉강리(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서면 신대리가 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신대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삼면에 화동리禾洞里가 보이는데, 연기현 치소로부터 15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9호, 인구는 남자 14명, 여자 25명이라고 하였다. 한편, 원래의 신대리(새터말, 신대는 2백여년 전에 남양홍씨가 처음 새터를 잡아 살았으므로 새터말 또는 신대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말기

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추측된다.

연서면 소재지의 서쪽에 위치하는 신대리는 불당골을 기준으로 동남쪽은 신대1리, 서북쪽은 신대2리로 나뉜다. 신대2리에서 1리로 내려오는 물과 기룡리에서 흘러오는 물이 하나로 합쳐져 국촌리를 지나 금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신대리 마을모습



신대리 마을모습 효교비에서 바라본 모습

	1
2	3

- 1 신대리 남양홍씨 관련 현수막
- 2 신대리 삼거리 마을 표석과 남양홍씨 문중 공덕비, 송덕비
- 3 신대리 삼거리 마을 표석과 남양홍씨 문중 공덕비, 송덕비



전통시대에는 신대리의 교통이 좋아 호남에서 한양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이 신대1리를 통과하여 신대리를 사통팔달의 중심지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연서초등학교와 연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원신대는 살구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연기 남양홍씨 신대파조 홍우구의 후손들이 터잡아 살던 곳으로 여기에서 대박산의 수구까지 옥야 10리가 개간되고 40여호의 홍씨들이 모여 살던 부유촌으로 새롭게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새터말, 또는 원신대라고 한다. 새터말에는 남양홍씨 재실(효재사)이 있으며 사당이 있었는데 1993년 쯤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살구정이[행정은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살구나나무가 많았다. 살구나
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여 마을을 향화香花라고도 부르는데, 조선 중
엽에 경기 호남간 큰 도로가 마을 앞을 통과하였다. 동구밖에는 길손을
기다리는 주점이 있고, 안동네를 행정杏亭이라고 불렀다.

송정松亭은 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 예전에는 300여년간 남양홍씨들
의 집거지였고, 거유 박당 정용몽 등이 학자들을 영입하여 송정을 설립하
고 유·홍 양대 성의 젊은이들을 훈도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송정이라
는 명칭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라는 왜군 장수가 소나무가 있는 마을
은 쳐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마을명을 송정으로 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새터말 북쪽에 있는 마을인 불당골[우덕에는 전에 불당이 있었다. 약
120년 전에 전씨와 홍씨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여(혹은 홍씨와 김씨가 의롭게 살았
다고 해서) 우덕友德이라고도 부른다.

불당골 서쪽 큰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이 강골[강동리로 마을이 강의
동쪽에 위치하여 강동리라고도 한다.

송적골[성적골은 신대리에서 용암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밑의 마을로,
한자로 하면 송적곡松積谷이라고 한다. 연자방앗간이 2개 있었으며, 그리
크지 않은 저수지도 있었다고 한다.

숙골[숯골, 화뿔은 새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이곳에서 숯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1400년대 연기홍씨남양홍씨의 정착지이기도 하다. 홍씨
들이 많이 살게되어 화동禾洞이라고도 부르고, 불당골 아래 중이 살던 마
을이라고 하여 중말이라고도 부른다.

용동은 송정 앞에 있는 골짜기인 용척골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고, 풍수
골은 새터말과 효교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효교비가 있는 곳이다. 버덕
골에는 남양홍씨 서당과조 홍익경洪益慶과 후손들의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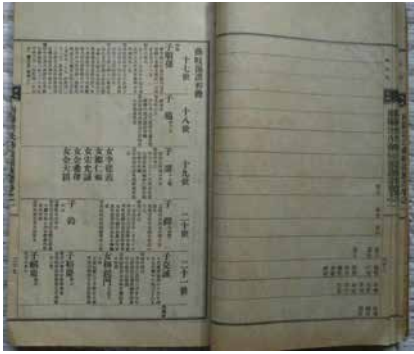
신대리 남양홍씨 남양군파 ●●●

연서면 신대 1리의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홍주洪澍를 파조로 하는 남양군파南陽君派로 입향조는 홍순손洪順孫이다. 홍순손의 아버지는 감찰監察을 지낸 홍중복洪仲復이고, 어머니는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유선俞善의 딸 기계유씨(1423~1501)이다. 홍순손은 현종 때 창신교위彰信校尉로 충무위 부사과를 역임하였으며, 직장直長을 지냈다.

남양홍씨의 연기 서면 입향에 대한 내력을 살펴보면, 고려 말 남양군 홍주洪澍의 넷째 아들 판사判事 홍빈洪斌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장령을 제수 받았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不出] 예산에 은거하였다. 그 후 손자인 홍중복洪仲復이 무과를 거쳐 감찰이 되었을 때 업무상 강진康津에 유배된 기계유씨 유선俞善(기계유씨의 연기 입향조)과 연결되어 유선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런 연유로 홍씨 집안에서는 기계유씨를 강진유씨라고 부른다. 그 후 홍중복이 일찍 죽자 기계유씨는 유복자인 홍순손을 낳고 3년 상을 치룬 뒤 친정인 연기지역으로 이거하게 된다.

홍순손의 입향 이 후 홍씨 집안은 매우 빠른 속도로 향촌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해 갔다. 창녕성씨, 강릉김씨, 강화최씨 등 연기지역의 유력 성씨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한편 중봉 조헌, 석호 윤문거, 소재 이이명 등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간다. 또한 중앙정계와의 연계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당시 홍신민이 가재를 기울여 조헌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는가 하면, 홍상경은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할 당시 공을 세웠으며, 또한 홍득일은 김일경의 역모사건에 소두로 앞장 서는 등 중앙정치의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상과 같이 연기지역에서 남양홍씨는 ‘천홍만림千洪萬林’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이는 1645년에 작성된 연기향안 좌목에 홍연경(1579~1647)을 비롯한 입향조 홍순손의 현손들과 홍연경



1	2	3
4	5	
	6	

- 1 신대리 남양홍씨 입학조 홍순손의 기록이 보이는 부분이다.
- 2 신대리 남양홍씨 파보
- 3 신대리 남양홍씨 파보
- 4 남양홍씨 화동 재실
- 5 남양홍씨 화동 재실
- 6 남양홍씨 화동 재실



홍순손의 묘



1	2
3	4

- 1 홍순손 묘역의 석물들 산비
- 2 홍순손 묘역의 석물들 구비와 신비, 상석, 석등, 석주 등이 있다.
- 3 홍순손 묘역의 석물들 구비앞면
- 4 홍순손 묘역의 석물들 구비뒷면



上 효자 홍연경의 묘
 홍연경은 효교비에 기록
 된 1세대의 인물이다.
 中 효자 홍연경의 묘
 下 효자 홍연경의 묘
 묘비

의 아들 홍정설을 위시한 5대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가 내려 오면서 향안에 등재된 홍씨들의 수는 상당히 증가한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홍연경과 아들 홍정설, 손자 홍우적·홍우평·홍우구, 증손 홍만, 현손 홍득일 등 5대에 걸친 7명의 효행으로 1772년(영조 48) ‘효교동孝橋洞’이라는 마을이름을 하사 받았는데, 효교비孝橋碑는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오늘날 남양홍씨는 서면 쌍전리와 성제리, 월하리에 고른 분포를 보이며 거주하고 있다.

신대리 효교비 ●●●

연서면 신대리와 기룡리의 중간 지점쯤에 해당하는 마을인 새터말의 입구 도로변에 효교비孝橋碑가 위치하고 있다.

이 효교비는 연기지역 남양홍씨 가문의 홍연경洪延慶(1579~1647)과 아들 홍정설洪廷高, 손자 홍우적洪禹績, 홍우평洪禹平, 홍우구洪禹九, 증손 홍만, 현손 홍득일洪得一 등 5대에 걸친 7명의 효행으로 1772년(영조 48) ‘효교동孝橋洞’이라는 마을 이름을 하사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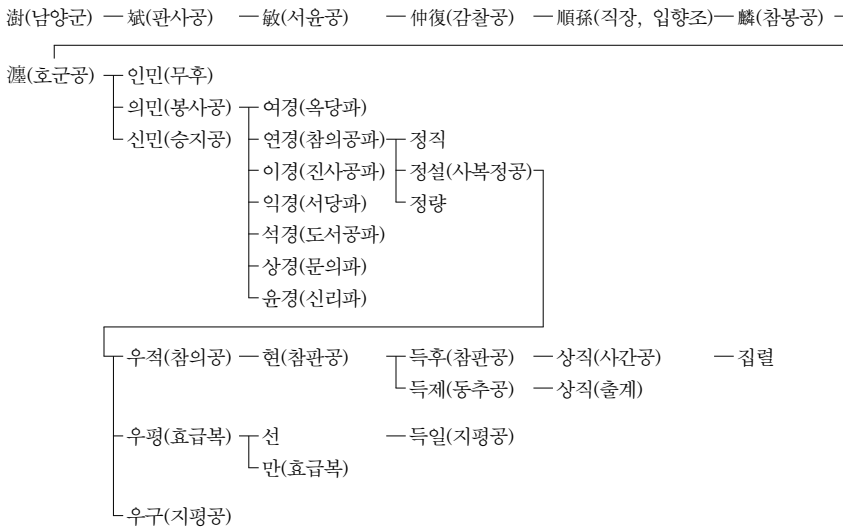
처음 효교비가 세워진 위치는 마룡동 마을 입구의 자연석 위였으나, 1987년 도로확장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이견하였으며, 1996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다. 화강석재의 너비 90cm, 높이 30cm, 두께 65cm 방형 대좌 위에 세워져 있는 비신은 너비 46cm, 높이 122cm, 두께 21.5cm의 크기이다. 비신 상단부에는 너비 81cm, 높이 34cm, 두께 59cm의 옥개형 이수를 올리고 있다. 효교비는 1984년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0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2호이다.

효교비 사면에 새겨진 비문에 의하면 홍현洪鉉의 손자 홍상직洪相直(1723~

1773)이 대사간(大司諫)을 그만두고 물러나 있을 때 영조로부터 특별히 ‘효교동’이라는 마을 이름을 하사받게 되었다고 한다.

홍상직의 아버지인 홍득후(洪得厚, 1689~1764)와 홍상직에 관한 기록인 사록(私錄)에 의하면, 1772년 2월 7일 정원일기초(政院日記抄)에 임금이 홍상직이 가선(嘉善)에 이른지 오래이나 입조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도승지(都承旨) 이석상(李錫祥)이 홍상직의 선조묘가 연기에 있는 바 성묘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면서 홍상직의 선조들은 5세 7효라고 소개한다. 그러자 영조가 효행을 기리기 위해 ‘효교동’이라는 동명을 특별히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진위를 떠나 연기지역에서 남양홍씨 가문이 지녔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종시 지역에서의 홍씨 집안 성장과정 속에서 홍연경을 비롯한 홍정설, 홍우적, 홍우평, 홍우구, 그리고 홍선, 홍만, 홍득일에 이르는 이른바 5세 7효가 등장하였고, 아울러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효

교동이라는 동명을 하사받게 된 것이다.

원래 5세 7효라고 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연경을 비롯한 7인이지만, 홍씨 집안의 효행은 그 이전부터 이름이 높았다. 우선 홍연경의 숙부叔父인 홍신민(1561~1611)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홍계헌洪啓憲이 지은 행장에 의하면 홍신민은 1591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160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 학유 등을 역임하였으나 1611년 51세로 졸하였다. 그가 부친의 병환시 피고름을 빨아냈다거나, 모친상을 당해 시묘 중 너무 울어 실명상태에 이르렀다는 효행이 전해지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조카들에게도 논밭을 별급해 주었으며, 특히 홍연경에게 서책을 주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의 의병활동에 가재를 기울여 지원하였고, 정유재란 때 쌀 300석을 풀어 빈민을 구제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에 증직되었다.

사실상 홍신민의 충효는 바로 조카인 홍연경에게로 전하여 졌다. 홍연경洪延慶(1579~1647)은 자가 자선子善으로, 홍의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지역의 대소시험에서 12번이나 장원을 했다고 할 정도로 학문에 출중하였으며, 그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작성한 글이 경향각지에서 과거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모범답안처럼 이용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경서를 섭렵하는데 주력하여 충청우도 지역에서는 그만한 학문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여 부모님이 병환이 나자 이를 극진히 간호했으며, 결국 돌아가시자 과거를 포기하였고, 또한 병자호란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책 15권을 갖고 피난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집념이 컸을 뿐만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심도 대단했던 것으로 전한다.

현손 홍득후가 쓴 행장에 의하면, 그의 학문과 효행을 기리기 위해 그가 죽은 후 지역유림들이 현감과 관찰사에게 고하였고, 이를 다시 조정에

고하여 교관 도사에 증직되었다. 이로 인해 이른바 5세 7효의 첫 세대가 된 셈이다. 후에 후손들로 인하여 공조참의로 추증되었다.

홍연경의 차남 홍정설(洪廷高, 1615~1671)은 자가 군필(君弼)로 부친의 효심을 닮아 이미 7세 때에도 좋은 음식이 생기면 먼저 부모에게 드렸고, 조상의 제사를 모심에 있어서 하인들이 근신하지 못하면 크게 꾸짖었으며, 어머니(동래 정씨)가 병이 나셨을 때에는 주야로 옷을 벗지 않고 모셨으며, 목욕하고 기도하며 음식을 직접 드리는 일을 거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잘 잡수시지 못하면 자신도 식사를 걸렸고, 좋다는 약은 그 효험을 시험하여 썼고, 그로 인해 차도가 있어 사람들이 효행으로 어머니가 회춘하였다고 칭송하였다. 후에 노환이 있자 단지(斷指) 효도를 하였고, 3년상을 치루면서 옷거나 친구를 만나지도 않았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의 효행을 석호 윤문거(尹文舉)도 백행의 근본이라고 칭송하였으며, 이러한 효행 사실을 지역유림들이 현감에게 올렸고, 현감이 다시 관찰사에 올려 효종 때에 탁월한 효행사실에 대해 특별히 도시를 제수하였으며, 그가 죽자 공의 행적을 듣고 공에 대한 은전이 생존해 있을 때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병전이 말하면서 현종조에 호조좌랑에 증직되었다가 후에 증손 홍득후로 인해 영조 때에 사복시정으로 추가 증직되었다.

홍정설의 세 아들 홍우적(1634~1701), 홍우평(1640~1699), 홍우구(1646~1698)도 모두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홍우적은 지평에 증직되었다가 다시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이들 삼형제는 석호(石湖) 윤문거(尹文舉)에게서 수학하였으며, 특히 홍우적은 학문이 뛰어나 대소 향사에서 연속으로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을 치루면서 과거를 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아플 때에는 형제가 함께 밤낮으로 병구완을 하였으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드리기도 하였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가 3년간 함께 시묘하였다고 전한다. 이들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지역의 인사들이 관에 고하려 하자 정색을 하며 문서를 찢어 자신의 효행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며, 젊을 때 담배를 피우던 것을 아버지가 금하자 돌아가신 후에도 작은 일이지만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지켰다.

결국 홍우적이 죽은 후 1710년에 관찰사가 이를 듣고 조정에 올려 지평에 증직되었고, 후에 손자 홍득후가 귀하게 되어 이조참의로 가증되었다. 홍우평도 효행으로 급복을 받았고, 홍우구는 1729년(영조 5)에 효행으로 지평에 증직되었다. 또한 『호서읍지』에는 ‘여러 유림들이 이 집안의 효행을 삼세오효三世五孝이자 우리 나라에서 드문 일이라’ 칭송하여, 이를 나라에 알려 1774년에 호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홍우평의 차남 홍만(1665~1719)은 자가 중보重甫로 그도 역시 부모를 지성으로 공경하여 효행으로 급복을 받았지만, 그의 효행 사실과 급복 연대는 확인하기 어렵다.

홍득일(1687~1736)의 자는 영백寧伯으로 홍선의 장남이며, 홍우평의 종손이다. 1792년 대사헌 이홍재李洪載가 지은 행장에 따르면, 홍득일은 10세에 어머니 청주 한씨(1657~1696)가 돌아가시자 어른처럼 의젓하게 상을 치루었으며, 12세에 아버지 홍선(1662~1735)이 병이 나자 변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뽑아 효도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과거를 폐하고 학문에 힘써 소재疏齋 이이명李頤命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우암 송시열을 흠모하여 그 문하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경종조에는 그의 스승 이이명이 연루된 신임사화로 인해 김일경과 목호룡이 득세할 때 도봉서원과 봉암서원에 배향된 송시열을 축출하려 하자 이를 극력 거부하였다. 또한 실록을 살펴보면, 영조가 즉위하여 김일경과 목호룡을 제거한데 대해 이들 일당을 추가적으로 죄주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는 데 있어서 홍득일이 소두가 되어 활동하였다.

홍득일의 초배는 민사건의 딸이며 민후건의 종질녀인 여흥민씨인데 후손이 없었고, 후배는 고성 이씨 이철손의 딸이다. 홍득일은 1736년 50세의 일기로 졸하였는데, 56년 뒤인 1792년 사람들이 그의 충효를 관찰사에



1	2
3	4

- 1 신대리 목재 홍일섭 기적비와 상석
- 3 신대리 목재 홍일섭 묘앞에 있던 상석

- 2 신대리 목재 홍일섭 기적비
- 4 신대리 목재 홍일섭 기적비 안내판

게 알렸고, 이를 예조에 올렸으며, 예조에서도 선비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아마 이로 인하여 1794년(정조 18)에 김이소가 왕에게 아뢰어 사헌부 지평에 증직된 듯 하다. 그의 충효는 『국보보감國朝寶鑑』에 실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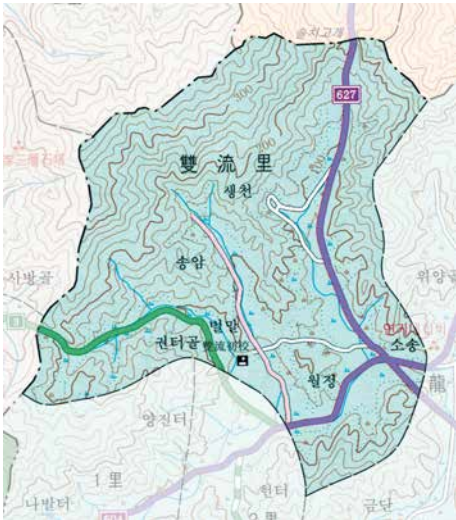
신대리 홍일섭 묘소의 비석과 기적비 ●●●

홍일섭 洪日燮(1878~1935)은 연서면 신대리 출신으로 호는 묵재 默齋이다. 1910년 한일합병의 국치를 당하자 공직을 사임하고 귀향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홍일섭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사숙을 설립하여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또한 공주, 충주, 천안 지역에 항일격문과 독립선언문을 배포하였고 1919년 3월 30일에는 42세의 나이로 조치원 장날을 이용하여 선두에서 대한독립 만세 시위를 지휘하다가 피검되었다.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1년 여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홍일섭 묘소는 연서면 신대리의 불당골과 강골 마을 사이의 사거리에서 고북리 방향으로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길가의 오른쪽으로 산자락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묘소를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여 1978년 건립된 홍일섭 기념비만 남아 있다. 비는 방형대좌위에 너비 63cm, 높이 173cm, 두께 37cm의 크기의 비신을 세우고, 옥개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묘역 왼편에는 기적비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서면 쌍류리



조사대상 강릉김씨, 김한정 정려, 김종철 정려

쌍류리(雙流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서면 송서리, 쌍류리, 월정리, 생천리, 송현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서면 쌍류리라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가 되었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물줄기가 마을을 감싸며 흘러 마을 아래에서 합하므로 쌍류리라 하였는데, 이 물줄기는 월하천과 합쳐진다.

조선후기의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삼면에 쌍류동리(雙流洞里)와 생천리(生泉里)가 보이는데 모두 연기현 치소로부터 20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쌍류동리의 편호는 25호, 인구는 남자 46명, 여자 54명이라고 하였으며, 생천리는 편호 18호, 인구는 남자 25명, 여자 23명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쌍류리는 평촌, 송암, 월정, 생천, 솔티라는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연서면에서 가장 크지만 한 개의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권텃골(송암)은 쌍류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와 바위가 많은데, 예전에 권씨가 살았다고 한다. 전언에 의하면, 송암의 뒷산, 즉 수디산에



쌍류리 마을 모습
중간 사진의 가운데
쌍류 초등학교가 보
인다.



쌍류리 마을 모습
上 쌍류 예술인 마을
로 최근에 형성된
곳이다.
下 현타마을

는 수많은 절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절들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천년고찰 비암사의 말사였다고 한다. 권텃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성당 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성당사가 있었다. 성당사는 『여지도서』에도 연기현으로부터 북 20리 솔치에 있으며 법당이 5칸이며 승려가 4명이 거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방리조에도 성당사聖堂寺가 있어서 관문으로부터 20리의 위치이며, 편호 4호, 남자 4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1824년 간행된 연기읍지에는 성당암이 연기현 북쪽 20리에 있으며, 송현 방사는 5칸이고 중이 4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방리조에는 북삼면 성당사리가 현에서 20리에 위치해 있으며 3호의 민가와 남자 6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권텃골 주변으로 기와편과 토기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월하리 연화사 법당 안에 있는 2구의 석불상[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보물 제649호), 연화사 칠존불비상(보물 제650호)]도 원래 쌍류리 권텃골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쌍류리에서 비암사로 넘어가는 고개 아래는 옛 지명이 사방동리인데, 현재는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릉김씨 비각이 있다. 『여지도서』 방리조에는 사방동리舍房洞리가 관문으로부터 10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편호 8호에 인구는 남자 18구, 여자 20구로 기록되어 있다. 성당사리와 사방동리 마을은 성당사가 폐사가 되면서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천은 벌말 북쪽 큰 산속에 있는 마을로 임진왜란 때 천여명의 백성들이 피난해 와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 해서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는 지명유래를 갖고 있다.

벌말(평촌)은 쌍류리 앞 벌판에 있는 마을로, 부근에서 강물이 서로 합쳐 지는가 하면 지형이 또한 행주형이란 명당이 자리하는데, 약 300년을 두고 강릉김씨들이 오랜 세월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많이 살고 있으며, 정려 2기가 남아 있다.

솔티[솔티. 송현는 솔티 고개(쌍류리에서 전동면 송성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소나무가 많았음) 밑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이곳에 송현원松峴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고북저수지를 지나 청라리와 쌍류리로 갈라지는 삼거리 오른쪽 배나무 밭 민가 근처에 송현역松峴驛이 있었다고 한다. 『연기지』에 ‘송현리에 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在松峴里今廢]’라고 하여 송현역의 존재와 간단한 위치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나, 지금은 배나무 밭으로 개간되어 원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는 관련자료들이 많지 않아 규모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전통시대부터 쌍류리는 교통의 요지로 조선시대 관리들의 통신기관이었던 송현역이 자리했었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공주와 천안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월정月亭(송재실)은 벌말 건너에 있는 마을로, 월정이란 정자와 송씨의 재실이 있다. 원래 은진송씨의 재실이 있는 곳이라 송재실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전판서 이승순李承純이 이 마을로 낙향한 후부터는 그의 호 월정을 따서 그대로 월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월정이란 정자가 있다. 이승순李承純(1841~?)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수경粹卿이며, 이조판서 이겸재李謙在의 아들이다. 1859년(철종 1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같은 해에 규장각에 들어갔고, 1861년 예문관검열, 1862년 규장각 직각을 지냈다. 고종조에는 1879년 성균관 대사성·이조참의 등을 거쳤다. 이 후 관제개혁까지 공조판서·형조판서·좌우참찬, 겸직으로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경연관經筵官을 역임하였다. 관제개혁 후에는 갑오개혁 때 내각의 부속자문기관으로 개편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거쳐 1898년 장례원경掌禮院卿, 1899년 궁내부특진관, 1901년 시종원경侍從院卿에 이르렀다. 1894년(고종 31)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 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승순李承純이 민영철閔泳喆·이유재李裕宰와 함께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다녀온 이 연행이 마지막 연행이다. 동학 농

민 운동과 청일 전쟁의 와중에 파견된 이들은 이듬해 5월에 귀국했는데, 그 사이 청일 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이 형식상 자주독립국이 되면서 연경 사행은 종결된 것이다.

쌍류리 강릉김씨 기은공파 ●●●

연서면 쌍류리에 거주하는 강릉김씨(江陵金氏)는 주로 이곡(梨谷) 김천익(金天益, 1350~1444)의 8세손이며, 모암(慕菴) 김덕숭(金德崇, 1582~1662)를 파조로 하는 기은공파가 살고 있다.

모암(慕菴) 김덕숭(金德崇, 1373~1448)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아들 인재(麟齋) 이종학(李種學)이 진천(鎭川) 적소(適所)에 있을 당시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를 지냈다. 그는 1444년(세종 26)에 효자로서 왕으로부터 직접 의복과 음식을 하사받았고, 이어 1444년(세종 26) 명정과 함께 이조참의에 증직되었으며, 이러한 효행사실이 삼강행실록에 실려 있다. 1568년(선조 1) 진천에 심곡서원(深谷書院)을 건립하여 배향되었는데, 1669년(현종 10)에 백원서원으로 사액을 받는 등 효행으로 이름난 가문이다.

이곡(梨谷) 김천익(金天益) 계열의 강릉김씨 모암공파(慕菴公派)는 진천(鎭川)에 세거해 오다가 장사랑(金林繼)에 이르러 충청도 노성(魯城)에 이거하여 4~5대를 살게 되었고, 기은(岐隱) 김오(金鰲, 1582~1662)에 이르러 세종시 지역으로 이거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 김오의 이 지역 입향 유래는 임진왜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김오의 어머니가 기계유씨(杞溪兪氏)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외향으로 임진왜란의 화를 피해 옮겨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기은(岐隱)은 ‘연기에 은거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강릉김씨 모암공파는 김오가 이 지역에 입향한 이후 지역의 저명 성씨들과 통혼하면서 사족적 기반을 다졌다. 주로 쌍류리 별말이 기은공파의

주된 분포지이다.

김언(金瑄(1681~?))은 문과에 급제하여 찰방을 지내는 등 세종지역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갔다고 한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에 의하면, 김언(金瑄)은 영조 9년(1733, 계축년)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 18위(28/51)로 급제했다. 1681년(숙종 7, 신유)생이며,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방목에 기록되어 있는 전력은 유학(幼學)이며, 거주지는 미상(未詳)이다. 가족사항은 아버지는 김덕추(金德秋), 할아버지는 김철(金澈), 증조부는 김옥장(金玉章), 외조부는 윤득후(尹得厚)이다. 그런데 급제 당시 그의 연령은 53세였다. 따라서 그의 벼슬은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찰방에 머문 것으로 여겨진다.

쌍류리에서 거주해온 강릉김씨 가운데 김종철(金宗喆(1755~1817))은 모암(慕庵) 김덕숭(金德崇)의 후손으로 효행이 뛰어나 여러 고을 사람들의 추천을 거친 소장을 관아에 바쳐 순조 조에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 받았으며, 현재 쌍류리에 그의 효자문이 있다.

김한정(金漢鼎(1753~?))은 부모의 병환에 효심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시묘살이 3년을 치루었고, 유럽에서는 그의 효행을 조정에 올려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김한정은 효행으로 1827년(순조 27)에 명정 받았고, 1862년(철종 13) 건립된 효자문이 현재 쌍류리 권터굴 마을에 있다. 김한정(1757~1804)이 태어난 곳은 연서면 청라리라고 한다.

쌍류리 효자 김한정 정려

연서면 쌍류리 송암마을 입구에 효자 김한정(金漢鼎) 정려가 있다. 김한정은 이곡 김천익의 16세손이고, 모암 김덕숭의 15세손이며, 기은 김오의 8세손이다.

김한정金漢鼎(1757~1804)의 자는 중삼重三, 호는 구곡龜谷으로 연서면 청라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김상문金尙文(1722~1789)은 1876년(고종 13)에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증직되었고, 어머니 유인孺人 강릉 유씨 유덕룡劉德龍의 딸(1726~1790)도 역시 같은 해에 숙부인淑夫人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동래 정씨 정단鄭端의 딸로 역시 김한정이 증직되던 해인 1876년에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김한정의 후손 김동렬金東烈씨가 소장한 교지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김한정의 아들 김경의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법에 따라 증직된 것이다.

김한정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는 바가 없으나, 그가 12세 되던 1768년에 작성된 ‘중중입의절목宗中立議節目’에 그가 문장門長으로 수결한 것을 보면, 일찍이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았으며, 문중 내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미숙한 글씨체로 미루어 보아 누군가 대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김한정이 12세 당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의 효행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대강의 사실을 살펴보면, 공이 약관일 당시 구토병이 걸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뒷산에 지초芝草를 심고 집앞의 영천에 생어生魚를 길러 봉양했다는 점이 탁월한 효행으로 알려져 있다.

명정을 받게 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연기지』에는 도의 유림들이 김한정의 효행을 조정에 고하여 1887년(고종 24)에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되고 명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교지教旨를 살펴보면, 위의 기록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 김한정은 아들인 김경희金卿羲(1794~1879)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자 법전法典에 따라 1876년(고종 13)에 이미 가선대부 호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증직 받고 있다. 따라서 명정은 증직을 받은 11년 후인 1887년(고종 24)에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기록이 있다. 정려 내부에는 5대손 김익래(金益來, 1894~1968)가 1922년 정려사실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비문에 의하면 김익래의 조부 송암(松岩) 김낙기(金洛起, 1832~1906)가 김한정의 효행사실을 현석(鉉席) 즉 삼공의 지위에 있는 정승들에게 알리고, 또한 임금의 행차시 어가(御駕)가 지나가는 길에서 이를 아뢰어 명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조부인 김낙기에게서 들었다고 적고 있다. 송암 김낙기는 1905년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을 발간하는데 정3품의 사무원으로 참여하는 등 중앙에서의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한정은 아들인 김경의에 의해 증직되고, 증손인 김낙기가 주동이 되어 명정을 받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명정 받은 직후에는 정려를 건립하지 못하다가 약 35년 뒤인 김한정의 5대손인 김익래에 이르러 비로소 건립된 것이다. 현재의 정려는 1922년에 건립된 것을 1983년에 개·보수한 것이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다. 정려 내부 중앙에는 비석과 명정현판이 있다. 비석은 김종철의 5대손 김익래가 1922년에 지은 것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하단폭 36cm, 상단폭 42cm, 두께 20cm의 호패형을 하고 있다. 비신 전면에는 효자 김한정의 정려라는 내용[孝子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金漢鼎之閭]이 음각되어 있다. 비석 위쪽 상단부에는 명정 현판이 걸려 있는데, 현판은 가로 184cm, 세로 38cm의 크기에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된 효자 김한정의 정려라는 내용[孝子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金漢鼎之門]을 기록하고, 작은 글씨로 1887년(고종 24)에 명정을 받았음을 기록하였다.

쌍류리 효자 김종철 정려 ●●●

연서면 쌍류리 초등학교의 뒤편 남동향사면 하단부에 효자 김종철 정려



1	2
	3

- 1 **김종철 정려** 정려의 모습과 안내판
- 2 **김종철 정려** '효자 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강릉김공 종철전'이라고 쓰여있다.
- 3 **김종철 정려** 보이는 오른쪽이 김종철 정려이고 왼쪽은 김진수와 칠원윤씨 여표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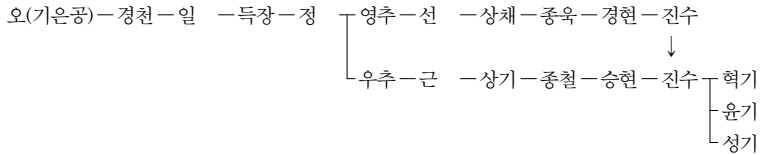
가 있다. 이 유적은 효자 김종철과 그의 손자 김진수, 손부 칠원윤씨, 증손 김성기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79년에 건립한 것이다.

효자 김종철(金宗喆)(1755~1817)은 강릉김씨로 연서면 기룡리에서 태어나 8세 때부터 모친의 병환을 수발하였고, 부친이 병석에 있을 때에는 대변을 맞보아 약을 지었고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키기도 하였다.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며, 정려의 내부에는 김진수와 부인 열부 칠원윤씨 여표비(閭表碑), 칠원윤씨 포창문, 김성기(金性起)의 포창문이 걸려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김종철은 명정을 받은 바 없고, 오로지 동몽교관에 증직된 것이다. 이는 임헌회가(1811~1876) 지은 김종철 전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김종철의 효행은 남달랐기에 조정에 아뢰면 즉시 명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서 이를 올리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연기지』와 『조선환여승람』에 의하면 김종철은 어려서부터 효행이 남달라 열읍의 장보章甫, 즉 유생들이 감영에 상소하여 순조 연간에 동몽교관에 증직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정려에는 명정현관이나 다른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1867년 12월 문경공 임헌회(任憲晦(1811~1876))가 지은 효자 김종철전을 통해 당시 주도했던 인물들을 추정할 수 있다.

임헌회는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여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연기의 송덕사崇德祠에 제향된 인물이다. 이러한 임헌회의 문하 중 한 사람이 김종철의 손자인 김진수(金振濂(1832~1877))이다. 그는 임헌회 문하인 서정순(徐政淳), 전우(田愚)와도 사귀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임헌회가 김진수의 할아버지인 김종철의 효행문을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연일 정씨 정재경(在嬰)이 김진수와 동문 수학한 처지에서 상소문을 작성하여 관에 올렸으나 이를 조정에 올리지 않았다는 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명정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임헌회가 김종철전을 지은 1867년에는 동몽교관에 증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조 연간에 증직 또는 명정에 대한 기록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며, 임헌회가 김종철전을 짓는 등 그를 위시한 유림의 지지와 중앙에

서 활동하던 강릉 김씨 김학초 등의 활동에 힘입어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증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인물은 김종철의 손자 김진수로 김진수는 생부 김경현의 3남으로 김승현에게 양자하였다. 김진수는 임헌회의 문하생으로 간재 전우, 야우 서정순 등과 교유하였으며, 문중의 일로 참판 김학초와 교류하는 등 꽤 넓은 활동범위를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로 연기지역의 남양 홍씨 집안과 산송이 벌어졌을 때 관찰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그의 부인 되는 칠원 윤씨는 김진수가 46세로 일찍 죽자 남은 3형제를 열심히 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연기지역 유림들의 포장을 받고 있다. 한편 3남 김성기 역시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임헌회의 손자 임감제 등과 동문 수학하였다. 그는 연기지역의 유림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고, 문중의 일에도 열심이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김종철을 위시하여 그의 손자 경의재 김진수, 김진수의 부인 칠원 윤씨, 김진수의 3남 김성기 등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79년에 건립된 것이다.

김종철(金宗喆)(1755~1817)은 강릉김씨로 자는 여명(汝明)이다. 기룡리에서 김상기(金尙基)(1724~1788)와 은진 송씨 송필후의 딸(1729~1767)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김종철이 8세 때부터도 모친 은진 송씨의 병환을 수발하였고, 마침내 김종철이 13세가 되던 1767년(영조 43)에 모친 송씨가 젊은 나이인 38세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부친이 병석에 있을 때에는 대변을 맛보아 약을 지었고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키기도 하였으나 부친은 안타깝게도 1788년(영조 12) 64세로 임종하였다. 뿐만 아니라 후에 울진현령을 지낸 장조카 김경현을 따라 진천으로 이사간 후에도 제삿날에는 100리가 넘는 종가집을 찾아 오는 등 조상을 위하는 효심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부인은 창녕성씨 성기연의 딸(1755~1779), 진주정씨 정사민의 딸(1760~1780), 순천박씨 박제서의 딸(1765~1831) 등이 있었는데, 김찬현, 김승

현 등 2남이 모두 순천 박씨의 소생이다. 김종철은 63세의 일기로 졸하였으며, 묘는 진천 문백면 탑선곡^{楊仙谷}에 있다.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 지붕의 양식을 하고 있다. 정려의 내부에는 1934년 임감제가 지은 김진수와 그의 부인인 열부 칠원윤씨 여표비^{閔表碑}가 1979년에 건립되었고, 1961년 연기향교에서 받은 칠원윤씨 포창문, 1954년 연기향교에서 받은 김성기^{金性起}의 포창문이 걸려 있다. 이 외에도 연기향교에서 받은 김진수의 손자인 김남영^{金南瑛}의 포창문 등이 걸려 있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던 김종철은 8살인 어린 나이부터 효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8세 때에 모친 송씨가 질병으로 눕게 되자 지성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삼경^{三更}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기도를 하였으며,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그 맛을 먼저 본 뒤에 드렸고 식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며 어머니를 모셨다고 한다.

10살 때에는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여 깊은 밤중에 종 한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좁고 험한 산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우뚝 버티고 있었다. 혼비백산한 종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이때 어린 효자가 말하기를 ‘약을 급히 구하러 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하고 종을 재촉하니 호랑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효성에 호랑이도 감탄했는지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그의 집 문앞까지 길을 인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병약했던 그의 어머니는 1767년(영조 43)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어머니를 잃은 그는 아침저녁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모친이 거처하던 곳만 보아도 울었고 손때가 묻은 물건만 대해도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병석에 있을 때에는 대변을 맛보아 가며 약을 다리고 병세가

위급하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소생시키기도 하였으나, 그의 부친은 1788년(정조 12)에 64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 꿈에 한 도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너의 집 뒤 나무 아래가 바로 명당이니 진좌^{辰坐}로 묘를 써라. 내가 너의 지성에 감동되어 가르쳐 주노라’라고 하였다. 가르쳐 준대로 청라리 마을 뒷편에 묘를 쓰자 지손이 크게 번성하여 김종철의 장조카 김경현^{金景賢}(1771~1843)은 무과에 오른 후에 울진군수로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또한 진천으로 이거한 뒤에도 100리길이 멀다 앓고 찾아와 조상의 제사 일을 거르는 일이 없었으며, 하루는 홍수로 길을 건널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너를 건네어 주겠다.’하고는 손을 잡고 건네준 다음 사라졌다고 한다. 그의 효심이 지극하여 귀신도 도와주었다고 전한다.

쌍전리雙錢里는 1914년에 연기군 북이면의 쌍괴리雙槐里와 전당골錢塘里를 병합하여 연기군 북면 쌍전리라 하였으며,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면 쌍전리가 되었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연서면 쌍전리가 되었다. 쌍괴雙槐라는 지명은 현 마을회관이 위치한 곳과 갯샘 부근에 있었던 두 그루의 큰 느티나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쌍괴리 혹은 큰창고개라고 불리는 것에 더욱 익숙하다.



조사대상 전주이씨, 문화류씨

창고개[창현, 쌍괴, 쌍괴리는 전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때 합단군을 무찌르는 군기 창고가 있었다고 하여 생긴 ‘창고개’가 원래 명칭이라고 한다. 마을 앞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정자처럼 서 있다. 이곳에는 400여년 간 전주이씨들이 살고 있다.

전당골[錢塘]은 전성말 서쪽 들가에 있는 마을로, 뒤에 전성이 있고 앞에 못이 있다. 마을 뒤에 있는 정좌산에서 고려와 원나라 장수가 몽골족 합단을 무찔러 섬멸하였다고 하여 이곳을 진성동이라 불렀었으며, 그 후 1400년경 남양홍씨와 강康, 유윤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산천이 수려한 것이

쌍전리 마을모습



쌍전리 마을모습 큰창고개길



쌍전리 마을모습 하얀집이 쌍전리 전 주이씨 후손이 살고있는 집이다.





쌍전리 마을모습



쌍전리 마을모습 쌍전리 문화류씨 후손이 살고있는 마을

전당과 흡사하다 하여 전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전당錢塘과 관련하여서는 홍발원洪發源이 지은 전당지錢塘誌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연기현의 서쪽 10리에 전당촌錢塘村이 있는데, 노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마을의 옛 이름이 유점동鑰店洞이라고 한다. 중국인이 우리 동방의 산수山水를 유람하러 왔는데, 이곳에 이르러 감탄하며 말하기를 “산천의 아름답기가 서호의 전당(중국 항주(杭州)에 있는 명승제과 더불어 서로 흡사恰似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후로 지금의 마을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산 위에 늘어서 있는 바위는 칠성암七星巖이라 하고 골짜기에는 옛 절의 유허가 있어 이것을 불당佛堂이라 한다. 계곡 위로 올라가면 독산이 있는데, 정상은 가히 수십 명이 앉을 만하다. 만력萬曆(1573~1619) 중에 홍발원의 고조부

인 직장공 홍탁洪鐸이 그 위에 정자를 세우고, 천계天啓(1621~1627) 초에 조부인 홍세영洪世英이 화초를 심어 그 경치가 한층 더 아름다워졌다. 늘어진 나뭇가지는 해안에 임한 듯 푸르고, 홍백紅白의 두견화는 꽃망울을 터뜨려 명승지로서의 형상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정언正言 김계환金啓煥의 시에

세상 사람들이 오월의 전당(吳越 鏡塘)이 뛰어나다고 하더니,
동방에도 또한 그것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네.
붉은 연꽃이 십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두견화(杜鵑花) 아래 흐르는 물결은 구경할 만 하구나.

라고 하였는데, 가히 실제 이곳의 진경眞景을 잘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쌍전리에서는 우리나라 7대 대첩중 하나인 고려시대의 연기대첩이 있었다. 연기대첩은 1290년 원나라에 반기를 든 몽골의 합단적이 고려로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연기현에서의 전투는 1291년(충렬왕 1) 5월 2일 쌍전리 정좌산 아래에 반란군 합단적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이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정좌산에 대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연기현 북쪽 1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쌍전리 일대의 야산에 해당한다. 1차 정좌산 전투를 마친 후 합단적은 금강가로 도망을 하였지만 금강에 이르러 차단로가 막혀 최후의 격전지로 금강가 근처의 원수산을 선택했다. 때문에 신증여지승람의 산천조에는 원수산을 연기전투의 격전지로 소개하고 있다. 1차전투는 쌍전리 정좌산에서, 2차전투는 원수산에서 이루어져 승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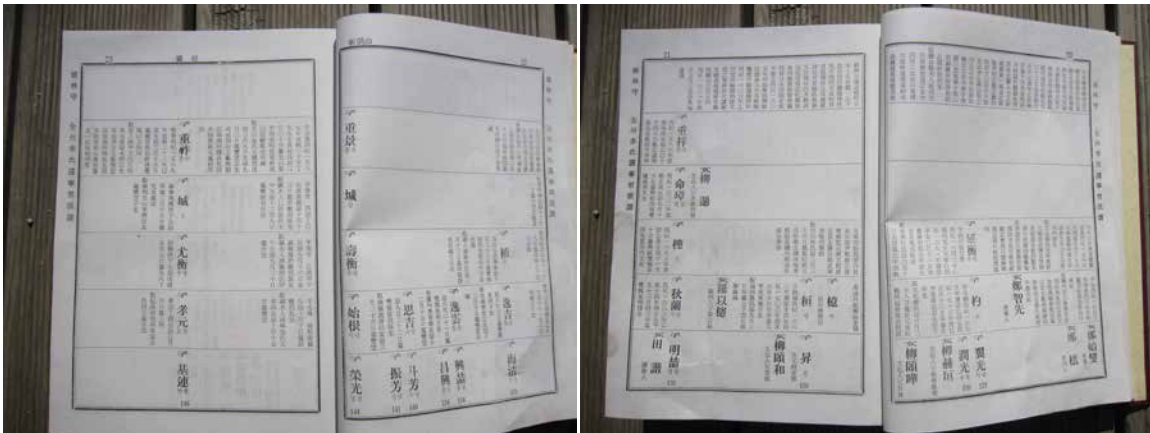
한편, 일제강점기에서 광복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사 작곡한 마을노래도 있다. 이 마을노래는 두레를 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함께 합창하여 불렀다고 하며, 본래는 2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마을 어르신은 1절만 기억하고 있었다.

함박산 앞뜰가에 있는 동네는
 대한의 인재창고 쌍전리로다
 천년전 역사가 된 느티나무는
 우리의 젊은이의 힘이 되고요
 희망에 불타는 개화 부락구
 일어나자 나가자 개화 부락구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 ●●●

연서면 쌍전리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근령군파謹寧君派는 이농李禮
 을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이중자李重棨(1586~1638)이다.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 입향조 이중자 기록이 보이는 부분이다.



1	2
3	4
	5

- 1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 입향조 이증자의 묘소
- 2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 입향조 이증자의 묘소
- 3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 입향조 이증자의 묘소
- 4 이증자묘소 앞 말무덤
- 5 쌍전리 전주이씨 근령군파의 후손

이증자의 아버지 이범李範(1535~1593)은 『경오식년문무과방목庚午式年文武科榜目』(하버드연칭도서관[K 2291.7 1748 (1750)])에 의하면, 1535년(중종 30)에 태어났으며, 자는 숙도叔度이다. 선조 3년(1570, 庚午)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 4위(12/29)

로 급제하였는데, 전력은 충의위忠義衛이고, 거주지는 경京으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의위행충좌위부호군忠義衛行忠佐衛副護軍 이원강李元綱이고, 이책李策이 동생으로 되어 있다. 이증자의 어머니는 첨사僉使를 지낸 원충량元忠良의 딸인 원주원씨原州元氏로 이증자는 차남이다.

이증자가 쌍전리에 입향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였다. 이증자의 아버지인 이범은 임진왜란 때 진도군수珍島郡守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으며, 이증자의 형 이중희李重禧는 왜군에게 인질로 잡혀갔다. 당시 7세였던 이증자는 왜군들이 왕족은 볼모로 모두 잡아간다는 소문에 난을 피하여 노비의 등에 업혀 서면 쌍류리로 은거하게 되었는데, 이후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평산신씨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은 후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증자의 부인은 평산신씨平山申氏(1585~1638)로 1남을 두었다. 이증자의 묘소는 묵담동默潭洞에 있으며 묘비가 서 있다.

쌍전리 문화류씨 시랑공 사인파 ●●●

쌍전리 문화류씨 사인파는 쌍전리 입향 전 청주 오창과 깊은 연고를 지니고 있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선대부터 의정부 사인을 지낸 유의관柳義寬까지 묘소가 청주군 남이면, 서강외 호암 등에 위치하며, 초장지로 처음 쌍전리에 묘소가 위치한 사람은 유의관의 아들 유희빈柳希濱이다. 유희빈은 족보에 의하면, 성균생원으로 충주목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배위는 장수황씨로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황희의 아들 황치신의 딸이다. 그런데 그의 묘소가 연기 북이면 군량골軍糧洞로 기록되어 있다. 의정부 사인을 지낸 유의관 이후 두드러진 벼슬을 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



- | | | |
|---|---|---|
| 3 | 1 | 1 쌍전리 문화류씨 족보 1765년 발행한 것이며 이전 족보들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
| | 2 | 2 쌍전리 문화류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족보 |
| | 3 | 3 쌍전리 문화류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족보 |
| | 4 | 4 쌍전리 문화류씨 족보 1689년 발행한 것으로 문중 최고본이며 324년 된 족보이다. |



1	2	1 쌍전리 문화류씨 문중 입향조 유의관의 묘
3		3 쌍전리 문화류씨 문중 입향조와 선조들의 묘역

2 쌍전리 문화류씨 문중 입향조와 선조들의 묘역

족보와 후손의 전언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쌍전리 문화류씨는 고려말 인물 유차달을 시조로 하며 11세 유당이 시랑공파의 파조이다. 15세 유의관의 초장지가 청주지역이고 그의 아들 유희빈부터 쌍전리에 묘소가 위치한 점을 근거로 유희빈을 쌍전리 입향조로 생각했으나, 후손은 유의관 할아버지가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여 살다가 사후 청주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문중에 전해진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향조를 유의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이 문중에는 구보들이 소장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689년 발행된 기사보(己巳譜)인데 12세손에서 20세손까지 기록되어 있고, 1765년 발행된

을유보에는 21세에서 24세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이전 족보들의 서문이 함께 실려 있어서 이 문중의 족보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서문에 의하면 1423년 계묘년에 처음 족보를 발행하였고, 1562년 임술년에 두 번째 족보를 발행하였으며, 1689년 기사년에 세 번째 족보를, 1742년 임술년에 네 번째 족보를 발행하고, 1765년 을유년에 다섯 번째 족보를 발행했다고 한다.

한편, 문중에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종손의 6대조 째에 돌림병이 돌아 공주로 피병하여 살다가 돌아오니 다른 문중에서 류씨 문중의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묘까지 만들고 내어주지 않아 소송까지 하였다고 한다. 관련 기록물들도 남아 있는데, 집안에 자료를 보관하기가 용이치 않아 인근의 연기향토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쌍전리에 있는 입향조를 포함한 문중 묘역에는 오래된 비석들이 있었는데, 글씨가 마모되어 판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묘소는 입향조와 입향조의 부친, 입향조의 아들 손자까지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1	
	2
3	4

- 1 와촌리 마을모습 성이북 정려에서 바라본 모습
- 2 와촌리노티나무
- 3 와촌리 마을 표석
- 4 와촌리 마을 표석



대실^[西溪]은 와촌1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대산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400여년 전 창녕성씨 가문의 정착지로, 성씨의 종가이기도 하면서 부자로 살았다고 하여 대실^{大室}이라고 부르고 서계라는 학자가 있었다. 대실의 중심마을은 중뜸이다. 이외에 대실 들어서기 전 큰 길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문앞, 대실에서 서쪽 가장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아랫말, 대실 동쪽 마을로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새뜸 등이 있다.

기와말은 와촌2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400여년전 대실의 부자집과 함께 기와집이 많았던 마을이라 하여 기와말이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기와말이 변해서 지와말 혹은 자말이라고도 부른다. 와촌2리를 원와촌이라 불렀으며, 기와말 중심마을을 중뜸이라고 한다.

은암^[隱岩(숨은바위)]은 와촌3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로 숨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숨은 바위라고 부른다. 마을 뒤에 험준한 산이 있고 또한 계곡이 있는데 바위의 한 부분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있어 바위가 전체를 숨기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은암이라 부르는데 그 아래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궁바골은 옛날 이 마을 뒷산에 큰 굴이 있었고 그 굴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밤이나 낮이나 마을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호랑이가 궁해서 우는 고을이라 하여 마을을 궁바골이라 불렀으며, 금바골, 금박골이라고도 부른다.

효방^[孝坊洞]은 기와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옷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부터 순흥안씨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곳은 효자 효부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다. 효방동이라 부르기 전에는 은암은 상은, 궁바골은 중은, 효방동은 하은이라 불렀다. 은암이 가장 큰 마을이었다.

반암터^[礮岩터, 반암, 증암]는 지아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장수바위가 있다. 조선초부터 흥덕장씨들이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장씨 집성촌이다.



와촌리 흥성장씨 족보

와촌리 흥성[흥덕]장씨 감사공파 ●●●

연서면 와촌 1리에 거주하는 흥성장씨(興城張氏, 興德張氏라고도 함)는 가선대부 행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장윤희張允和(1367~1422)를 파조로 하는 감사공파監事公派이다.

흥성장씨 와촌 1리의 입향조는 파조 장윤희의 아들인 장경지張敬止(1394~?)로 어머니는 함안윤씨咸安尹氏이며, 부인은 군기시 소감軍器寺小監 김우金禹의 딸인 강릉김씨江陵金氏이다. 장경지는 계공랑啓功郎 종부시 직장宗簿寺直長 겸 상서녹사尙書錄事를 지냈으며, 묘는 서면 와촌리 대실 앞 선산에 있다.

장경지가 변암터礮岩洞에 터를 잡아 정착한 이후, ‘장씨촌’이라 불릴 정도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으나, 흥성장씨가 어떠한 연유로 세종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장윤희의 부인이 강릉김씨이며, 서면 쌍류리에 강릉김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혼인 관계에 의한 입향으로 보고 있다.

후대의 흥성장씨 인물로는 통훈대부 예산현감을 지낸 장승중張承重이 알려져 있다.



1	3
2	

1 외촌리 흥성장씨 승중지묘 외촌리 입향조이다.
3 외촌리 흥성장씨 문중 효자효부비

2 외촌리 흥성장씨 승중의 묘비



1	2
	3

- 1 창녕성씨 문중 조사모습
- 2 창녕성씨 문중 조사모습 제보해 주신 후손의 모습
- 3 창녕성씨 문중 조사모습

와촌리 창녕성씨 등고공파●●●

연서면 와촌 2리의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성준득成准得을 파조로 하는 등고공파東阜公派가 거주하고 있다.

성준득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1369년(공민왕 18) 8월에 충부상서掾部尙書였던 그는 사신으로 북경北京에 가서 명나라의 성절聖節을 하례하고 다음해 5월에 돌아왔다. 이 때 그는 명나라 황제로부터 고려왕에게 보내는 관복冠服과 악기樂器, 배신陪臣의 관복, 홍무洪武 3년 대통력大統曆, 그리고 육경六經·사서四書·『통감通鑑』·『한서漢書』를 받아가지고 왔다. 악기로는 편종編鍾 16가架 전부, 편경編磬 16가 전부, 종가鍾架·경가磬架 전부, 생笙·소簫·금琴·슬瑟·배소排簫 하나씩이었다.



1	4
2	5
3	5

- 1 **창녕성씨 4세 제단비** 실전하여 찾을 수없는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셔두고 제를 올린다.
 2 **성종의 묘와 묘비** 창녕성씨 와촌리 입향조이다 3 **성종의 묘와 묘비**
 4 **성종의 옛 묘비** 5 **성종의 옛 묘비** 고비의 모습이 옛무덤임을 말해준다.



창녕성씨 와촌리 사당 감모재

한편, 충혜왕忠惠王의 딸로 원나라 노왕魯王에게 시집갔던 장녕공주長寧公主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일어나는 난리 속에서 북평에서 실종되자 공민왕이 상서尙書 성준득成准得을 명나라에 보내어 찾아줄 것을 중서성中書省에 요청하였고, 이 때 명태조明太祖는 환자宦者들을 보내어 북경北京에서 찾아 1370년(공민왕 19) 고려로 돌려보냈는데, 바로 이때였다.

와촌리 입향조는 성준득의 4세손으로 통훈대부 행 인동현감通訓大夫 行 仁同縣監을 지낸 성중의成仲義(1443~?)이다. 그의 아버지는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성효수成孝修이다.

와촌리의 창녕성씨는 원래 경기도 파주坡州지역에 세거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연기지역에 입향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후손들은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성

중의가 인동현감을 지냈고, 그의 아들 성자윤이 1465년(세조 11)에 성환도찰방(成歡道察訪)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입향조 성중의의 처는 창녕성씨보다 먼저 와촌리에 거주하던 순흥안씨(順興安氏)이다. 이후에도 창녕성씨가 순흥안씨와 혼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처가와와의 연고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녕성씨가 와촌 2리에 이거한 후, 온 마을이 기와집으로 들어서게 되자 주위에서는 이곳을 와리, 와촌리라 부르게 되었으며, 대실(大室)이라는 마을은 성씨가문의 정착지로 성씨의 종가이며 부자로 살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창녕성씨 동고공과는 성중의의 4세손인 통덕랑(通德郎) 성여옥(成汝玉)의 후손들이 금남면 달전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성중의의 묘와 묘갈은 와촌리 화동(和洞)에 있으며, 창녕성씨 동고공과의 재실인 강모재(講慕齋)가 있다. 후손으로는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토벌하여 3등공신에 녹훈된 성인산(成仁山), 인조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비인현감(庇仁縣監)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증직 받은 성영(成英), 1891년(고종 28)에 효행으로 명정 받은 성이복(成爾復) 등이 있다.

와촌리 순흥안씨 참판공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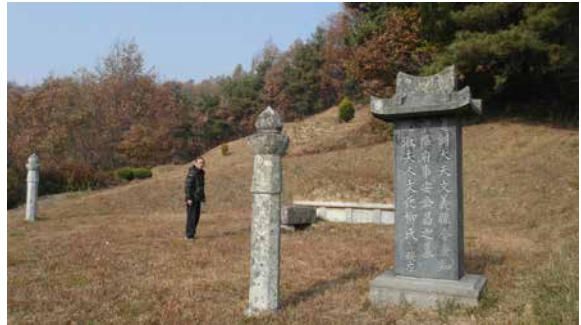
연서면 와촌 3리의 순흥안씨(順興安氏)는 안종신(安從信)을 파조로 하는 참판공파(參判公派)이다.

와촌 3리의 순흥안씨 입향조는 안창(安昌)(1494~1563)으로 자는 희경(熙敬), 호는 수줄재(守拙齋)이다. 안창의 아버지는 안계장(安繼長)(1454~1506)이며, 어머니는 청주한씨, 부인은 문화유씨이다. 안창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문의현령(文義縣令)을 지냈으며,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증직 받았다. 그



1	2
	3
4	5

- 1 순흥안씨 안창의 묘소 순흥안씨 와촌리 입향조이다.
- 2 순흥안씨 안창의 묘소
- 3 순흥안씨 안창의 묘소
- 4 순흥안씨 안창의 묘비 앞면
- 5 순흥안씨 안창의 묘비 뒷면





1	
2	3
4	5

- 1 순흥안씨 연기세사단 입향조의 부친인 안계장의 단도 보인다.
- 2 순흥안씨 연기추모단
- 3 순흥안씨 연기추모단
- 4 순흥안씨 연기추모단
- 5 순흥안씨 연기추모단 12세부터 21세까지의 조상의 위패이다.



	1
2	3
4	5
6	7

- 1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흥화문
- 2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조상의 내력을 적은 계보 같은 것이었는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 3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 4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계사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 5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 6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6 바깥 중에도 잠시 모여주신 후손들의 모습
- 7 순흥안씨 재실 송인재와 제향의식 사당 내부에 차려진 제물



의 묘는 원래 연서면 국촌리 함박산에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32사단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1954년에 연서면 와촌리로 이장하였다.

순흥안씨 참판공파가 거주하는 와촌 3리의 효동 또는 효방동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약 500년 전 순흥안씨들이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배양리에서 이거하여 정착한 곳이다. 그러나 연서면 와촌리에 순흥안씨가 어떠한 이유로 정착하게 되었는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당시 순흥안씨 일가가 사화를 피해 지방 곳곳으로 낙향하였는데, 이곳과의 인연은 안창이 문의현령을 지내면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와촌리 효부 유언하 처 부안임씨 정려

연서면 와촌리 은암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정려가 위치한다.



와촌리
부안임씨
정려

이 유적은 유언하(俞彦夏(1749~1819)의 처 부안임씨(扶安林氏)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87년(고종 24)에 명정을 받아, 5대손 유진철(俞鎭喆)이 주동이 되어 1924년에 비로소 건립되었다.

은암(隱岩)의 기계 유씨는 유언하의 12대조인 사직공 유선(俞善)이 서면 성제리에 입향하면서 연기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유선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입향동기나 과정을 알 수 없지만 남양 홍씨의 입향유래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강진에 유배된 후 연기지역으로 낙향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려가 서 있는 은암에는 유언하의 조부인 유명관(俞明寬)에 이르러 이주하게 되었다.

연기지역 향안의 좌목을 살펴 보면, 1645년에 유언하의 6대조 첩지 유덕일(俞德一(1565~)), 1697년에 고조 유명하(俞夏炳(1655년생))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씨 집안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기지역에서 매우 활발한 사족 활동을 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안임씨 역시 연기지역의 매우 번성한 성씨로 유언하의 처인 부안임씨의 조부인 임두칠 역시 향안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유언하의 아버지는 유성중(俞聖重(1716~1790))이고 어머니는 참판에 증직된 성주 배씨(裴氏) 배우당(裴佑唐)의 딸이다. 그런데 유언하의 어머니인 성주 배씨는 1891년 효자로 명정을 받은 성이복(成爾復)의 양모인 성주배씨와 자매관계로, 이는 당시 복잡한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향촌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효부정려와 효자정려의 명정과정에서 연기지역의 대표적인 성씨인 기계 유씨, 창녕 성씨, 부안임씨로 이어지는 관계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효부 부안임씨의 포장과정에는 이러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혼인관계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배우당 { 유성중 - 유언하 처 부안임씨(효부정려)
 성규장 - 성이복(효자정려)

이 정려는 1887년에 명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건립하지 못하다가 5대손 유진철(兪鎭喆)이 주동이 되어 1924년에 비로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효부 부안임씨(?~?)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두칠(林斗七)의 손녀이자, 임시윤(林時潤)의 딸로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나 19살에 유언하(1749~1819)에게 출가하였다. 부안임씨는 육순(六旬)에 이른 시어머니(성주 배씨)가 3년간이나 학질로 고생하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여 병을 낫게 하였으며, 시어머니의 말년에 병석에 누워있는 9년 동안 뒷산의 높은 봉우리에 제단을 쌓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효행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호서읍지』와 『연기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일화 및 전설 참조), 묘소는 서면 국촌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안임씨는 시부모 공양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였으며, 사람 대하기를 예로써 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남달리 정다워 향리에서 널리 이름이 퍼졌다고 한다. 육순인 시어머니 성주배씨가 학질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으며 자리에 눕게 되자 시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약재를 구해 드렸고 명의를 찾아 수백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라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때 사람 고기가 명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임씨부인은 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불에 구워 드렸더니 그토록 오랫동안 대소변까지 받아내던 시어머니가 완쾌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효부임씨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칭송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안임씨는 시어머니가 병석에 계신 9년 동안 한결같이 뒷산의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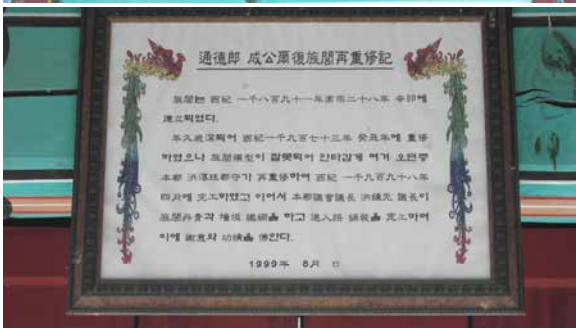
은 봉우리에 제단을 쌓고 9년 동안을 한결같이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 때 산중을 오르내리는 길은 호랑이가 시종 보호하고 산봉우리의 제단은 하늘을 나는 매가 보호를 하여 항상 제단의 제물에는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같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우시고 사나운 짐승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임씨부인이 몸소 효행으로 가르쳐 주었다. 이로 인하여 향리 사람들이 임씨부인이 기도하던 봉우리를 ‘임씨기도봉’이라 불렀다 한다.

정려는 1983년 군의 보조를 받아 개보수 한 것으로 정·측면 1칸으로 겹쳐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다. 정려의 내부에는 명정현판과 정려기가 있다. 가로 80cm, 세로 44cm 크기의 명정현판에는 ‘효부 유언하의 처 부안임씨의 정려[孝婦 學生杞溪俞彦夏妻 扶安林氏之閭]라는 내용과 작은 글씨로 1887년(고종 24)에 명정[光緒十三年 聖上卽祚二十四年 丁亥閏四月初三日 命旌] 받았음을 기록하였다. 가로 103cm, 세로 46cm 크기의 정려기는 후손 유진철俞鎭喆의 부탁으로 김영한金甯漢이 1924년에 지은 것으로 파손된 것을 최근에 다시 각서한 것이다.

와촌리 효자 성이복 정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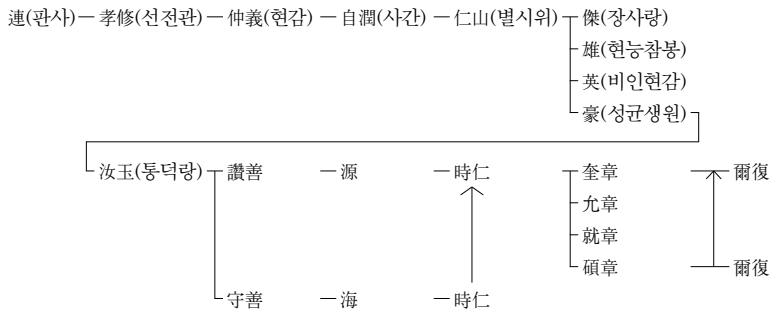
연서면 와촌리瓦村里 기와말에서 마을안쪽으로 300m가량 들어가면 나즈막한 구릉의 배나무 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성이복成爾復(1713~1776)의 효행을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1891년(고종 28)에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1890년(고종 27)에 연기의 여러 선비들이 성이복을 새와 짐승[鳥獸]도 감동시킨 효자라고 천거하여 1891년(고종 28) 8월에 명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성이복의 현손인 성재기成載琪(1825~?)가 여러 친족들을 독려해 다음 해인 1892년에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다.



1	2
3	4
5	6

- 1 와촌리 성이복 정려 마을 구릉에 세워진 정려각의 모습
- 2 와촌리 성이복 정려 안내관
- 3 와촌리 성이복 정려 정려기
- 4 와촌리 성이복 정려 명정현관
- 5 와촌리 성이복 정려 정려 재 증수기
- 6 와촌리 성이복 정려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정려각

공주출신으로 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낸 이대직李大植이 지은 정려기에 의하면 1890년(고종 27)에 연기의 여러 선비들이 성이복을 조수鳥獸도 감동시킨 효자라 칭찬하면서 청주출신의 충청도 관찰사인 송세헌宋世憲에게 아뢰었고, 관찰사 송세헌이 왕에게 상소하여 이듬해인 1891년(고종 28) 8월에 명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성이복의 현손인 성재기成載琪(1825~)가 여러 친족들을 독려해 다음 해인 1892년에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다.



와촌리 성이복의 가문은 원래 경기도 과주坡州지역에 세거하였으나 조선 초에 연기지역으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언제 왜 입향하게 되었는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후손들은 성이복의 10대조 성효수成孝修나 9대조 성중의成仲義가 입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효수를 입향조로 보는 입장은 성효수의 묘가 현재는 실전되었으나 남양 홍씨 종산宗山이 위치한 서면 화동禾洞의 논에 효수의 묘비가 묻혀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점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며, 한편 성중의를 입향조로 보는 입장은 1968년 송재성이 찬한 사간공 성자윤成自潤의 묘표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윤의 처가 순흥 안씨라는 점 때문이다. 순흥 안씨는 이미 연기지역에 거주하던 성씨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순흥 안씨와의 혼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한편 창녕 성씨가 왜 입향하게 되었는가는 그 후손들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중의가 인동현감을 지냈고, 그의 아들 성자윤이 1465년(세조 11)에 성환도찰방(成歡道 察訪)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창녕 성씨는 연기지역에 입향한 이래 성종조에 야인토벌에 공을 세워 공신녹권을 받은 별시위공 성인산(成仁山)을 비롯하여 비교적 단탄한 관력을 쌓아가는 한편 지역의 주요 성씨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 지역의 유력한 사족가문으로 성장해 간다. 아마 성이복의 효자정려도 이러한 사족가문으로서의 지위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이복이 명정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정려기의 기록대로 지역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도백(道伯)에게 계啓를 올리고, 이를 다시 왕에게 알려 명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주동이 된 인물은 현손으로 감역(監役)을 지낸 성재기(成載琪(1825~?))이다. 집안에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성재기는 성품이 매우 활달하고 활동적이어서 서울의 성균관에도 출입이 잦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주도해 나간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유림, 연기향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유림의 지지와 당시 관찰사인 청주출신의 송세헌 등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성이복(成爾復(1713~1776))의 지는 양숙(陽叔)이며, 본관은 창녕으로 생부는 성석장(成碩章(1689~1743))이며, 생모는 전의이씨 이태한(李泰漢)의 딸이다. 그는 이들 사이의 4남 중 장남으로 와촌리에서 출생하였으나 백부 성규장(成奎章(1679~1743))에게 출계(出系)하였다. 성규장은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첫 부인은 숙부인 순흥 안씨 안성(安誠)의 딸이었으나 일찍 죽고, 둘째 부인은 숙부인 성주 배씨 증참판 배우당(裴佑唐)의 딸(1713년생)이다. 둘째 부인 성주 배씨는 양자인 성이복과 동갑으로 은암마을의 효부 안임씨의 시어머니와 자매간이기도 하다. 즉 부안임씨의 남편인 유언하

俞彦夏와 성이복成爾復은 이종사촌간이다.

성이복의 관력은 통덕랑으로 되어 있으나, 1891년 명정을 받을 당시도 학생으로 되어 있다. 그는 연기향안에 유학으로 수록된 바와 같이 학행에 힘썼던 선비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문에 전념하였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학문을 익히고 실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효행은 양부인 성규장에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의 생부 성석장成碩章이 1743년 7월 22일에, 양부 성규장成奎章이 1743년 7월 15일에 7일 차이로 죽은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떠했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짐작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평상시 효심이 가득했던 그의 행적에 대해 주위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체적인 효행사실은 그의 양부 성규장이 병에 들자 집 뒤에 단을 쌓고, 기도하였으며, 상을 당하자 3년간의 시묘 살이를 거르지 않고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성이복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는 입장이 못되었으나 스스로 주경야독하는 가운데 학문을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효행 또한 지극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하루는 아버지(양부인 성규장)가 심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침식을 잃다시피 하며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집 뒤뜰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가 빌고 있는 단 위에서 천지가 떠나갈 듯 울어댔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하여 빌면서 앉아 있었다. 이를 본 호랑이는 성이복의 정성에 크게 감동하여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1743년) 그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여 3년 동안 시묘하면서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이복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산 속을 헤매다 탕건이

벗겨졌다. 그는 탕건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계속 통곡을 하며 집에 다다랐다. 무심한 날짐승까지도 성이복의 효심과 애통함에 감동이 되었는지 까마귀 한 마리가 떨어뜨린 탕건을 주워 그의 문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어놓고 날아갔다고 한다.

정려는 1973년 중수된 것으로 정·측면 1칸에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화려하게 올렸다. 이 정려는 원래 1891년(고종 28)에 명정을 받고 명년인 1892년에 문중에서 건립하였다. 정려의 내부에는 이대직李大植이 지은 가로 84cm, 세로 36cm 크기의 정려기와 가로 90cm, 세로 43cm 크기의 명정현판이 있다. 명정현판에는 효자 성이복의 정려[孝子學生昌寧成爾復之閭]라는 내용과 작은 글씨로 1891년(고종 28)에 명정받고 1973년에 중수한 사실[崇貞紀元後五辛卯八月 日命旌 檀紀四千三百六年癸丑三月 日 重修]을 기록하였다.

연서면 용암리



조사대상 속인이씨 묘소

용암리龍岩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서면 용암리와 자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서면 용암리가 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용암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삼면 방리조에 용암리龍巖里가 관문으로부터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32호, 인구는 남자 47명, 여자 68명이고, 자룡산리自龍山里도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20리이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가 34호, 인구는 남자 57명, 여자 52명이라고 수록되어 있다.

용암[용바위]의 지명유래는 서쪽에 위치한 쌍류리와 경계의 산 8부능선[앞산]에 있는 바위에서 비롯된다. 그 바위 안쪽 깊

숙이 큰 구멍이 뚫려 있어 그 곳에 용이 살다가 승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용이 살던 바위를 용바위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로 용암龍巖이 되었다. 뒷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흐른다.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마을은 더욱 번창했었다고 한다.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앞 마을



용암리 검단마을



용암점 용암리 회관 주변에 있는 정자이다



민락점 용암저수지 경치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용암리에는 세종시의 명물로 1983년에 생긴 고복저수지가 있다.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저수지 가운데에 위양골 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수지가 생기면서 주위에 마을이 다시 생겼다. 위양골[위양동, 역말]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에 용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위양역[渭陽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이 있어서 역졸들의 왕래가 많았으며, 그래서 역말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마을이 남향촌으로 되어 있어서 위양동이라고 했다.

현재 마을에 이와 같은 역원과 관련된 지명이 전하고 있으나, 역원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 등의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전의나 공주에서 조치원이나 천안쪽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용암동은 위양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 금당산에 설산이 있고, 마을 뒤에 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용암이라 부른다. 용바위는 용굴이 있는 바위로, 위양골 서쪽에 있는 굴인 용굴[龍窟]은 바위에 굴이 뚫렸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전에 용이 나왔다 하여 큰 기뻐움이 있으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용암동은 예전에 한양에서 호남에 이르는 길목의 역촌이었고 처음 김씨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위지울[渭岫]은 위양골 위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한다. 뒤죽골은 위줄 뒤에 있는 마을이다. 검단은 용암 서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의 마을 이름이 금당이었다고 하며, 서민층의 거주지라 해서 검단[黔丹], 혹은 검단[儉丹]이라 부르게 되었다. 안골은 위양골 서쪽골을 아늑하다 해서 안골이라고 한다. 안산은 새로 생긴 용암쪽에서 보았을 때 산 안쪽이라 하여 안산이라 하며, 안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산이라고도 한다. 생천은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온 1000여명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용암리 숙인이씨 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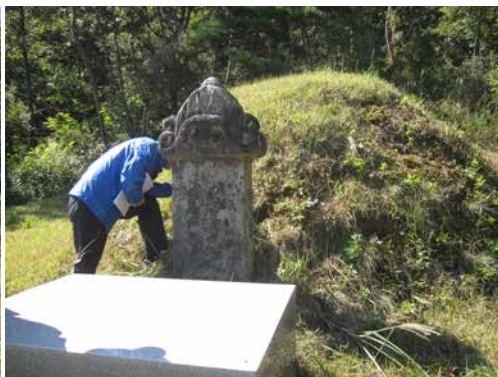
연서면 용암저수지(고북저수지)의 저수지 상류 지역에 있는 용암리 위줄마을의 민가 뒤 동향사면에 위치한다.

양녕대군 이제李禔의 딸인 현주縣主 이씨李氏(?~1509)의 묘이다. 숙인이씨는 양녕대군의 서11녀로 부안임씨 임중林重(林蘭秀의 증손)에게 출가하였다. 임중에 관한 기사는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등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세조 10년(1464) 원각사圓覺寺를 지을 때 선공 주부線工注簿 임중林重을 충청도忠淸道에 보내어 벌목伐木해 왔으며, 세조 12년(1466) 충청도 점마 별감忠淸道點馬別監으로 활동하였고, 예종 즉위년(1469)에는 행 도사行都事, 낭청郎廳 등으로 활동하였다. 성종 8년(1477)에는 대창大倉大倉과 공주公主의 집을 영건營建하기 위해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임중林重을 충청도에 보내서 재목材木을 벌채하게 하였으며, 또 청풍군淸風郡의 석류황石硫黃을 채취採取하여 올리게 하였다. 이때 임중은 충청도 경차관忠淸道 敬差官으로 청풍군淸風郡에서 생산生産된 석류황石硫黃 3백 근斤을 캐서 바쳤다.

임중은 성종 15년(1484)에 수리 도감 낭청修理都監郎廳으로 공역군公役軍을 빙자하여 많은 재목材木을 모아서 사삿집私畝을 영건하였다고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며, 감림 자도監臨自盜(돈과 곡식 등 국가재산錢穀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 죄)라는 장오贓汚의 죄로 7년간에 걸쳐 관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복시 부정司僕寺副正, 전연사 별좌典涓司別坐 등에 제수되었으나, 끊임없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직책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 21년(1490)에 임중의 아들인 충순위忠順衛 임유중林有琮이 “신의 아버지 임중林重은 장오贓汚罪를 범한 것이 아닌데도 간원諫院에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신의 아버지를 탐오하다고 지목하고, 신의 아버지가 사산 감역四山監役으로 있으면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신의 아버지는 벼슬이 감역이 아니라 수리 도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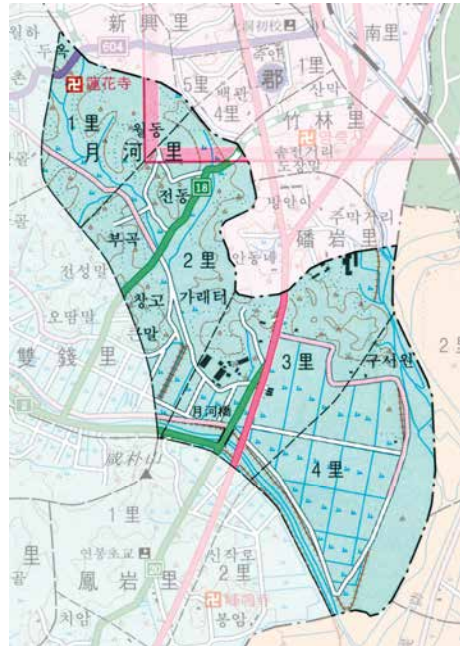
- 1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 1
- 2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 2
- 3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 3 표비 뒷면의 글씨
- 4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 4
- 5 용암리 숙인이씨의 묘소 5

감 낭청修理都監郎廳으로 조성造成하는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郎廳 및 감역관監役官들이 으레 벌목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소나무 가지는 골짜기에 채워 두게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가져 갑니다. 마침 신의 집 종 역시 남은 나뭇가지를 주워 왔습니다. 그 소나무 가지를 주워 온 것이 과연 모두 탐오죄貪汚罪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매한 일 때문에 더러운 이름을 얻게 되니, 그욕이 통분한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고, 이후 조정 재상들의 논의를 거쳐 7년간의 금고가 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정논의를 살펴보면, 임종의 행정능력이 탁월하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숙인이씨 묘의 정면에는 묘비와 상석, 장명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과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석주와 장명등은 후대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비는 1509년에 세워진 것으로 조선 초기 양식이며, 규모는 전체 높이 129cm, 두께 19cm, 너비 47cm이다. 묘가 어떠한 연유로 용암리에 자리잡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월하리月下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북이면 월계리, 월하리月下里, 전동리, 부곡리, 신향리와 북일면의 번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월하리月河里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면에 편입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월하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이면에 월하동리月洞里가 관문으로부터 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가 90호, 인구는 남자 153명, 여자 130명으로 수록되어 있고, 북일면의 번암리礮巖里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0리이고,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5호, 인구는 남자 3명, 여자 9명이라고 하였다. 역사자료를 통해 본 월하리의 한자표기는 ‘月河’와 ‘月下’가 뒤섞여 있다. 17세기에 신독재 김집이 찬한 민호의 묘갈명에서 연기현燕岐縣 북쪽의 월하방月河坊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月河’가 먼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월하리는 현재 연서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법정



조사대상 여흥민씨, 한양조씨, 순천박씨, 효자 민후건 정려, 민후건 묘소와 묘비

월하리 마을사진
민후건 정려가 있는 마을



월하리 마을사진
한양조씨 후손들이
살고있는 마을



월하리 마을사진



리로 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월하1리의 중심마을은 뜰옥골[뜰옥]이다. 마을유래는 오씨가 정착하여 그 문중 출신 학자 중 호가 두옥[두옥]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 두옥동의 중앙에 연안이씨 묘가 있어 그 묘 아래에 마을을 이루면 부자로 살수 있다는 뜻에서 옥이 말로 담을 만큼 부유해진다는 풍수적 의미도 있다고 한다. ‘두옥’의 발음이 ‘뜸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을 앞의 논에 뜰 부기 울음소리가 구성져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월동은 조선후기에 민후건이 한양을 떠나 초야에 묻히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고 풍류를 벗삼아 살았다 하여 세월 좋은 마을이란 뜻에서 월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민후건의 호가 월하이다.

전동[새터말, 작은창고개]은 창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로 쌍전리의 전당 동쪽이 된다. 조선중기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공주로 내려가던 중 이 사실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주 금강까지 가서 왕을 영접하였는데, 이에 감동한 인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예전[禮典]에 바른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의 마을을 전동이라 부를 수 있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작은창고개는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과의 항전 중 식량창고를 지었던 곳이란 전설도 있다.

부처골[富谷, 부처곡]은 월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부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운다. 근 200여년간 한양조씨가 많이 사는 마을이다. 부곡사 절터라고 알려진 곳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가래터는 지형이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던 가래의 형상과 똑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마을을 가리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가리는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 싸리대로 엮어 만드는 것으로 지형이 골짜기 안에 자리를 잡아 아늑했기에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창거리는 가래터 앞의 큰길로 전에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창거리 앞에 있는 다리가 창거리다리[월하교]로 월하리에서 봉암리로 가는 길이다. 한편,

청거리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강독을 쌓기 전까지는 강경포구에서 들어온 배가 여러 가지 수산물을 지금의 조치원 장례식장이 있는 곳까지 싣고 들어 왔으며, 조치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곳에 장이 섰다. 많은 중국인(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듯 하며 1970년대 초까지 청인들의 묘가 있었다. 지금의 마을 밖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곳을 청거리라고 부르며 일부 어른들은 주막거리라고도 부른다.

월계(月溪)구서원은 월하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시내가 흐르며, 전에 서원이 있었다. 예전에는 장이 서는 청거리 시장이었는데 조치원 시장이 번성함에 따라 자연 시장은 없어졌다.

베루뱅이(벼루봉, 모롱)에는 월계 동쪽 냇가에 있는 모롱이로 벼루에 물을 붓듯이 한해는 물이 있고 한해는 물이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돌아간다는 뜻도 있는데 독 쌓기 전에는 물이 돌았던 자리였다고도 전해진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소금배가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전설도 있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조치원 깊숙이까지 배가 오갔다는 전설과 죽림리에 나무가 있었다는 전설 등 이 일대에서는 금강을 통해 내륙으로 물자를 전하는 선박이 드나들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하리 여흥민씨 ●●●

여흥민씨는 원래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세거하였으나 민후건(閔後僊(1500년대 후반) 대에 이르러 세종시 지역에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독재 김집이 쓴 민후건의 아버지 민호(閔浩(1550~1594)의 묘갈명에 의하면, 민호가 임진왜란 중에 45세의 나이로 피난지인 정주(定州) 땅에서 죽었는데, 당사가 어수선한 시대여서 1603년에야 비로소 전의(全義)로 귀장(歸葬)했다가, 또 자리가 좋지 않아 다시 1632년에 연기현(燕岐縣) 북쪽의 월하방(月河坊)에 임좌(壬坐)로

된 둔덕에다 이장했으며, 1683년에 와서 맏아들인 공조정랑 민후건이 정사종훈(靖社從勳)에 참여했던 관계로 예에 따라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17세기 초에 이미 월하방이란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흥민씨의 월하리 입향조는 민후건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언제 왜 이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민후건의 어머니 연안이씨(1550~1620)의 가문은 공주, 천안, 연기 등에 세거하고 있었으므로, 월하리에 외가의 기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민후건의 어머니 연안이씨(延安李氏)는 감찰 이두(李岬)의 딸이자 증 영의정 행 동지중추부사 이순장(李順長)의 손녀이다. 19세 때 동년생인 민호에게 시집왔는데,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었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했으며, 민호보다 27년 뒤인 1620년에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나 민호의 묘에다 부장하였다. 민호의 관작에 따라 숙부인(淑夫人)에 추봉되었다.

또한 민후건의 누이가 청주한씨 참봉 한후민(韓後敏)에게 출가하였고, 민후건의 처 역시 청주한씨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향을 따라 입향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민후건이 청주한씨 한충을 제향하는 서원인 봉암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봉암서원청액소를 올릴 때 유생들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데에서도 청주한씨가와의 깊은 인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마방목(『만력34년 11월초 6일 생진방목(萬曆三十四年十一月初六日生進榜目)』(하버드연칭도서관, TK 2291.7 1746 (1606)))에 의하면, 민후건은 1571년(선조 4)에 태어나 36세인 1606년(선조 39)의 식년시에서 1등 3위(100명의 입격자 가운데 3등)라는 좋은 성적으로 진사가 되었으며, 당시 그의 거주지는 청주(淸州)였다. 민후건의 전력은 유학(幼學)이고, 아버지 민호는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역이 학생으로 수록되어 있다. 안향으로는 동생 민시건(閔時堯)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사마방목 기록에서 민후건이 진사에 입격할 당시 그의 거주지가 청주로 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민후건의 이 마을 입향

은 1606년(선조 39)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효자 민후건 정려가 있는 월동은 민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민씨들이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이기 때문이다. 월동에는 민씨의 오래된 종가가 있었는데 고풍스러운 기와집이었고 주위에는 가시 많은 탕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월하리 한양조씨 병참공파 ●●●

연서면 월하 2리 한양조씨 병참공파의 입향조는 조일환(趙日煥)으로 자는 재구이다. 의관을 지냈으며 부인은 김해김씨와 경주설씨다.



1	2
3	4

1 한양조씨 병참공파 월하리 입향조 묘소
3 한양조씨 병참공파 월하리 묘역 2

2 한양조씨 병참공파 월하리 묘역 1
4 한양조씨 병참공파 족보

경상도 영주와 봉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던 한양조씨는 병참공의 11세손 조윤의 묘가 봉화에 있었으나 실전했다고 하며, 12세손 조극이 공주 제천리로 이주하여 살았고, 조극의 5세손 조일환이 200여년 전 월하리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조일환이 월하리로 오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공주 제천과 연기 월하리는 30여리 떨어진 곳으로 가까운 거리이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양조씨는 조일환의 후손이고 조일환의 형 조길환의 후손은 장군면 봉안리에 일부가 살고 있다, 입향조 조일환의 묘는 초장지인 월하리 보탕산 아래에 있으며 재실이 있다. 석물은 오래되지 않은 상석뿐이다. 후손들은 입향조의 묘소를 조만간 천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종시 전동면 송정리에 마련한 종산에 조일환 후손들의 묘는 이미 이장한 상태라고 한다.

월하리 순천박씨 판서공파 ●●●

연서면 월하리 순천박씨(順天朴氏) 판서공파(判書公派)의 입향조는 박해문(朴海文, 1800년대)으로 박녹현(朴祿鉉)의 아들이다.

순천박씨의 서면 월하리 입향에 대한 내력은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박해문의 아버지와 숙부가 조선말에 과거 응시를 위해 상경하던 중 장질부사로 객사하자, 현재의 천안 목천에 있던 모든 재산과 종산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족보만 주어진 채 쫓겨나 12세에 고아가 되었다. 그러다 지금의 월하리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해문은 연화사(蓮花寺)를 창건하고 부인인 홍문섭과 함께 조선말부터 해방전후까지 많은 신도와 고락을 함께 하였다고 하며, 박해문의 묘는 서면 월하 1리에 있다.



연화사

순천박씨 박해문의 조 모 때 처음 연화사를 창 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전통사찰이 되 었고 보물인 불비상 2 기를 보유하고 있다.

월하리 효자 민후건 정려

연서면 월하리 월동마을 북쪽의 낮은 구릉 중하단부에 남향하여 효자 민후건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민후건(閔後燾)의 충효행적을 기리기 위해 1708년(숙종 34)에 명정을 받아 건립한 것이다.

효자 민후건(閔後燾)(1571년~1652)은 여흥인으로 자는 효윤(孝胤), 호는 월하(月河)이다. 대사헌 청백리 민휘(閔暉)의 5대손이며, 감사 수천(壽千)의 현손이다. 아버지 민호(閔浩)(1550~1594)는 관직을 지내지는 않았으나 민후건이 정사원종공신에 책록되어 1623년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연안이씨(1550~1620)는 증 영의정 이순장(李順長)의 손녀이며, 감찰 이두(李斗)의 딸로 19살에 민호에게 시집와서, 2남 1녀(민후건, 민시건, 사위 한준민)를 두었고, 1623년에 숙부인에 증



1	2
3	4

1 민후건 정려 전경
3 민후건 정려

2 민후건 정려 명정현관
4 민후건 정려

직되었다. 민호가 죽은 후에는 그의 묘비명을 1646년에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이 찬하였다.

민후건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06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이후 관력은 통훈대부 공조정랑에 이르렀고,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민호가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기도 하였다. 낙향한 이후에는 병자호란 때에 세종시 지역에서 사돈관계인 강화 최씨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는 등 향촌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1708년 가선대부 공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上우도총부부총관에 증직되었다. 슬하에 1남(민응) 2녀(최조원, 이숙)를 두었으며, 1652년 82세로 졸하였다.

민후건의 효행 내용은 임진왜란 중인 1596년 그의 나이 26세에 모친 연안 이씨(당시 47세)가 병석에 눕게 되자 약을 구하러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별다른 약을 구하지 못하였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절망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날 모친이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강으로 가서 잉어를 구하여 이를 복용시켜 효험을 얻었다고 전한다.

민후건의 명정 사실은 『호서읍지』 『연기지』 『조선환여승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1702년에 충효로 참관에 증직되고 함께 명정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찾아지지 않는다. 특히 정려거나 관련자료가 없어서 건립과정, 중수사실 등 연혁을 파악하기 어렵다. 민후건이 명정을 받게 되는 계기와 과정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의 학문관계, 관력 및 행적, 후손들의 향촌활동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민후건의 후손들은 연기지역에서 혼인관계를 통해 사족집단과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활발한 향촌 활동을 하고 있다. 민후건의 손자인 민종사^{閔種泗}(1613~1672)는 연기향안^{燕岐鄉案}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자로도 칭송이 높았다. 민종사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의 말이 흰 개의

쓸개 12개를 복용하여야 나올 수 있다고 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울며 돌아다니던 차에 집에 흰 개가 스스로 찾아들어 이를 복용시켜 부모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민중사의 부인이 창녕 성씨이고, 당시의 연기지역 유력 성씨로서 충효로 증직되는 강화 최씨 최조원崔造源의 네 아들(최유화, 최명화, 최주화, 최정화)과는 바로 사촌간이며, 그의 차남 민계선閔繼先의 처는 남양 홍씨 집안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 연계, 개인적 관력,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지위를 구축한 민씨 집안이 혼맥을 통해 형성한 지역 내 유력 가문의 협조를 받아 1708년에 민후건의 명정을 받았을 것이다.

후손의 제보에 의하면, 원래 정려의 위치는 월하리 초입의 가래터였으나, 100여년 이전에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한 것이라고 한다. 정·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현판에는 민후건이 공조정랑을 지냈고, 공조참판에 증직되었다는 내용[孝子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工曹正郎 閔後燾之閔]과 작은 글씨[崇禎紀元後再戊子七月日]로 1708년(숙종 34)에 명정 받았음을 기록하였다.

한편 현재의 월하리는 민후건의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이 정해졌다고도 하는데, 이는 진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래의 동명이 월하리였기 때문에 민후건이 아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1646년 김집이 민호의 묘비명을 찬할 당시에 아직 민후건이 생존해 있었고, 호자로 정려를 받기 훨씬 이전인데도 민호의 묘비명에 월하방月河坊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월하리 가래터와 국촌리를 들어 가는 입구 사이의 하천 위에 놓여 있는 월하교는 민후건이 말에서 내려 건넌 다리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당시 민후건의 향촌사회에서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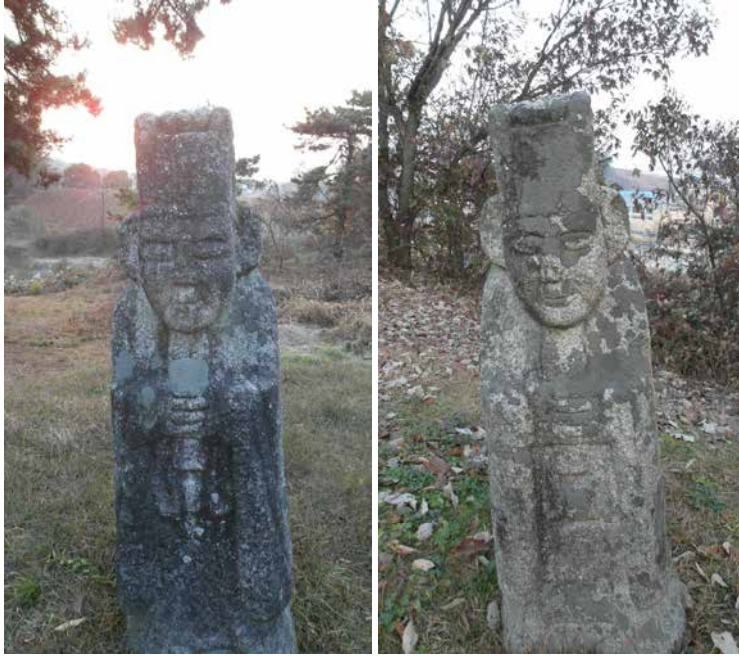
1	2
3	4
	5

- 1 민후건 묘소 민후건 부친의 묘소
- 2 민후건 묘소 묘표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진 민후건의 묘소이다.
- 3 민후건 묘소 문인석과 석주, 상석 등이 있다.
- 4 민후건 묘소
- 5 민후건 묘소



민후건 묘소와 묘비 ●●●

민후건 묘소는 정려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낮은 구릉 아버지 민호의 묘소 바로 위에 부인 청주 한씨와 합장되어 있다. 『연기인물지』에 의하면 월하리 월하뱅이 마을에 있는 민후건의 묘에 중암重庵 김평묵金平黻(1819~1891)이 지은 묘표墓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묘소



민후건 묘소의 문인석

에 기단만 남아 있을 뿐 비는 없어진 상태이다. 족보나 기타 자료에도 전하지 않고, 후손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묘비와 관련된 전설로 중국에서 묘비를 실어 오다가 대통교 아래에 빠뜨려 유실되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으나 현재 묘비의 기단이 있고, 훼손된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하여 후손 중에는 묘터가 학의 터이므로 석물(石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있었다.

연서면 청라리



조사대상 강릉김씨, 기은정, 김오 묘소, 김진수 묘소,
효자 김연 정려

청라리靑羅里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서면의 청라리靑羅里 망북리 행정리를 합쳐 연기군 서면 청라리靑羅里라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서면 청라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삼면에 청라전리靑羅田里가 관문으로부터 22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가 42호, 인구는 남자 76명, 여자 70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청라의 지명유래는 본래 나주나씨의 거주지였는데 나씨들이 떠난 마을이란

뜻에서 나발터[羅發址]라고 불리웠다는 설도 있고, 지형이 나발같이 생겼으므로 나발터 또는 청라라 하였다고도 한다. 지형이 나발같이 생겼다면, 청라의 라는 ‘羅’나 ‘蘿’가 아니라 ‘喇’로 표기되어야 할 텐데, 역사기록물에서는 ‘羅’나 ‘蘿’만 보인다. 혹은 청자를 구웠던 가마가 있었고 나주나씨들이 살다가 나가서 ‘靑’자와 ‘羅’자를 합하여 청라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요지로 확인되는 곳이 있다.



1	2
3	4

- 1 청나리 마을사진 기은정에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보인다.
- 2 청나리 마을사진 마을 중심인 이곳엔 마을 접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 3 청나리 마을사진 공주와의 경계이기도 하다.
- 4 청나리 마을사진 접질방



청나라 나발터 유래비

나발터 양달쪽, 곧 북쪽에 있는 큰 마을이 양진터[양대, 행정이다. 해가 먼저 뜨고 양지바르다 하여 양대, 양진터, 양짓말이라고 불리우며, 은행나무가 있던 마을이라 행정이라고도 한다. 전언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심은 나무이고 세 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양진터에는 고분군과 청자를 굽던 요지까지 다양한 문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청라2리에는 400여년 가까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전의이씨들이 있는데, 양진터를 감싸고 있는 산인 왕재는 전의이씨들의 묘소가 자리한 종산이다. 현재 청라 2리에 살고 있는 전의이씨는 전서공파로, 서울에서 관

직생활을 하다가 조선 광해군 대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역적으로 몰리면서 낙향하였다고 한다. 본래 전의면에 고려시대부터 자리잡고 있던 곳에 터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곳의 땅이 여의치 않아 전의면과 가까운 청라2리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나발터의 남쪽, 양진터 맞은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은 헌터[獻垔]라 하는데, 해가 늦게 뜬다고 해서 음진터라고도 한다. 원래의 마을 이름은 북향촌으로 망북[望北]이라 불렸다. 그 후 효자 홍우적, 홍우평, 홍우구가 이곳에 살면서 마을 풍속에 익숙하고 예의가 밝아서 이웃사람들이 그곳이 배울만한 분이 거주하는 곳이라 하여 현대[獻垔]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망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시묘동[侍墓洞]이라 부른다. 즉 효자가 효도하는 골짜기로 시묘동 또는 시묘골이라 부른다. 그 유래는 효자 홍우적, 홍우평, 홍우구가 그 부모상을 당하여 이곳에서 시묘하는데 범이 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오르다가 시묘가 끝나자 범도 가고 우물도 끊어졌다고 한다.



1	2
3	

- 1 기은정 주변의 느티나무 전에는 여덟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어서 팔고이정_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2 기은정 주변의 느티나무
- 3 기은정 주변의 느티나무 450여년이 된 보호수이다.

청라리 강릉김씨 기은공파 ●●

청라리의 강릉김씨는 쌍류리에 거주하는 강릉김씨와 마찬가지로 김오순 齣를 파조로 하는 기은공파이다.

청라리 기은정 ●●●

기은정 岐隱亭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로 연기에서 숨어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약 450년전(1550)에 생겼으며 둘레에 총 8그루의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현재 5그루만 살아 있다. 둥구나무 중 오래된 나무는 400~500년 정도 되었다. 기은정 주위의 느티나무가 8개라서 팔고이정이라고도 하였다.



기은정 연기에 은거하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곳은 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항상 그늘이 지고 지대가 높아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 또 한전이라고도 불리는데 땀이 안 나는 정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청라리 김오 묘소 ●●●

연서면 청라리 나발터 마을 남향사면 구릉 상단부에 김오^{金鰲}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관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묘소 아래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있는데, 1865년 임헌희^{任憲暉}(1811~1876)가 짓고^撰, 정해용^{鄭海容}이 비문의 글씨를 쓴^書 것을 1965년 후손이 다시 세운 것이다.



1	2	3
4	5	
6	7	



- 1 김오 묘소 입학조 김오와 그의 아들들이 상하로 차례로 묻혀있다.
- 2 김오 묘소 전경
- 3 김오 묘소 오래된 비석이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 4 김오 묘소
- 5 김오 묘소
- 6 청나리 강릉김씨 김오 신묘비
- 7 청나리 강릉김씨 김오 신묘비

청라리 강릉김씨 제각 영모재

연서면 청라리 나발터 마을 남향사면 구릉 중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영모재는 강릉김씨의 제각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초석 위에 사각의 기둥을 올린 팔작지붕의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전면은 툇마루로 이용하였으며, 한쪽 협칸은 부엌으로 사용하였다. 어칸 상단부에는 가로 135cm, 세로 60cm의 「永慕齋영모재」라고 써 있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한쪽 협칸에는 중수기가 걸려 있었는데, 1933년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면서 관리했었다고 하나, 현재는 폐가가 되어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강릉김씨 김진수 묘소



청라리 김진수 묘소 ●●●

연서면 청라리 헌터마을 입구의 북동쪽에 경의당敬義堂 김진수金振濂의 묘소와 묘비가 있다. 묘소는 야산의 서향사면에 위치하며 묘 앞에는 새로 세운 비석이 있고, 묘역보다 한 단계 낮게 만든 사면에 이 비가 세워져 있



다. 묘비(金玉鉉 書, 金龜來 謹書)는 화강 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것으로 전체 높이가 178cm 너비 48cm 두께 24cm이고, 옥개형 이수(雨頭)가 있다. 김진수는 효행으로 이름 나 있었는데 도로 건너편의 쌍류초등학교 옆에 있는 “효자 김중철 정려”에 그의 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청라리 효자 김연 정려 ●●●

사진6- 김연정려1,2, 김연정려 현판, 김연정려 안내판, 김연정려행장1,2
 연서면 청라리 마을입구의 도로변 언덕에 효자 김연(金璉)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김연(1712~1790)은 강릉 김씨로 지는 성기(聖器)이며 서면 청라리에서 태어났다. 김연의 아버지는 김익려(金益礪)로 무과에 급제하였고, 어머니는 배계도(裴繼度)의 딸인 남해배씨(南海裴氏)이다. 김연의 부인은 승의랑(承義郎)을 지낸 김정상(金鼎相)의 딸인 경주김씨(?~1773)로 슬하에 김헌빈(金憲彬), 김예빈(金禮彬), 김의빈(金義彬) 삼형제를 두었다. 김연의 묘는 청나리에 있다.

평소 효성이 지극했던 김연은 홀로 계신 부친이 중병이 들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드렸으며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목숨을 구하고 밤낮을 지새우며 약을 썼으나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

효자 김연정려 전면과 뒷면





1	2
3	4

1 김연정려 현판

2 김연정려 안내판

3, 4 김연정려 행장

었다. 그러자 김연은 부친을 일찍 돌아가시게 한 죄를 뉘우치며 통곡을 그치지 않았으며, 초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였다. 시묘하는 동안 까마귀가 날아와 떠나지 않았고, 호랑이가 와서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유인철이 찬한 정려기에 의하면, 지역 사람들이 김연의 효행을 관에 알리고, 본도의 사람들이 감영에 보고하고, 또한 암행어사에게 10여 차례 효행의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예조에 보고하여 급복(給復)의 테 김(題冊)을 받게 되었고, 정조가 화성(華城)에 행차했을 때 70여명의 선비들이 또 다시 청원하여 마침내 급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행장에 의하면 급복이 정조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순조실록』과 『호서읍지』에 의하면 1807(순조 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순조실록』 7년 11월 무신조의 기록에 의하면 연기의 김연에게 급복을 청하여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호서읍지』에도 정묘년(1807) 행행시(幸行時)에 왕에게 고하여 급복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김연의 급복은 1807년(순조 7)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연 정려는 효자 김연(1712~1790)의 효행사실로 칭송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명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김연의 효행에 대해 지역 사림들의 주선으로 조정에 상신(上申)하여 1807년(순조 7)에 급복(給復)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명정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통정대부 전비서원승 겸 장례원장례 유인철(柳寅哲)(1854~1937)이 지은 김연의 행장에도 김연이 나라로부터 급복을 받은 과정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명정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려건립은 1966년 성균관의 지원과 후손인 김홍래(金弘來), 김남철(金男喆)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의 정려는 1983년 군의 보조를 받아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처마는 흘처마 양식을 하고 있다. 정려의 내부에는 명정 현판과 유인철(柳寅哲)이 지은 행장 기문이 걸려 있다.

제3장 장군면의 터전과 뿌리





장군면의 터전과 뿌리



장군면은 2012년에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의 일부와 의당면의 일부가 합쳐져 새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등장한 곳이다.

이 장군면 지역이 조선시대에는 공주목의 동쪽 연기현과의 접경지로 장척동면, 의랑면, 요당면 지역에 해당한다. 조선후기 면리제를 엿볼 수 있는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3개면의 마을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 『여지도서』 공주목 방리조에는 장척동면 8개 동리, 요당면 5개 동리, 의랑면 9개 동리의 행정동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는 장척동면 32개 동리, 요당면 33개 동리, 의랑면 52개 동리의 마을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말의 마을명을 수록하고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마을명이 장척면 49개 동리, 의랑면 51개 동리, 요당면 45개 동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후기 장군면 지역 면리

면명	『여지도서』 -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남/여	『호구총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p>동북간 장척동면 (長尺洞面) ↓ [한말] 長尺面</p>	<p>광평리(廣坪里) - 동북간15리, 22호, 49/52명 금벽정리(錦碧亭里) - 동북간20리, 42호, 74/95명 이성리(理城里) - 동북간30리, 51호, 125/154명 만자동리(滿子洞里) - 북30리, 60호, 81/131명 대교리(大橋里) - 북20리, 46호, 69/91명 효재동리(孝齋洞里) - 북25리, 40호, 40/41명 어은동리(於隱洞里) - 북20리, 40호, 78/83명 노은동리(老隱洞里) - 북20리, 22호, 45/36명 [합계 : 8개동리, 편호 315호, 인구 남551명/여682명]</p>	<p>노음동(老陰洞), 광평리(廣坪里), 행정리(杏亭里), 송계(松溪), 외암리(外巖里), 말천리(末川里), 신촌리(新村里), 봉암리(鳳巖里), 명학동(鳴鶴洞), 대교리(大橋里), 풍덕리(豐德里), 효제동(孝悌洞), 노음동(老陰洞), 중산리(中山里), 귀래곡(歸來谷), 성산소(成山所), 월현리(月峴里), 안기리(安基里), 상신대(上新垵), 백운동(白雲洞), 중앙리(中陽里), 노전리(蘆田里), 유산소(柳山所), 사덕동(四德洞), 우산리(牛山里), 탁금정(濯錦亭), 이성리(理城里), 어은동(漁隱洞), 하신대(下新垵), 목정(墨亭), 장현리(壯賢里), 역미치(億美峙) [32동리]</p>	<p>묵정리(墨亭里), 반상동(盤床洞), 세동(細洞), 장현리(長峴里), 장암리(蒼岩里), 노은리(老隱里), 진목정리(眞木亭里), 회부동(回富洞), 별당리(別堂里), 중산리(中山里), 늑동(勒洞), 사천리(沙川里), 동고개리(東古介里), 백운리(白雲里), 우진동(牛津洞), 외암리(外岩里), 어은동(魚隱洞), 회덕리(回德里), 정동(靜洞), 구월현동(舊月峴洞), 도계리(道溪里), 송심리(松沈里), 안기리(安基里), 삼거리(三巨里), 봉산리(鳳山里), 강산동(姜山洞), 하산동(下山洞), 죽동(竹洞), 상풍리(上豐里), 대동(大洞), 행리(杏里), 와룡동(臥龍洞), 채운리(彩雲里), 만자동(滿子洞), 중풍리(中豐里), 대교리(大橋里), 소룡리(巢龍里), 우산리(牛山里), 학림동(鶴林洞), 송학리(松鶴里), 시식동(時食洞), 효제동(孝悌洞), 송계리(松溪里), 행정리(杏亭里), 신촌리(新村里), 원호동(遠湖洞), 장성터리(長城峙里), 원촌리(院村里), 상산터리(上山峙里) [49개동리]</p>
<p>北 의랑면 儀郎面</p>	<p>신태리(身峙里) - 북30리, 91호, 135/188명 방동리(方洞里) - 북35리, 66호, 100/119명 도리산리(道理山里) - 북35리, 95호, 132/155명 태평동리(太平洞里) - 북30리, 64호, 105/105명 용두리(龍頭里) - 북30리, 50호, 64/74명 [합계 : 5개동리, 편호 366호, 인구 남536명/여641명]</p>	<p>구암리(龜巖里), 은곡리(隱谷里), 용산리(龍山里), 천수동리(千壽洞里), 월곡리(月谷里), 모곡리(茅谷里), 망월정리(望月亭里), 상산소리(上山所里), 태평리(太平里), 신태리(身峙里), 양지리(陽地里), 방동리(方洞里), 중흥리(中興里), 용복리(龍伏里), 성덕리(聖德里), 흥암리(興巖里), 용두리(龍頭里), 내대리(內垵里), 대성리(大城里), 방축동리(方築洞里), 송정리(松亭里), 백안리(白鴈里), 황산리(黃山里), 신촌</p>	<p>일라동(日羅洞), 학년동(鶴年洞), 덕재동(德才洞), 도산동(道山洞), 서대동(西垵洞), 중산리(中山里), 송암리(松岩里), 하산정리(下山亭里), 소방동(小方洞), 신성리(新城里), 방동(方洞), 행목리(杏木里), 천수동(泉水洞), 중신리(中新里), 월계동(月溪洞), 태평동(太平洞), 중리(中里), 성덕동(聖德洞), 용복동(龍伏洞), 주암리(舟岩里), 소룡동(巢龍洞), 오산리(吳山里), 중산리(中山里), 용대동(龍垵洞), 신흥리(新興里),</p>

	<p>리(新村里), 신성리(新城里), 수암리(水巖里), 가락동리(歌樂洞里), 관동리(官洞里), 백자동리(柏子洞里), 월계리(月溪里), 중산리(中山里), 봉황리(鳳凰里), 용소리(龍巢里)</p> <p style="text-align: center;">[33동리]</p>	<p>가락리(佳樂里), 용두리(龍頭里), 신장리(新場里), 구산리(具山里), 용연동(龍淵洞), 신기동(新基洞), 대산리(臺山里), 용계리(龍溪里), 수회동(水回洞), 사우리(祠宇里), 향현리(香峴里), 석현리(石峴里), 상대동(上臺洞), 중대동(中臺洞), 풍천리(豐川里), 천변동(川邊洞), 송정리(松亭里), 양촌리(陽村里), 평촌리(坪村里), 구암리(九岩里), 백자동(柏子洞), 미동(美洞), 유산리(柳山里), 학산동(鶴山洞), 신소동(新沼洞), 은곡리(隱谷里)</p> <p style="text-align: right;">[51동리]</p>
<p style="text-align: center;">北 요당면 要堂面</p>	<p>평기리(坪基里) - 북30리, 131호, 190/162명</p> <p>문성리(文城里) - 북30리, 134호, 182/175명</p> <p>와룡리(臥龍里) - 북20리, 24호, 40/28명</p> <p>율정리(栗亭里) - 북20리, 88호, 128/106명</p> <p>덕곡리(德谷里) - 북27리, 64호, 89/78명</p> <p>월봉리(月峯里) - 북25리, 76호, 88/92명</p> <p>비계곡리(飛溪谷里) - 북27리, 108호, 184/161명</p> <p>속계리(涑溪里) - 북30리, 105호, 143/135명</p> <p>수촌리(水村里) - 북20리, 145호, 180/194명</p> <p>[합계 : 9개동리, 편호 875호, 인구 남1193명/여1131명]</p>	<p>용회동(龍回洞), 세청동(洗淸洞), 하룡동(下龍洞), 정난리(淨難里), 광덕리(廣德里), 평기(坪基), 상문성(上文城), 수정리(水亭里), 천변(川邊), 덕곡(德谷), 중독곡(中獨谷), 비계곡(飛溪谷), 율암(栗巖), 하산소(下山所), 율정(栗亭), 신촌(新村), 운교(雲橋), 학연동(鶴連洞), 신흥리(新興里), 월대리(月垜里), 상산리(上山里), 상도동(上都洞), 어인포(於仁浦), 구곡리(九曲里), 독정리(獨亭里), 원대리(院垜里), 속계(涑溪), 두만(斗滿), 요동(要洞), 평리(坪里), 북촌(北村), 월은(月隱), 기동(基洞), 태성(台城), 신흥(新豐), 월계(月溪), 도계(道溪), 내동(內洞), 대교(大橋), 한곡리(閑谷里), 회동(檜洞), 후계(後溪), 윤산소(尹山所), 서당리(書堂里), 별운산(別雲山), 송정(松亭), 신대리(新垜里), 하도동(下都洞), 오룡동(五龍洞), 월봉리(月峯里), 비계곡(飛溪谷), 상룡연(上龍淵)</p> <p style="text-align: right;">[45동리]</p> <p style="text-align: center;">[52동리]</p>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 14개의 법정리와 20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4개의 법정리는 도계리, 평기리, 대교리, 봉안리, 금암리, 하봉리, 은용리, 산학리, 송문리,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

등이며, 행정리는 도계1리, 도계2리, 평기리, 대교1리, 대교2리, 대교3리, 봉안리, 금암리, 하봉리, 은용1리, 은용2리. 산학리, 송문리, 송정리, 송학1리, 송학2리, 용현리, 용암1리, 용암2리, 태산리 등의 20개 마을이다. 2012년 6월까지 20개의 행정리 가운데 13개 마을은 공주시 장기면, 7개의 마을은 공주시 의당면에 속하였었다. 이들의 마을 연혁을 법정리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장군면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4년	1995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금암리	공주목 장척동면 금벽정리	장척동면 송계, 외암리, 산터둑	장척면 송심리, 반상동, 정동, 사덕리, 사천리, 생진동, 창암리, 외암리(일부), 원호동(일부)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2	대교리	공주목 장척동면 대교리(북20리)	장척동면 대교리, 안기리, 유산소	공주군 장척면 대교리, 강산동(일부), 안기리(일부), 요당면 정계동(일부), 신주막리(일부), 상독리, 유산리, 율곡리	공주군 장기면 대교리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3	도계리	공주목 요당면 평기리(북30리)	장척동면 풍덕리 요당면 도계, 평기	공주군 장척면 삼거리, 상풍리, 중풍리, 하풍리, 도계리(일부), 요당면 평기리(일부), 봉계리	공주군 장기면 도계리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4	봉안리		장척동면 중산리, 월현리, 안기리, 우산리	공주군 장척면 구월현동, 봉산리, 시석동, 강산동(일부), 안기리(일부), 중산리(일부), 우산리(일부), 요당면 신주막리(일부), 정계동(일부)	공주군 장기면 봉안리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5	산학리	공주목 장척동면 효재동리(북25리)	장척동면 행정리, 효계동, 중산리, 우산리	공주군 장척면 효계동, 송학리, 신학리, 소학리, 학림동, 행정리, 중산리(일부), 우산리(일부)	공주군 장기면 산학리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6	송문리	공주목 요당면 문성리(북30리), 평기리(북30리)	요당면 상문성, 송정, 월대리, 평기, 의랑면 송정리	공주군 요당면 문성리, 점촌리, 송정리, 월대리(일부), 평기리(일부)	공주군 의당면 송정리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1983)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7	송정리	공주시 의당면 송정리(1983)	세종시 장군면 송정리				
8	송학리	공주목 의랑면 신티리(북30리)	의랑면 송정리, 구은압리, 백자동리, 곡리, 신티리	공주군 의랑면 평촌리, 송정리, 양촌리, 유산리, 풍천리, 학선동, 구암리, 미동, 백자동, 은곡리	공주군 의당면 송학리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
9	용암리		의랑면 용복리, 모곡리	공주군 의랑면 용복리, 오산리, 수회리?, 송암리, 신산리, 상룡리, 석현리, 소룡리(일부)	공주군 의당면 용암리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10	용현리	공주목 의랑면 용두리(북30리)	의랑면 용두리, 요당면 천변	공주군 의랑면 천변동, 주암리, 향현리, 용대동, 용두리, 용계리, 소룡리(일부)	공주군 의당면 용현리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
11	은용리	공주목 장척동면 어은동리(북20리) · 노은동리(북20리), 요당면 와룡리(북20리)	장척동면 어은동, 백운동	공주군 장척면 노은리, 어은리, 백운리, 회부동, 늑동, 세동, 와룡동	공주군 장기면 은용리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12	태산리		의랑면 성덕리	공주군 의랑면 사우리, 상대동, 용연동, 성덕동, 태산리(일부)	공주군 의당면 태산리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13	평기리	공주목 요당면 평기리(북30리)	요당면 평기, 태성	공주군 요당면 신양리, 평장리, 회동, 태성리	공주군 장기면 평기리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
14	하봉리		요당면 한산소, 도계	공주군 장척면 하산리, 대동, 채운리, 도계리(일부), 요당면 봉곡리	공주군 장기면 하봉리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장군면 금암리



조사대상 전주이씨, 삼쌍효자 정려각

금암리(錦岩里)는 1914년에 처음 등장한 지명이다. 본래 공주군 장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송심리 반상리 정동 사덕리 사천리 우진리 창암리와 외암리(일부) 원호리(일부)를 병합하여 금벽정과 창암의 이름을 따서 금암리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가 되었

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장척동면(長尺洞面) 금벽정리(錦碧亭里)가 공주목 관문으로부터 동북간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42호, 인구는 남자 74명, 여자 95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장척동면에 외암리(外巖里)와 탁금정(濯錦亭)이 수록되어 있다. 금벽정리는 행정동리명으로



금암리 마을모습

금암리 마을모습
금강변에 위치한 금암리는
세종시가 되면서 전원주택
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금암리 마을회관



금암리 전주이씨 입향조 묘
소에서 바라본 모습



사용된 반면, 탁금정은 자연 마을 명칭으로 사용된 듯 하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자말^{창앓}은 금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그 남쪽 금강 건너쪽 곧 반포면 마암리 금강 가에 있는 창벽의 이름을 따서 창암이라 하며, 금벽정이 있고, 또 금벽 초등학교가 있다. 금벽정은 정자말에 있는 정자로 금강가 절벽에 수목이 울창하여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므로 금벽정이라고 하였다.

반상은 정자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반송이 있었으며, 사기점골^{사기점골}, 시첸은 반상 북쪽 골짜기 먼 곳에 있는 마을로, 전에 사기점이 있었다. 외암은 반상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창암 바깥쪽이 된다.

소진골^{우젠}은 창암 북쪽에 있는 마을로,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고 하며, 송심은 소진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초치미 밭이 된다. 사덕골^{사덕골}은 송심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옛적 난리 때 네 사람이 이곳에서 피난을 잘 하였다고 한다. 정동^{점말}, 정말은 송심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사기점이 있어서 점말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정말, 또는 정동이 되었다고 한다. 대박골은 사기점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돌부처가 있었으며, 이 돌부처는 높이 2척, 둘레 8촌의 작은 부처였다고 한다.

금강을 끼고 있는 금암리에는 매일 수백척의 배가 금강을 오르내리던 전통시대에 배가 정박하는 유명 나루들도 있었다. 말아귀나루는 반상 앞 남쪽 금강에 있는 나루로, 반상에서 반포면 마암리 말아귀로 건너가는 곳이며, 불티나루^{화치진}은 정자말 동쪽 금강에 있는 나루로, 정자말에서 반포면 도남리 불티로 건너가는 곳이었다.



금암리 전주이씨 후손들 절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구순의 사위 진주류씨의 후손이다.

금암리 전주이씨 봉사공파 ●●●

금암리 전주이씨 봉사공파는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참형을 당한 절의에 뛰어났던 정간공 한재 이목의 증손자 이구순이 입향조이다.

이구순李久洵의 증조 할아버지인 한재 이목은 조선초기부터 공주목 우정면 부전동(뚝밭골)에 정착하여 번성한 예안김씨 김수손金首孫의 사위로 28세의 젊은 나이에 무오사화에 희생되었다. 그의 호는 한재, 시호는 정간공이며, 공주의 충현서원과 전주의 황강서원, 김포의 부조묘 등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목이 죽은 후 그의 부인 예안김씨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 마을에 내려와 양육하였으니, 바로 이구순의 할아버지 이세장이다. 이세장李世璋의 자는 도성道盛, 호는 금강어수金江漁叟로, 강원도 관찰사까지 지냈는데, 명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아버지 이란李鑾은 참의공이며, 이구순은 찬성공으로 금암리 입향조이다.

이구순이 금암리로 들어온 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구순의 입향 이후로 주변 송원리 등에서 뿌리를 내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구순의 자는 이신而信이며 임천군수, 공주목사, 금산군수 등을 지냈다. 증직으로 송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봉사공파의 파조는 이



금암리 전주이씨 묘
역에 있는 석물들



금암리 전주이씨 묘역에 있는 석물들

구순의 아들인 이격李格이다 이격은 한재 이목의 4세손이다.

이목의 5세손 이정환은 효자로 명정받은 사실이 있고 7세손 이경설, 이경익 등 형제가 나란히 효자로 명정받은 사실이 있어 삼쌍정려가 전해지고 있다. 삼쌍정려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남면 송원리 만자동 입구에 있었던 것을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현재의 금암리 입향조의 묘소 아래로 이군하였다.

한편, 이구순의 사위인 문화류씨 유형 장군의 후손들이 조선후기 이래로 공주의 장기면 일대에 뿌리를 내리고 널리 분포되어 살아 왔다. 오늘날에도 전주이씨와 진주류씨 양 문중은 장군면 일대에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암리 이정환 · 이경설 · 이경익 삼쌍효자 정려각 ●●●

금암리 삼쌍효자정려(三雙孝子旌閭)는 송암 이정환과 손자인 이경설(李景高), 이경익(李景益) 형제의 효행을 기려 설립된 것이다. 원래는 연기군 남면 송원리 만자동입구에 세워져 있던 것을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이곳 금암리로 이전하였다.

이정환(李廷煥(1604~1671))은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5세 손으로,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송암(松岩)이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이 되었으나, 병자호란의 국치를 통분히 여겨 외출을 삼가하고 ‘비가(悲歌)’ 10수를 지었다. 효행 또한 남달라서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으니, 그 소문이 퍼져 1666년(현종 7) 현종이 온양 온천에 거둥하던 도중에 이러한 효행사실을 듣고 특별히 백미를 보내어 포상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명정을 받았고, 1723년(경종 3)에 이세구(李世龜)가 행장(行狀)을 짓고 남구만(南九萬)이 묘표를 썼다.

이경설(李景高(1650~1708))은 이정환의 장손으로 자는 상우(相虞)이며, 이경익(李景益(1655~1708))은 이경설의 동생으로 자는 공거(公舉)이다. 두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형은 아우 위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아우 또한 형의 말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섬기니 보는 이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경설이 18세, 경익이 13세 되던 해에 뜻밖에 모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형제가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듯 하였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



만자동 표석

년간 시묘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쌍효자라고 일컬었다. 그 뒤 부친에게 더욱 효도하였는데, 비록 가세가 빈약하였으나 부친에게는 항상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봉양을 하였으며,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부친의 온돌방에는 훈훈한 열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형제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식으로 문안을 드리니, 이러한 두 아들의 효성으로 부친은 75세까지 편안한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들 형제의 두터운 효행과 뜨거운 우애는 이웃 고을까지 알려졌으며, 1708년(숙종 34) 두 형제가 함께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 경설의 나이 58세요, 경익은 53세였다.

이정환 정려는 이정환이 1671년(현종 12)에 죽은 후 10년만인 1681년(숙종 7)에 어사의 계략에 의하여 명정을 받았다. 손자인 이경설李景高과 이경익李景益의 효행은 그들이 1708년에 죽기 전인 1699년(숙종 25)에 함께 명정을 받았다. 두세대에 걸친 3인의 효행에 대한 포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경설 형제가 죽은지 15년이 지난 1723년(경종 3)에 조부인 이정환과 함께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고, 이해 3월에 현존하는 3효자의 정려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추승작업이 대체로 인물의 생전에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주지역에 거주하던 한재寒齋 후손인 전주이씨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이경익의 아들 이동명李東明이 1728년(영조 4)에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원종공신이 되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익은 아들의 공에 의해 1728년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기도 했다.

정려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암 석재를 가공한 8각의 높은 주초석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정려의 4면은 홍살을 돌렸고, 주변에는 낮은 담장을 돌려 보호시설을 해 놓았다. 정려내부에는 ‘孝子贈通德郎司憲府持平成均生員李廷煥之閭효자증통덕랑 사헌부지평성균생원이정환지려’, ‘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高之閭효자증통선랑사헌



- 1 **삼쌍정려** 이정려도 또한 남면 송원리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이다.
- 2 **삼쌍정려** 외출입문에 정려기가 걸려 있다.
- 3 **삼쌍정려** 세분의 명정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는 삼쌍정려의 모습이다.
- 4 **삼쌍정려**

1	2
3	4



- 1 삼쌍정려 이정환 명정현판
- 2 삼쌍정려 이경익 명정현판
- 3 삼쌍정려 이경설 명정현판
- 4 삼쌍정려 정려기 정려를 세우게 된 내용들이 적혀있다.

1	2
3	4

부지평이경설지려’, ‘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益之閭효자증통선랑사헌부지평이경의 지려’라는 명정 현판이 차례로 걸려 있으며, 정려의 정면 중앙에는 성구용 成九鏞이 1969년(己酉年)에 지은 가로 135cm, 세로 41cm 크기의 ‘全州李氏兩世三孝旌閭記전주이씨양세삼효정려기’가 걸려 있다.

금암리 이정환, 이경설, 이경익 삼쌍효자정려각 앞에는 만자동이라 쓰여진 비석이 있다. 이 비석 역시 효자각이 있던 송원리에 있었던 것으로 효자각을 옮겨 오면서 함께 옮겨와 효자각 앞에 세웠다. 만자동 滿子洞 마을 비의 앞면에는 『滿子洞』, 뒷면에는 『天啓元年辛酉十一月十九日立』 이라고 쓰여 있다. 천계 天啓는 명나라 제15대 황제 희종 熹宗 주유교 朱由校의 연호로 천계 원년은 광해군 13년이다. 즉 이 마을비는 1621년 11월 19일에 건립된 것이다. 『만자동』의 초명은 『독자동』이었지만, 송암 이정환이 독자 보다는 많은 자손들을 번창하라는 뜻에서, 『만자동 滿子洞』으로 바꾸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대교리大橋里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장척면 대교리와 강산동·안기리의 각 일부, 요당면의 상독리, 유산리, 울곡리와 정계동·신주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공주군 장기면 대교리라 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가 되었다. 원래의 대교리는 도계리 경계에 있는 한다리의 이름을 따서 대교大橋라 한 것이다.



조사대상 김중서장군 묘, 김승규 정려, 유충걸 묘와 신도비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장척동면 대교리大橋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위치한다.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46호, 인구는 남자 69명, 여자 91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서는 장척동면에서

대교2리 마을전경
진주류씨 세장지로 가는 길



대교리 모습
도계리 쪽에서 바라본 모습



대교리 모습
큰길가의 조금은 변화한 풍경이다.



대교리大橋里, 안기리安基里, 유산소柳山所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산소는 진주류씨의 묘소들이 있는 곳일 것이다. 이 유산소가 후에 유산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같이 대교리는 일찍이 조선후기에 자연 마을 명칭으로도 사용되었고, 행정동리명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대교리의 자연 마을을 살펴보면, 진계, 유산, 독골, 밤실 등이 있다. 진계진계는 대교리 남쪽에 있는 큰 마을로 앞에 큰 냇가 있으며, 유산[유산리]은 진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진주류씨의 산소가 있고, 독골[독골]은 진계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밤실[밤실]은 유산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대장골은 밤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충신 김종서의 산소가 있는 곳이며, 진계뚝[진계제방]은 진계 앞 들에 있는 뚝이고, 국사봉은 독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수려하다고 하였다.

대교리 김종서 장군 묘 ●●●

대교리 산45번지에는 세종시 유형문화재인 조선전기의 인물 김종서 장군의 묘소가 있다. 이곳에 김종서의 묘소가 마련된 것은 일대가 순천김씨의 세장지지世葬之地였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순천김씨가 공주 지역에 세거하게 된 시기는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 때부터로 원래 거주지인 순천과 서울을 왕래하기 힘들어 중간에 집을 마련한 것이 공주의 요당이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의 ‘김종서의 아내가 공주에 살면서’라는 기사와 『단종실록』의 ‘김종서가 장차 충청도 공주에 가서 성묘하고자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라는 기사를 통해 공주 지역에 김종서의 집과 농장, 선대 묘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서金宗瑞(1383-1453)의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자는 국경國卿이며, 호는 절재節齋이다. 할아버지는 지평 김태영金台泳이고, 도총제都摠制를 지낸 김추

1
2
3

- 1 김중서장군 묘역 안내판
- 2 김중서장군 묘역 오르는 길
- 3 김중서장군 묘역





김종서장군 구묘비 전후면

김종서장군 신묘비 전후면



김종서장군 최근의 묘비 전후면

김종서장군 묘 동자석



김종서장군 묘 문인석



김종서장군 묘역 석등



김종서장군 묘 조사모습

金鍾의 3남 중 둘째로 공주의 의당면 월곡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는 성주배씨로 대사헌 배규(裴規)의 딸이다.

김종서는 1405년(태종 5) 식년시 문과에 동진사 13위(23/33)로 급제하였으며, 이후 여러 관직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특히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1433년(세종 15)에는 함길도 관찰사로 파견되었다. 함길도관찰사로 있었던 7~8년간 북변에서 6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장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445년(세종 27)에는 충청·전라·경상도 3도의 도순찰사로 파견되어 삼남 지방에서 목마장이 적합한 곳과 방마(放馬)가 가능한 곳의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1451년(문종 1)에는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편찬 책임을 맡아 진두지휘하였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학문과 지략, 무인다운 기상을 겸비한 김종서는 ‘대호(大虎)’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직하였으나, 어린 조카의 왕위를 넘보던 수양대군에게 큰 걸림돌로 여겨져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피살당했다. 후에 김종서의 충절이 재평가 되어 1734년(영조 10)에 원래의 관직을 회복하였고, 명정을 받았다.

김종서 장군 묘소에는 비석 2기와 상석, 석주가 있다. 구비(舊碑)는 김종서의 복관 2년 후인 1736년(영조 12)에 공주관관 이익진과 지방 유생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높이 94cm의 호패형인데, 앞면에는 ‘조선좌의정절재김선생종서지묘(朝鮮左議政節齋金先生宗瑞之墓)’라고 2행으로 세로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건립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김종서의 묘가 대교리에 자리하게 된 것은 원래 이곳이 김종서 집안의 세장지(世葬之地, 대대로 묘를 쓰고 있는 땅)였으며 당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종서의 묘소라고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신비(新碑)는 1963년에 세워진 것으로 오석의 비신에 옥개를 올린 형태이며, 전면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좌의정시충익호절재순천김공종서지묘(大匡輔國崇祿大夫左議政諡忠翼號節齋順天金公宗瑞之墓)’라고 새겨져



1	2
3	4
5	6

- 1 김중서장군 묘역 입구 홍살문
- 3 김중서장군 신도비와 재실, 홍살문
- 5 김중서장군 묘역입구에 있는 재실

- 2 김중서장군 신도비
- 4 김중서장군 묘역입구에 있는 재실
- 6 김중서장군 묘역입구에 있는 재실현판

있으며, 후면에는 행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묘역이 있는 마을 입구에는 최근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원래 김종서는 장군이 아니고, 문과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간 전형적인 문신관료였다. 그런데 병서 편찬을 담당하는 등 병법에 해박한 문무를 겸비한 전략가였으므로, 이러한 능력을 세종으로부터 인정받아 오랜기간 함길도병마사와 관찰사를 맡아 6진 개척을 주도하였다. 앞의 설명처럼 그의 묘소 앞에 세워진 구비에도 장군이란 표현은 없고 ‘김선생종서’라고 하여 ‘선생’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시대적 상황과 권력자의 성향에 의해 김종서는 ‘장군’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강직한 성품으로 왕위를 찬탈하려는 수양대군에 맞섰던 행위가 후대인의 기억 속에서 김종서의 인물상까지도 바꾸어 놓은 듯 하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김종서는 신장은 작고 술은 본디 전혀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중들의 김종서에 대한 이미지는 전적으로 사극에서 분장한 연기자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없지 않다.

김종서는 1678년(숙종 4)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1746년(영조 22)에 복관되었으며, 1758년(영조 34)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또한 1791년(정조 15)에는 강원도 영월군 장릉長陵 배식단配食壇에, 1797년(정조 21)에는 공주시 요당서원蓼塘書院에 배향되었고, 1808년(순조 8)에 부조묘를 하사 받았다. 김종서의 묘소 앞에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金承珪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정려旌閭가 있다.

대교리 김승규 정려●●●

김종서 묘역의 남서쪽 전방에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金承珪의 정려가 있다.

김승규金承珪의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아버지는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이다.



1	2
	3

- 1 김승규 정려 김승규는 김종서의 아들이다.
 2 김승규 정려
 3 김승규 정려 명정현관

김승규는 1447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1449년 형조 정랑刑曹正郎과 호군護軍, 1452년 사복소윤司僕少尹을 지냈으며, 1450년과 1452년에는 의주성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 1453년 수 전농시윤守典農寺尹과 전농윤典農尹, 지형조사知刑曹事 등을 지내다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이르렀는데, 아버지 김종서가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수양대군 하수인의 철퇴를 맞고 실신하자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치면서 이를 막다가 대신 죽음에 이르렀다.

김종서가 화를 입고 죽자,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가 그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준거가 되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김승규처럼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부치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부치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고, 김종서·김승규의 재산은 모

두 적몰하였다.

1454년(단종 2) 8월에는 김종서의 아들 김목대(金木臺), 김승규의 아들 김조동(金祖同)·김수동(金壽同) 등도 법에 의한 처치를 지시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승규의 아내 내은비, 딸 내은금 등은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에게, 딸 숙희는 동지중추원사 강곤(康袞)에게 주어졌으며, 김종서와 김승규의 집은 처음에는 정안옹주의 남편인 청성위에게 내려주었다가 후에 충훈사에 주어졌다.

이러한 김종서가 신원되는 것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김승규도 1791년(정조 15)에 아버지 김종서와 함께 장릉(莊陵) 배식단에 배향되었다. 김승규의 명정 현판에 의하면 1781년에 명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영조실록(英祖實錄)』 23년 11월 28일조 기사에 의하면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김승규의 정려를 청하여 왕이 이것을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어, 1781년보다 이른 시기인 1747년(영조 23)에 이미 명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순천 김씨 집안에는 김승규가 복관될 때 받은 교지가 소장되어 있다.

김승규의 정려(旌閭)는 후손 김기원(金基元)이 서산에 보관하던 것을 1981년 공주시에서 김종서 묘역 정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옮겨와 김종서 장군 묘 앞에 건립한 것이다. 김승규의 부인은 서산류씨로 유쟁(柳諍)의 딸이었다. 정려는 정측면 각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사면은 홍살로 처리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좌의정(領議政左議政) 겸 영정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증시충익공(贈諡忠翼公) 김종서지문(金宗瑞之門)’이라는 김종서의 명정현판과 ‘효자통정대부 병조참의김승규지묘(孝子通政大夫兵曹參議金承珪之墓)’라는 효자 김승규의 명정현판이 걸려 있다. 김종서와 김승규의 명정 현판 뒷면에는 복관, 시호, 명정 등의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 새겨져 있는데, 김승규의 경우에는 명정 연대가 1781년(정조 5)으로 적혀 있어서 실록의 기사와 차이가 있다.



1	2	1 대교리 진주류씨 세장지 표석	2 유충걸 묘와 신도비 안내판
3		3 유충걸 묘와 묘비	
4	5	4, 5 유충걸 묘소 앞 석물 문인석, 동자석, 석주 좌	



1	2
3	4

- 1, 2 유충걸 묘 앞 석물 문인석, 동자석, 석주 右
 3, 4 유충걸 신도비 앞뒷면

대교리 유충걸 묘와 신도비●●●

대교리 독골에 진주유씨가의 공주 입향조인 유충걸(柳忠傑(1588~1665)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대교2리 진주류씨 입향조 유충걸을 모시는 사당

유충걸은 유형의 장남으로 자는 신백(薰伯), 호는 금사(錦沙)이다. 1613년(광해군 5) 정조(鄭造)·윤인(尹訥)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을 주장하자 그들의 죄를 강경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처벌을 당하였다. 1618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해 인목대비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켜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이에 분개하여 대과를 단념하고 공주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으로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화의가 성립되어 의병을 해산하였다. 그 뒤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를 거쳐, 현감을 지냈다.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뒤에 설욕책을 상소하였는데, 세자사부로 있던 이유태(李惟泰)가 그의 상소문을 읽고 그의 충의심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유충걸의 선대는 원래 경기도의 번덕동에 대대로 세거했는데, 유충걸이 공주 세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찬한 유충걸의 신도비에는 광해군 폐모사건이 발발하자 이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정조(鄭造)의 외가 쪽 친척이던 금사공이 정조의 죄를 꾸짖고 금강가로 이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향 시기는 1620년경으로 보인다. 후손 중에는 송시열이 공주 이거를 권유하였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이와같은 기록으로 보아 신빙성이

났다. 그런데 왜 하필 공주로 이거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금사공의 외가와 처가가 주목된다. 금사공의 어머니 전주이씨는 공주에 세거하던 전주 이씨 이세장李世璋의 증손녀이고, 금사공의 처는 역시 공주에 세거한 능성구씨가 구사맹具思孟의 손녀이다.

이세장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아들이자 이목이 무오사화에서 사사되자 외향인 공주 부전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내려와 살기 시작한 인물이다. 유형인 부인은 바로 이세장의 증손녀이다. 또한 공주 탄천에 세거하는 함양 박씨 가문의 박시립朴時立은 군자감 관관을 지낸 인물로 유형장군과 동서 지간이기도 하다. 금사공의 처가인 능성구씨는 공주 의당면 중흥리에 세거하고 있던 가문으로 구씨 집안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구사맹이 일찍이 공주에 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손자인 인조가 이괄의 난에 공주로 파천했던 배경에는 외가와외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금사공 유충걸의 외가와 처가가 모두 공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집안이었고 광해군의 폐모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외향이자 처향인 공주로 이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유충걸의 묘역 입구에는 1687년(숙종 13)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글은 유지발柳之發이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전서篆書를 썼다. 방형 대좌에 빗돌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린 형태로 총 높이 184cm, 폭 71.5cm, 두께 20cm의 규모다. 묘역은 묘비, 상석, 문인석, 동자석, 석주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대교리 독골마을에는 1997년에 건립한 금호재錦湖齋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제의를 올리고 있다.

유충걸의 묘 옆에 고손자인 유종기柳宗基(1685~1733)의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100m 정도 거리에는 종기의 차남 유진항柳鎭恒(1720~1802)의 묘가 있다. 유진항의 묘 앞에는 홍양호洪良浩가 찬한 신도비가 서 있다.

장군면 도계리



조사대상

도계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장척면 삼거리, 상풍리, 중풍리, 하풍리와 도계리의 일부, 요당면 봉계리와 평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도계리(道溪里)라 하여 장기면 도계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도계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요당면 평기리(坪基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1호, 인구는 남자 190명, 여자 162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장척동면에 풍덕리(豊德里), 요당면에 도계(道溪), 평기(坪基)가 수록되어 있다.



도계리 모습
 도계리는 장군면의 행정마을이다. 면사무소 파출소 학교 등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도계리 모습



도계리 모습
 장기초등학교는 2013년 80회 졸업에 총 졸업생 8,888명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도계리는 도계1리, 도계2리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리별로 소속된 자연 마을이 몇 개의 반으로 편성된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 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도계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한다리^{대교, 대교리}이다. 이곳에는 한다리 즉 큰 다리가 있으며, 장기면사무소, 경찰지서, 우체국 및 초등학교가 있고, 또 시장이 있어서 당시 장기면의 요지가 되었다. 한다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 풍덕골^{풍덕곶}인데, 조선시대에 환자^{환곡}를 저장하던 사창이 있었다고 한다. 위풍덕골^{상풍리}, 상풍은 풍덕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 가운데풍덕골^{중풍리}, 중풍은 풍덕골 가운데에 있는 마을, 아래풍덕골^{하풍리}, 하풍은 풍덕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계^{봉계리}는 한다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고, 참시렁골은 봉계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매우 찬 물이 나는 샘이 있으며, 삼거리^{삼거리}는 도계리에서 중심 되는 마을로 세 갈래 길이 있다.

지금은 도계리에 장군면의 주요 관공서들이 위치하지만, 원래 1900년대 초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한 주요 관공 시설이 모두 대교리에 있었다고 한다. 도계리에서 대교를 건너 우측에 장기면사무소와 대교지서, 대교우체국 등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큰 홍수가 나서 대교리 마을이 전부 물에 잠기게 되어 흔적없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면사무소와 관련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건물들이 가까운 도계리의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대교리에 있었던 것들이 옮겨온 까닭에 이 지역의 일부 노인들은 장기우체국을 대교우체국으로, 장기치안센터를 대교지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봉안리鳳安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전의 공주군 장척면 구월현동, 봉산리, 시식동과 강산동·안기리·중산리·우산리의 각 일부, 요당면의 신주막리·정계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봉산과 안기의 이름을 따서 봉안리라 하여 장기면 봉안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봉안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가 되었다.



조사대상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에 대해 『여지도서』에서는 관련 행정동리명을 찾을 수 없고,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장척동면에 안기리安基里, 중산리中山里, 우산리牛山里, 월현리月峴里가 수록되어 있고, 의랑면에도 중산리中山里가 보인다.



봉안리 모습 장군면 봉안리는 세종시와 공주를 잇는 큰길이 있는 곳이다.



봉안리 모습 봉안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봉안리 모습 봉안리는 원룸과 상업지로 변화하고 있다.



봉안리 모습 백백하게 들어서고 있는 원룸들



봉안리 모습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봉안리 북쪽에 있는 고개인 다름고개[월현]가 있다. 이 고개는 봉안리에서 남면 고정리로 넘어가는데, 산 모양이 달과 같이 둥글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이 다름고개 밑에 있는 큰 마을의 이름도 다름고개[월현]이다. 다름고개 앞 길가에 있는 마을은 주막이 있어서 주막거리[새솔막, 신주막]라고 불렀다 한다.

강산소[강산]는 다름고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강씨의 산소가 있으며,

봉산^{봉산}레은 강산소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의 모양이 새처럼 생기었다고 하며, 안티^{안기}레는 강산소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산 남쪽에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는 소미라는 산이 있는데, 이 소미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소미^{우산}이다.

산학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중전의 공주군 장척면 효제동孝梯洞, 송학리, 신학리, 소학리, 학림동, 행정리와 중산리·우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중산과 송학의 이름을 따서 산학리라 하여 장기면 산학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산학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가 되었다.



조사대상 유담연 묘역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장척동면 효제동리孝齋洞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32호, 인구는 남자 40명, 여자 41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장척동면에 효제동孝梯洞, 행정리杏亭里, 중산리中山里, 우산



산학리 마을모습



산학리
마을모습

리牛山里가 수록되어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장밭들[장전, 중생]이다. 이곳은 중산 밑이 되는데 넓은 벌판이 되어 긴 밭이 많다고 하였다. 행정은 장밭들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은행나무가 있으며, 평풍정이[병풍정, 병풍정]는 장밭들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 영너미고개는 병풍정이 위쪽 언덕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꺾말[꺾말]은 장밭들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이고, 세집매[셋집매]는 꺾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세 집이 살았었다고 하며, 소롱골[소롱동]은 꺾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송학골[비학실, 미학실, 송학동, 비학동, 미학동]은 장밭들 남쪽 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학이 나는 형국이라 하며, 신학골[신해]은 송학골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고, 효제동[효제읍]은 신학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임자의·임태의 형제가 살면서 효성과 우애가 특출하였으며, 절골[사귀]은 효제

동 뒤에 있는 골짜기로 능암이란 암자가 있었는데, 절은 없어지고 돌담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산학리의 지형은 중부와 남부에 각각 해발 고도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흐르고, 주변에는 충적 평야가 있다. 이 평야는 구례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동부와 북부의 경계를 흐르는 대교천 유역에는 인공제방이 대규모로 축조되어 있다. 바로 이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공말·행정·미학실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산학리 유담연 묘역 ●●●

유담연柳燦然의 묘는 산학리 비학실에 있다. 산학리는 대교천의 서쪽에 접한 마을로 마을 뒤편의 장군봉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며 예로부터 배 형국의 명당 터로 알려져 있는데, 비학실은 산학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낮은 구릉으로 둘러 쌓여 마을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학이 날아가는 모습의 땅이라고도 하고 학이 쌀과 재물을 물고 날아드는 곳이라는 전설도 깃들여 있는 비학실은 진주 류씨와 부안임씨가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다. 바로 이곳 비학실 깊은 골짜기 안쪽에 유담연의 묘가 배위 전주이씨와 합장되어 있고, 어머니 전주이씨 묘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유담연(1619~1686)은 금사공 유충걸의 둘째 아들로 자는 증명仲明 호는 결망와結網窩이다. 충신 유취장이 유담연의 손자이다. 아들 유성채柳星彩가 우암 송시열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무과 급제한 후 관직이 삼도통제사에 이르렀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자 법에 따라 아버지로서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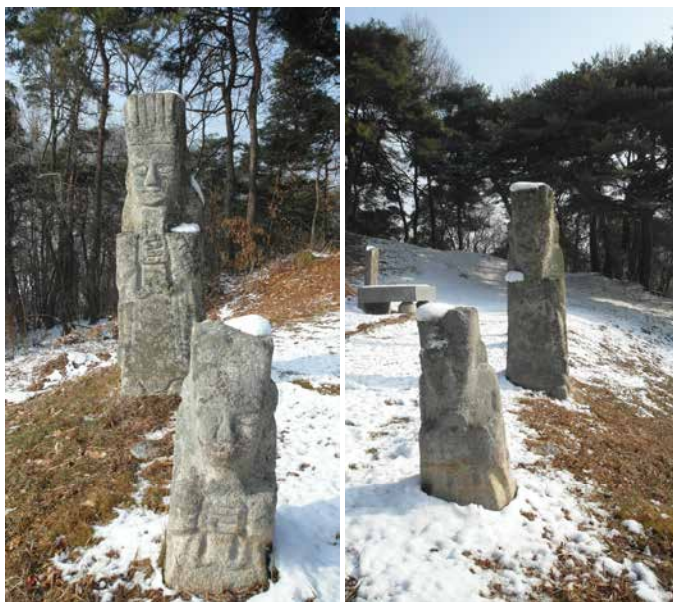
묘역의 입구에는 옥개형 이수를 올린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을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후손 유일장柳日章이 글을 써 1698년(숙종 24)에 세운 것이다. 신



1 유담연 묘역입구에 세워진 묘표 전면
3 유담연 묘비

2 유담연 묘역입구에 세워진 묘표 후면
4 유담연 지묘

1	2	3
4		



上 유담연 묘 앞 문인석과 동자석
 下 유담연의 동생 봉사공 묘소



도비에서 50m정도 뒤쪽에 묘역이 있다. 문인석과 동자석, 상석, 석주 등의 석물이 조성되어 있다. 모친 전주이씨의 묘비는 1720년에 세운 것이다. 길 건너편으로 유담연의 동생이며 유충걸의 셋째아들인 봉사공 유찬연(柳燦然)의 묘소가 있다.

송문리는 1983년에 공주시 의당면 송정리의 일부가 분리되어 장기면으로 편입되면서 등장한 지명이다. 의당면 송정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요당면 문성리 점촌리 송정리와 월대리·평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의당면 송정리가 되었으며, 1983년에 일부의 마을이 분리되어 장기면 송문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의당면 송정리로 남게 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송문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가 되었고,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가 되었다.



조사대상 문성영당 터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요당면 문성리(文城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4호, 인구는 남자 182명, 여자 175명이



송문리 마을모습



송문리 마을모습



송문리 마을모습

수록되어 있고, 평기리坪基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1호, 인구는 남자 190명, 여자 162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요당면에 상문성上文城, 송정松亭, 월대리月垔里, 평기坪基, 의랑면에 송정리松亭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문리의 서부와 북부로는 해발 고도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 경계에는 종고개가 있다. 동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으로 흘러 주변에 충적 평야가 있고, 남부에도 대교천의 지류에 의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평야가 평기 앞 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토끼자리·문성·증말·송정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송문리의 마

을에 대해 알아보면, 문성(문성래)은 송정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문성(송정산성, 토셀)이라는 산 밑이 된다. 점촌(점말)은 문성 옆에 있는 마을로, 전에 옹기점이 있었다고 하며, 토끼자리(토재)는 문성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토끼가 앉은 것 같은 바위가 있다. 송정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인 율터(율대)는 지형이 달을 닮았다고 한다.

송문리 문성영당 터●●●

숙종 때 청백리 유성하의 영당이 있던 터이다. 유성하(柳星河)의 지는 천향(天鄕)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공주 충렬사에 배향된 유형(柳珩)(1566~1615)이고, 아버지는 포도대장을 지낸 유병연(柳炳然)(1625~1681)이다. 원래 진주류씨 세거지는 경기도 고양이었었는데 유형의 장남 유충걸(柳忠傑)(柳忠傑)이 공주로 이거(移居)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소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언덕에 있으며, 묘지문(墓誌文)은 둘째 아들 유현장(柳顯章)이 지었다.

유성하가 전라도의 함평 현감이 되었을 때, 그 고을 사람들이 유성하의 청백한 덕을 추모하여, 그의 화상을 그리고 생사당(生祠堂)과 비석을 세웠는데, 그 후에 유성하의 후손들이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현 :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로 옮겨 와 봉안하였다고 한다. 현재 문성영당은 소실되어 터만 전해질 뿐이며, 송문리 문성마을 북쪽 언덕에 유성하가 강당을 열고 글을 읽던 곳이라 전해지는 초당바위가 있다.

장군면 송정리



조사대상

송정리(松亭里)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요당면 문성리 점촌리 송정리와 월대리·평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의당면 송정리가 되었는데, 1983년에 일부의 마을은 분리되어 장기면 송문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의당면 송정리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후 공주군 의당면 송정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의당면 송정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송정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요당면 문성리(文城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4호, 인구는 남자 182명, 여자 175명이 수록되어 있고, 평기리(坪基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1호, 인구는 남자 190명,

여자 162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요당면 상문성上文城, 송정松亭, 월대리月垓里, 평기坪基, 의랑면 송정리松亭里 등이 보인다.

송정松亭은 원래 소나무 정자亭子가 있어 사용된 지명이다. 송정리의 서부와 북부로는 해발 고도 100여m의 낮은 산지가 있고, 동부와 남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의 지류인 송정천松亭川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해발고도 6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있다. 송정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성재골·월대 등이 들어서 있다.

장군면 송학리



조사대상 유지길 출신 정려

송학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의랑면 평촌리, 송정리, 양촌리, 유산리, 풍천리, 학산동, 구암리, 미동, 백자동, 은곡리를 병합하여 송정과 학산의 이름을 따서 송학리라 하여 공주군 의당면 송학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의당면 송학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의당면에서 분리되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시 장군면 송학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의랑면 신티리(身峙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91호, 인구는 남자 135명, 여자 188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의랑면에 송정리(松亭里), 구암리(龜巖里), 백자동리(柏子洞里), 은곡리(隱谷里), 신티리(身峙里), 장척동면에 유



송학리
마을모습

송학리 마을앞 모습



산소^{柳山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학리의 지형은 서부·북부·남부 및 중부로는 각각 해발 고도 100여 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 장기면의 경계에는 종고개가 있다. 동부의 산지 사이로 대교천^{大橋川}과 용두천^{龍頭川}이 흐르면서 해발 고도 8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은곡·학미·창촌·들말·방울바위·몸치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송학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송정은 송학리의 원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으며, 구암^{거북비웨}는 창말 옆에 있는 마을로, 거북바위^{구암}라는 모양이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몸티^{신테}는 송정 남쪽에 있는 마을, 요랑바위^{영암}는 송정 동쪽에 있는 마을로 요랑바위가 있으며, 들말^{평촌}은 송정 동쪽 별판에 있는 마을이다.

은골^{은곡}은 들말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창말^{창촌}은 들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의영창이 있어서 환자(환곡) 쌀 224석을 저장하였다고 하며, 학미^{학새}는 들말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학처럼 생긴 학미^{학새} 밑에 있는 마을이다.

송학리 유지걸 충신 정려●●●

유지걸^{柳智傑(1602~1619)}은 본관이 진주이고, 아버지는 통제사를 지낸 석담 유형^{柳珩}이다.

1618년(광해군 10) 후금이 요동 지방을 공격해 오자, 명나라는 조선에 요동정벌군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 평안도병마절도사 김정서^{金景瑞}를 부원수로 하여 1만 3천여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게 하였다. 이때 유지걸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형 유효걸^{柳孝傑}을 대신하여 중



1	2
3	4
5	

- 1 유지길 정려 유지길은 유형장군의 6남이며 대교리 입향조인 유충걸의 동생이다.
- 2 유지길 정려
- 3 유지길 정려 명정현관
- 4 유지길 정려 정려기, 정려를 내린 사유와 언제 누가 세웠는지를 기록하였다.
- 5 유지길 정려 안내판



유지걸 정려비 앞뒷면

군하였다.

이듬해 봄에 명나라 군사들이 연속 패전하고, 원정군도 심하(深河)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에 따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후금의 진중에서는 우리 장병들의 진심을 의심하여 홍(紅)·백(白) 두 가지 깃발을 세우고 홍기 아래 모이는 자는 용서하고 백기 아래 모이는 자는 처형하겠다고 하였다. 유지걸은 끝까지 후금군의 회유에 굽히지 않고 백기의 아래에 있으며 적을 꾸짖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충절이 알려져 1796년(정조 20) 호조좌랑의 증직과 함께 명정을 받았다. 1796년 8월 유씨집안과 이순신 집안에 시호를 내리는 문제로 논의가 있을 때에 정조가 전교 내리기를

유씨의 집안에는 어쩌면 그리도 충신과 명장이 많은가. 대체로 증 영상 유형과 그 손자 증 판서 유병연은 곧 충무공 이순신과 정익공 이완이 혹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도 하고 혹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천거하기도 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진충 보국’ 네 글자로 등에 문신을 한 충성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았으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우리 나라의 두 무목에게 시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증시하라. 고 총용사 유림(柳琳)은 중국 조정을 위하여 금주(錦州)의 싸움에서 절개를 온전히 하여 저들이 아직까지도 칭찬해 마지 않고 있다. 유효걸(柳孝傑)은 유형의 아들로서 강홍립의 부름에 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서제 유지걸(柳智傑)이 20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투를 틀고 스스로 대신 가기를 청하여 심하(深河)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효걸의 아들 가운데 또 고 훈련 대장 유혁연과 병연이 모두 정익공에게 천거받아 중요한 정사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두고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다고 비유하였다. 지난번에 무사들을 시험보이는 일로 인해서 가마가 태평교(太平橋)를 지날 때 길 곁으로 고 장가(將家)의 유허가 나타났는데 한참 동안이나 탄식하였었다. 유지걸에게 만약 정증(旌贈)한 바가 없으면 상세히 상고하여 초기하라. 이로 인하여 또 생각건대, 충무공의 아들 이면(李勉)이 정유년에 순국하고 이훈(李薰)이 갑자년에 순국하였으며 이신(李薰)이 정묘년에 순국하였는데 정증하는 전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유지걸을 정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때에 차마 충무공의 집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각기 화합(華啣)을 증정하도록 하라.

라고 하며 진주유씨의 충절을 칭송해마지 않았다. 그후 한달만인 9월에는 유지걸의 명정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우의정 윤시동(尹時東)이 문헌을 상고하여 유지걸은 심하(深河)의 싸움에서 강홍립(姜弘立)이 군대를 다 데리고 투항하자 홍립의 휘하에 있던 자들은 모두 적의 포로가 되었지만, 끝까지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백기(白旗) 아래에 몸을 던져 죽었던 사실을 아뢰었다. 훗날 강홍립은 귀국하여 유지걸의 형인 효걸을 만나 ‘나는 지걸의 죄인이다.’라 하였다는 일화도 함께 전했다. 관례도 치르지 않은 나이에 순절하였으니 정려하고 추증해야 한다는 데에 정조가 윤허하였고, 지걸의

묘가 없으니 아버지 유형의 묘 아래에 정문을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지걸의 충신 정려는 장기면 송원리(현 세종시 남면 송원리) 금호서사 근처에 건립되었다.

또한 1800년(순조 원년)에 그 봉사손을 정하라는 명에 따라 1832년 유진옥 柳鎭玉의 주관으로 유유연 柳悠然(유신걸의 3남)의 6세손 유상집 柳相集을 봉사손으로 정하였다는 예조의 입안문서가 전한다. 유유연의 후손이 모두 공주에 거주하였으므로 8대손 유징노 柳徵魯가 유지걸 정려를 송원리의 금호서사 옆으로 옮겨 중수하였다.

금호서사가 훼손된 후 정려는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1967년 11대 종손 유응호에 의하여 공주군 의당면 송학리 현재의 위치로 이견되었다. 정려기는 유협기 柳協基가 찬하였으며, ‘좌랑공정려이건기 佐郎公旌閣移建記’로 명명된 이건기는 1970년 11대 종손인 유응호 柳應浩가 찬하였다.

유지걸의 정려는 초익공 계통의 건물로 정·측면 1칸이며, 정려 안에는 비석과 명정현판(忠臣 贈朝奉大夫戶曹佐郎柳智傑之閣 24), 이건기 현판이 있으며 전면의 창방 위에는 충신의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에는 충신 유지걸의 정려(忠臣 贈朝奉大夫戶曹佐郎 柳智傑之閣)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유지걸의 단묘가 장기면 중흥리 궁골(구룡동)에 조성되어 있다. 중흥리 궁골은 대교천의 상류로 대교천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했던 진주유씨의 세거지 중 하나로 유형의 후손이 거주하면서 유지걸의 묘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1대손 유응호 柳應浩가 주도하여 단을 조성하였다.

장군면 용암리



조사대상 효자 이면주 정려, 유신길 묘

이 보인다.

용암리의 지형은 북부와 서부·동부로는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용암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의랑면 용복리, 오산리, 수회리, 송암리, 신산리, 상룡리, 석현리와 소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상룡과 송암의 이름을 따서 용암리라 하여 의당면 용암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의당면 용암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의당면에서 분리되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에 대해 『여지도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호구총수』에는 의랑면의 마을 명칭 가운데 용복리龍伏里, 모곡리茅谷里 등



용암리 마을모습 1



용암리 마을모습 2
유신걸 묘소가 있는 마을



용암리 마을모습 3
유신걸 묘소 앞에서 보이는 모습



- | | |
|---|-------------------------|
| 1 | 1 용암리와 용현리를 흘러 내려오는 용두천 |
| 2 | 2 띠실마을 표석 |

있고, 남부와 중부로는 용두천龍頭川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 고도 80여m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용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과 평야 지대에 신산·띠실·자귀동·위용머리·평촌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용머리내[용두천]가 신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수회산을 돌아 서북쪽으로 흘러 위용머리 앞에서 다시 꺾이어 남서쪽으로 흘러 의랑천으로 들어가는데, 용머리내의 가에 위용머리상룡

두, 상룡리, 상룡리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용현리의 용두산 위쪽이 된다. 수회산은 무도리 뒤에 있는 산으로 높이 154m 되는데, 마을에서 내려 오는 시내가 산을 싸고 휘돌아서 흘러간다. 띠울[모곡]은 수회산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띠가 많이 있으며, 무도리[무드리, 수회리는 위용머리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띠울에서 내려오는 시내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휘돌아 서북쪽으로 흘러 간다. 송암마을은 띠울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신산은 띠울 북쪽에 있는 마을로 신씨의 산소가 있으며, 오산은 수회리 옆에 있는 마을로 오씨의 산소가 있다. 자귀나뭇골[자꺾골, 자귀땀]은 위용머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자귀나무가 많이 있으며, 수룡[수룡]은 위용머리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고, 용보는 위용머리 앞 들에 있는 보인데, 이 용보 옆에 있는 마을도 용보이며, 이 용보가 있는 들은 용보들[용보땀]이다.

용암리 이면주 정려●●●

이면주李勉疇는 본관은 전주全州로 정종의 10남인 덕천군의 13대손이고, 덕천군의 현손인 공주 입향조 이몽경李夢慶의 4남 이담李湛(580~1642)의 7대손이다. 아버지는 이무형李茂亨(1793~1861)이고, 어머니는 결성장씨結城張氏(1789~1832)이다.

이면주는 효심이 지극하여 늘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아버지가 출타하여 친구들과 노닐면 그 곳에 따라가 개를 잡아 아버지의 친구들이 흥겹게 놀도록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변을 맛보며 병의 상태를 살피는 등 정성을 다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한 의원이 꿩고기 기름을 내어 먹으면



용암리 이면주 정려비



1	2
3	4

1 용암리 이면주 정려 현판 2 용암리 이면주 정려기 3 용암리 이면주 정려비와 비각
4 용암리 이면주 정려비각 이면주는 정종의 열번째아들 덕천군의 13대손이다.

나을 수 있다고 일러 주었으나, 여름이라 꿩을 구할 수 없었다. 상심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효심이 가상하니 내일은 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새벽에 꿩 두 마리가 집으로 날아들어 이를 잡아 약으로 써서 아버지의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후 또 다시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차도가 없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어 아버지에게 먹였다. 그러자 차도가 있는 듯 하였으나,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면주의 지극한 효행에 감탄한 유림들이 이 사실을 관찰사에게 알려 1905년에 명정을 받았고, 1906년 효자 이면주 정려旌閣를 세웠다.

이러한 이면주의 효행과 포상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일찍이 1870년(고종 7)에 공충도 유학 오승수吳升秀 등이 공주公州 유학 이면주李勉疇의 효행을 위하여 포상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떠한 포상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1905년(고종 42) 6월 7일(양력 7월 19일)의 승정원일기 기사에서는 고 학생 이면주에게 9품 종사랑 중학교 교관을 추증하였으며, 이는 효행이 매우 뛰어나 증직을 시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효자로 명정 받을 당시의 입안立案에는 충청도의 유생 김태현金台鉉 등이 이면주의 효행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남정철南廷哲에게 알리고, 남정철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려를 내릴 것을 주청하자 임금이 정려를 내리도록 비답한 내용과, 정려를 세울 때 재목과 목수를 관청에서 제공하고 그 자손들의 환곡과 모든 잡역 일체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통정대부비서원승원장례通政大夫秘書院丞院掌禮 유인철柳寅哲이 쓴 정려기에는 이면주의 효행 사실과 정려 과정이 적혀 있다.

정문旌門은 정문은 맞배집으로 안에 ‘효자증구품종사랑중학교교관이면주 지문孝子贈九品從仕郎中學校教官李勉疇之門’이라고 쓴 현판이 있고, 정려기와 정려비(너비 43cm, 높이 144cm, 두께 20cm)가 있다.

용암리 유신걸 묘 ●●●

용암2리 띠실 마을에는 진주류씨 장군면 지역 입향조 유충걸의 동생인 유신걸柳信傑의 묘소와 사당이 있다. 대교천의 지친인 용두친의 상류는 골짜기가 깊고 넓은 편이어서 옛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1900년대 초 공주 일대의 동족 촌락이 조사된 바 있는데, 당시 용암리는 전주이씨의 세거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덕천군과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성촌이다. 진주유씨는 금사공 유충걸이 공주의 유력



1	2
3	4 5
	6

- 1 유신걸 묘소 전경
- 2 유신걸 묘비
- 3 유신걸 묘소 상석과 석물
- 4 유신걸 묘소 상석과 석물
- 5 유신걸 묘소 상석과 석물
- 6 유신걸 묘앞에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석이 똑
같아 조상일거라고 믿고 진주류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묘소



한 집안이었던 전주이씨와의 혼인을 통해 공주로 입향하는 계기를 마련한 집안으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전주이씨와 통혼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용암리에 유신걸의 묘가 자리잡게 된 데에도 전주이씨 가문과 이와같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신걸(柳信傑(1604~1637))은 유형 장군의 셋째 아들로 1626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선천군수 김응하(金應河)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유탄연을 두었다. 유탄연 또한 무과에 급제하였고, 유탄연의 아들 유성추(柳星樞)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유성추는 영조 무신란 때에 원종공신에 참여하였으며, 그 공으로 조부인 유신걸도 병조참관에 증직되었다.

묘역은 봉토분에 상석과 묘비, 동자석과 석주 등의 석물이 구성되어 있다. 상석의 형태가 특이하여 하단석은 오래되어 낮은 형태이고 상단석은 마치 엇그제 해올린 듯 대리석처럼 매끈하고 깨끗하다. 묘비에는 ‘贈兵曹參判行宣傳官 柳信傑之墓 贈貞夫人 安東金氏 丁巳年八月日豎’이라 새겨져 있다.

유신걸의 묘소 앞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석의 형태가 유신걸 묘역 석물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신걸과 가까운 인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진주류씨 문중에서는 매년 성묘도 하고 묘소 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장군면 용현리



조사대상

용현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중전의 공주군 의량면 천변동 주암리 향현리 용대동 용두리 용계리와 소룡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의당면 용현리라 하였다. 이후 공주군 의당면 용현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의당면에서 분리되어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용현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의량면 용두리龍頭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50호, 인구는 남자 64명, 여자 74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서는 의량면 용두리龍頭里, 요당면 천변川邊 등을 찾을 수 있다.



용현리 마을모습

용현리의 지형은 북부·동부 및 남부로는 해발 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 및 중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용두천龍頭川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흘러 해발 고도 60여m에 형성된 층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과 용두천의 층적 평야는 송학들이라 불리운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평야 지대에는 용대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용현리 뒤에 있는 높이 131m의 산은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용두산[용쇄]이라고 하는데, 이 용두산에 있는 고개가 용고개[용현]이고, 이 용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용고개[용현]이다. 이 용현 서쪽에 있는 마을이 용터[용대로 전에 용뭇이 있었으며, 용대 옆에 있는 마을이 용두[용머리]인데, 용두산 밑이 된다. 용현 동쪽에 있는 마을은 용계이고, 용현 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이 냇계[천변]이며, 냇계 동북쪽에 모양이 배와 같은 바위가 배바위[주얌]인데, 이 배바위가 있는 마을 이름도 배바위[주얌]이다.

은룡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장척면 노은리 어은리 백운리 회부동 늑동 세동 와룡동을 병합하여 노은과 와룡의 이름을 따서 장기면 은룡리가 되었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은룡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은룡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은룡리가 되었다.



조사대상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장척동면 어은동리於隱洞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40호, 인구는 남자 78명, 여자 83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장척동면 노은동리老隱洞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22호, 인구는 남자 45명, 여자 36명이 수록되어



은룡리 마을모습

있다. 또한 요당면 와룡리臥龍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24호, 인구는 남자 40명, 여자 28명이 수록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장척동면에 어은동漁隱洞, 백운동白雲洞이 수록되어 있다.

은룡리의 지형은 남부·동부로는 해발 고도 300여m와 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로는 장군산將軍山(354.3m)이 높이 솟아 있다. 북부·동부·서부 일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의 지류들에 의한 충적 평야가 산지 사이에 군데 군데 형성되어 있다. 북부에는 바탕골 저수지가 있으며, 동부에는 은룡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농골·은골·바탕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은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레구실(레둑)로 지형이 굴

레처럼 생기었다 하며, 구례실 남동쪽에 있는 마을인 바탕골[백운은 전에 나무꾼들이 장을 치던 곳이었고, 구례실 북동쪽에 있는 마을인 와룡은 지형이 누운 용처럼 생겼다고 한다. 농골[노은은 와룡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좋은 논이 있으며, 헛가물골[회뵤은 바탕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전에 회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농골 앞 북쪽에 있는 들이 부숫돌[부싯돌, 농골 서쪽에 있는 뽕죽한 산이 뽕죽재, 농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불뭇골인데, 불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는 절이 있어서 절골이다. 이 절골에는 큰 석벽에 넓이 40척. 높이 5척, 깊이 10척 가량 되는 큰 굴이 있는데, 이곳이 절골굴로 그 속에 절을 짓고 부처를 모시었으며, 그 안에 좋은 우물이 있다고 한다.

장군면 태산리



조사대상 전주이씨, 덕천군 사우와 묘소

태산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의랑면 사우리, 상태동, 용연동, 성덕동과 태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의당면 태산리라 하였다. 이후 공주군 의당면 태산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 의당면에서 분리되어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에 대해서 『여지도서』에서는 관련 지명을 확인할 수 없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의랑면 마을 이름 가운데 성덕리聖德里가 보인다.

태산리의 지형은 북서부로는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남부 및 동부로는 대교천大橋川과 그의 지류들에 의해 해발 고도 8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대교천 연변에는 인공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대교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의 평야 지대에 성덕골·사우말·행정 등의 마을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사우말[사우침이 태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이곳에는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 이후생의 사당이 있었다. 승덕골[승덕툰]은 사우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강당말[강당침]은 사당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씨의 강당이 있었으며, 행정[은행정이, 행정리]은 강당말 아래에 있는 마을로 늙은 은행나무가 있다. 용못[용연]은 강당말 서쪽에 있던 못으로 예전에 용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태산리 전주이씨 덕천군파 ●●●

태산리 전주이씨 덕천군파의 입향조는 목사공 이몽경이다. 이몽경은 덕천군의 고손이며 외가와 연관되어 입향했다고 후손은 전한다. 이몽경은 덕천군의 종손은 아니지만, 원래 남면에 있던 덕천군 사우[祠宇]가 남아지면서 이곳으로 이진 되었고, 경기도 광주에 있던 묘소는 그곳에 군사시설이

전주이씨 덕천군 파보





태산리 전주이씨 입향조묘소



1	2	3	4
5		6	

1~4 태산리 전주이씨 입향조 묘소의 석물
 5 태산리 전주이씨 입향조 묘역 토지신 비
 6 태산리 전주이씨 입향조 묘소 옛상석

들어오게 되어 1974년에 이곳 태산리로 면봉(緡奉)하게 되었다. 원래의 사우가 있던 남면 방축리는 덕천군이 자주 찾던 별서로 그곳에 자주 기거 하면서 덕을 베풀었다 하며, 이로 인해 남면 방축리에 사우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묘소가 경기도 광주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왕자들의 묘소는 기내(畿內)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한 당시의 관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묘소 면봉 당시 유물이 출토 되었는데 두 개의 항아리와 장식품들이었다.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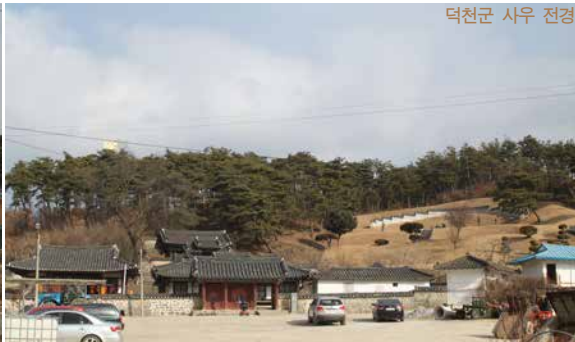
공주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사우 옆에 세워진 덕천군 유물관에는 복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목사공의 아들 넷 중에 한분은 후손이 없다 들었는데 얼마전 족보를 가지고 나타나 많은 후손들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첫째 후손들은 태산리에, 둘째 후손들은 장기면 일대에, 넷째 후손들은 용현리와 용암리에 흩어져 살고 있다.

태산리 덕천군 사우와 묘소 ●●●

덕천군의 본명은 이후생李厚生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아버지는 조선 제2대 왕 정종이며, 어머니는 정종의 후궁인 성빈 지씨이다. 덕천군은 정



덕천군 사우와 묘소 유물관 전경



덕천군 사우 전경



덕천군 사우 외삼문



덕천군 사우



- | | |
|---|-----|
| 1 | 2 |
| 3 | 4 |
| 5 | 6 7 |
- 1 덕천군 사우 내삼문
 - 2 덕천군 사당
 - 3 덕천군 사당 현판
 - 4 덕천군 사우 사당
 - 5 덕천군 사당 내부
 - 6 덕천군 사당 내 교지 1
 - 7 덕천군 사당 내 교지 2



1	2
3	4
5	6
7	

- 1 덕천군 유지해설비
- 2 덕천군 사우 옆 유물관
- 3 덕천군 유물관 출입문
- 4 덕천군 유물관 전면
- 5 덕천군 유물관 뒷면
- 6 덕천군 신도비와 비각
- 7 덕천군 신도비



- 1 덕천군 묘소 연봉기
- 2 덕천군 묘역
- 3 덕천군 묘소
- 4 덕천군 묘소 전경
- 5 덕천군 묘비와 석물

1	2
3	4
5	



덕천군 사우를 지키는 후손들



덕천군 사우조사모습

종의 열 번째 아들이다.

덕천군은 평소에 검소하여 사치를 멀리 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등 성품이 곧은 인물이었다.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농사에 힘써 공주에 논밭을 소유하고 때때로 내려와 직접 농사를 지었다. 어느 해 여름 공주에 장맛비로 금강이 넘쳐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운 일로 사람들은 그를 적덕공積德公이라고 불렀다. 1465년(세조 11) 향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456년(세조 2) 원종공신이 되었고, 1460년(세조 6) 덕천군德泉君에 봉군되었으며, 1873년(고종 10) 광록대부영종정경光錄大夫領宗正卿으로 증직되었다. 시호는 적덕積德이다.

평기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요당면 산양리, 평장리, 회동, 태성리와 평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장기면 평기리라고 하였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평기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가 되었다. ‘평기’라는 원 지명은 별판에 있으므로 별터 또는 평기라 한 것이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관련 있는 지명을 『여지도서』에서 찾아보면, 공주목 방리조에 요당면 평기리坪基里가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에 의하면 편호가 131호, 인구는 남자 190명, 여자 162명이 수록



조사대상 수원백씨, 경주이씨, 밀양박씨, 이태연 모역



평기리 마을모습



평기리
마을회관

되어 있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요당면 마을 이름으로 태성台城, 평기坪基 등이 보인다.

평기리의 지형은 동부·북부·중부로는 해발 고도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와 남부로는 대교천大橋川이 남북 방향 및 동서 방향으로 흐르며, 주변에 해발 고도 60여m의 층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평야는 ‘평기앞들’이라고 불리운다. 이외에도 중부로 정계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 고도 60여m의 층적 평야가 있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벌터·회골·밤실·평장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금암리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면, 평기는 벌판에 있으므로 벌터 또는 평기라 한 것이고, 이 벌터 아래 쪽에 있는 마을로 장승이 박혔다 하여 정성배기장승배기, 벌터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이 근처에 명당이 있으므로 평토장한 것이 많이 있다 하는 평장골평장동, 벌터 동북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전에 석회가 났다는 회골회동 등이 있으며, 회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태성평



1	2
3	4

1 초려문중 경주이씨 재실 경돈재
3 초려문중 경주이씨 재실 현판

2 초려문중 경주이씨 재실 경돈재기
4 초려후손 경주이씨 평기1번지 이장준의 묘소와 비석

기산성, 평기성, 높이 116m, 40간의 옛 토성이 있음이라는 산의 남쪽에 해당하는 마을인 태성 등이 있다.

평기리 경주이씨 초려 후손●●●

평기리 경주이씨는 세종시 종촌리에 묘소와 신도비 등이 있어서 그 주변을 성역화하기로 결정된 조선시대의 인물 초려 이유태의 후손이다. 공주 일대에 초려 이유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평기리 입향조는 고손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어려서 죽었는데 어려운 집안 살림으로 묘를 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를 본 당시 초려 이유태에게 수학했던 진주류씨 문중에서 묘자리를 내주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장지



- 1 초려후손 경주이씨 평기1번지 이장준의 묘소
- 2 초려후손 경주이씨 평기1번지 이장준의 묘비
- 3, 4 초려후손 경주이씨 평기1번지 이장준의 묘소 조사모습
- 5 초려선생의 조부모비 왼쪽
- 6 초려선생의 고조부모비 오른쪽
- 7 평기리로 이장한 초려선생의 고조묘소

1	2
3	4
5	6
6	7



左 초려이유태의 선대 평기리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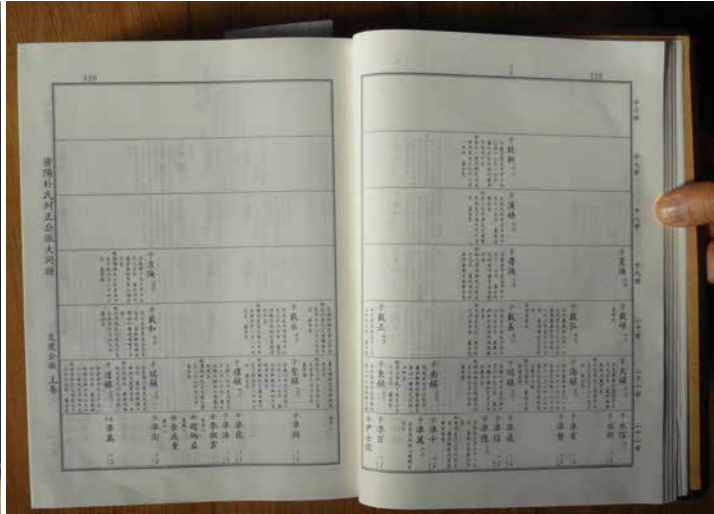
右 초려이유태의 문중 선세면봉 사적비

가 현재 장군면 평기리 1번지이다. 이곳에 묘를 쓴 후 경주이씨 가문은 번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평기리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던 초려 이유태의 조부, 증조부, 고조부 까지의 묘소를 이장하여 관리하고 있어서, 경주이씨의 뿌리가 이곳에 새로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기리 밀양박씨 규정공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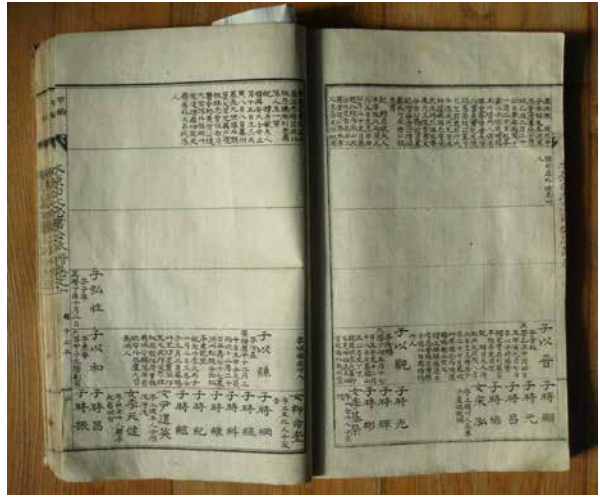
장군면 평기리 밀양박씨는 모가울 박씨 라고도 불리는데, 모가울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용산리에 있는 지명이다. 17세 박치신(朴致新)이 입향조이며 박치신의 자는 의경(義京) 호는 대평(太平)이다. 부친은 박수현(朴守玄)이고 규정공파의 파조이다. 모친은 진주강씨이고 배위는 청주한씨이다.

평기리 입향 내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암 송시열의 장인 이덕사와의 연고로 입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후손들은 하고 있다. 족보를 통하여 보면 16세 박수현의 묘소는 알 수 없으나 박수현의 다섯 아들의 묘소가 큰 아들은 공주, 둘째는 입암(翁山), 셋째는 청주 석화리, 넷째는 부



1	2
3	

- 1 평기리 밀양박씨 족보
- 2 평기리 밀양박씨 입향조의 기록이 보이는 족보의 한 부분
- 3 평기리 밀양박씨 조사 모습



1	2
3	

- 1 평기리 수원백씨 입학조 묘소
- 2 평기리 수원백씨 19세 입학조 백상후의 기록이 보이는 부분
- 3 평기리 수원백씨 조사모습

여, 그리고 다섯째는 이곳 평기리이다. 평기리에 보이는 박수환의 다섯째 박치신이 평기리 밀양박씨의 입향조이고 현재 후손은 입향조로부터 10세 까지 살고 있으니 입향시기는 250여년 전으로 보인다.

평기리 수원백씨 현령공파 ●●●

평기리 수원백씨 현령공파는 입향조로부터 8~9세손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향시기는 250년전 정도로 보인다. 족보에 근거할 때 수원백씨의 평기리 입향조는 19세손 백상후白尙厚로 숙종 때의 인물이며 지는 후원厚元, 관직은 통정대부, 배위는 숙부인 안동김씨이다. 부친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백시유白時裕이다. 18세손 이전에는 경기도 용인에 터전을 이루었었고 무과에 급제한 기록이 보인다. 무슨 연유로 공주로 입향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한창 세도가 있던 평기리 한산이씨와 관련이 있어서 입향한 것이 아닌가 하고 후손은 추측하고 있다. 한산이씨가 하나 둘 떠나가던 시기에 수원백씨가 종전에 한산이씨가 살던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로 보아 그럴 것 같다는 설명이다.

입향조의 생몰연도로 보아 평기리 한산이씨가 우암 송시열과의 혼맥을 맺으며 번창할 당시에 수원백씨의 입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족보에 기록된 묘소는 17세손 공주 궁원, 18세소 정안면 내촌리, 19세손 도계리, 20·21세손 송정리, 22·23세손 평기리, 24세손 남면 봉구리와 평기리 등에 위치하고 있다.

평기리 이태연 묘역 ●●●

이태연李泰淵의 본관은 한산韓山. 지는 정숙靜叔, 호는 눌재訥齋이다. 아버지는 이덕사李德泗이고, 우암 송시열이 매부이다.



1	2	3
4	5	6
7	8	9

- 1 평거리 한산이공 태연 신도비 앞면
- 2 평거리 한산이공 태연 신도비 뒷면
- 3 평거리 한산이씨 묘역
- 4-9 평거리 한산이씨 묘역의 석물들



1	2
3	4

1~4 평기리 한산이씨 묘역의 석물들



1642년(인조 20) 진사로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검열을 거쳐 이듬해 대교가 되었고, 1646년 설서·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 1) 공산현감·수찬을 지냈고 낙당^{洛黨} 김자점^{金自點}의 일파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652년(효종 3) 당진현감에 등용되었다. 1653년 교리로 대간의 월권행위를 간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파직되었고, 1656년(효종 7) 필선으로 복직되어 보덕·사간·응교 등을 지냈다.

1657년(효종 8) 수원부사가 되었고, 1659년(효종 10) 충청도관찰사로 재직 중 유배 죄인 7명을 임의로 풀어 주었다가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경주부윤으로 복직되었다. 1661년(현종 2) 전라도관찰사에 이어 승지·병조참의를 지냈고, 1666년(현종 7)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대사간·이조참의·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장군면 하봉리



조사대상 진주류씨, 파평윤씨, 이천서씨, 충렬사, 충렬사 삼효열 정려와 정려비, 유형장군 신도비, 유병연 묘역과 재실

하봉리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종전의 공주군 장척면 하산리 대동 채운리와 도계리의 일부, 요당면 봉곡리를 병합하여 하산과 봉곡의 이름을 따서 하봉리라 하여 장기면 하봉리라 하였다. 이후 공주군 장기면 하봉리는 1995년 1월 1일 공주시(1986년

공주군의 공주읍이 공주군에서 분리되어 공주시로

승격)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어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가 되었다.

이 지역의 조선후기 상황은 『여지도서』에서는 관련 지명을 확인할 수 없다.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 가운데에는 요당면 마을 이름 가운데 하산 소下山所, 도계道溪 등이 보인다.

하봉리의 지형은 동부·서부·남부로는 해발 고도 50여m의 저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남부로는 중산천中山川이 동서 방향으로 흘러 동부에서 대교천에 합류하며, 중부와 서부로는 중산천에 의하여 형성된 해발 고도 40여m의 층적 평야가 있다. 중부에는 하봉저수지가 있다. 중산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유역과 평야 지대에 새뜸·황골·하산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하봉리 마을모습



하봉리 마을모습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하봉리의 마을에 대해 살펴보면, 하봉리에서 으뜸되는 큰 마을은 하산으로 계란봉 밑이 된다. 계란봉은 하산 뒤에 있는 작은 산으로, 모양이 달걀처럼 생겼다. 하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 동편말, 하산 동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황골(황곡)이며, 별신당은 하산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별신굿을 하던 신당이 있었다.

한편, 장군면 하봉리는 열두 개미실과 몇 개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여러 골짜기 중에 하봉리를 이루는 대표적인 골짜기 열두 마을을 열두 개미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개미가 집을 지을 때 여러 개의 굴을 파서 방방마다 연결하여 사는 것처럼 열두 개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마을 주민들은 설명한다. 열두 개미실의 이름은 황골, 짐시농골, 옷골, 할미덕골, 하산, 샘골, 동편말, 새뜸, 별신당, 기와집골, 구석뜸, 절골 등이다.

장군면 진주류씨 ●●●

진주류씨의 공주 입향조는 유충걸(柳忠傑)이다. 진주류씨의 세거지는 원래 경기도 고양지역으로 유충걸의 증조 유진동과 부친 유형의 묘는 모두 고양 반덕동에 위치해 있다. 유진동의 증손 유충걸(柳忠傑, 1588~1665)이 광해군 폐모 사건 등의 어수선한 정국을 피해 외향인 공주에 이거하면서 공주 지역의 사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유진동(柳辰叟)의 자는 숙춘(叔春), 호는 죽당(竹堂)이다. 증조부는 유열(柳悅)이고, 할아버지는 유자문(柳子文)이다. 아버지는 유한평(柳漢平)이며, 어머니는 홍귀해(洪貴海)의 딸이다.

유진동은 1522년(중종 17) 사마시를 거쳐 153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고, 승정원에 들어가서 주서가 되어 스스로를 엄격히 지키고 권력과 귀인에게 아부하지 않아 탄핵되기도 하였다. 1537년 사헌부감찰이 되고 이어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었고, 시강원사서가 되는 등 조정의 총애를 받았다.

1538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사헌부지평, 시강원문학, 홍문관교리, 응교, 장령, 집의 등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다. 1543년 부제학에 올랐고, 이듬해 동부승지, 우승지, 1546년 좌승지, 도승지를 차례로 거쳤다. 1548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공조참판,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1550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경기도·평안도 관찰사를 지냈고, 1554년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경연經筵에서 『주역』에 밝은 자를 고르게 됨에 따라 다시 기용되어 진강하였다. 이어서 한성부좌윤,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공조판서에 오르고, 1559년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직하던 중 중풍을 얻어 사직을 청했는데, 왕이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임명하자 유진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녹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문장, 글씨, 그림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특히 죽화竹畵를 잘 그렸다. 남대문의 편액인 ‘승례문崇禮門’을 썼다는 설도 있다.

유진동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다. 비문에는 ‘자헌대부공조판서겸동지춘추관사오위도총부총관류진동묘資憲大夫工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摠管柳辰全墓’라고 새겨져 있다. 묘 아래쪽에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홍섬洪暹이 짓고 송인宋人이 글씨를 썼다. 1799년(정조 23)에 정민貞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유형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활약한 무신이다. 유형 장군이라 부른다.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이다. 할아버지는 유진동柳辰同이고 아버지는 유용柳溶이며 어머니는 선산임씨善山林氏이다.

유형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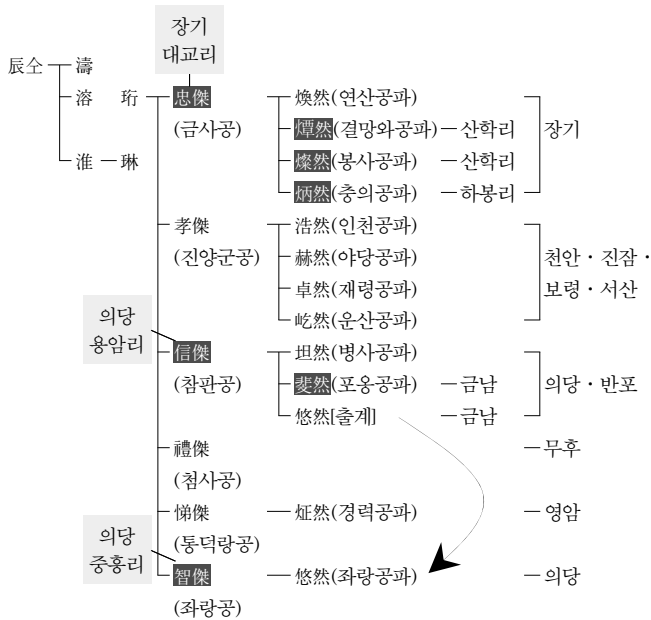
며, 복상하여 강화도에 이르러 김천일金千鎰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그 이듬해인 1593년 의주 행재소에 가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1594년에는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5년 해남현감에 임용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통제사 이순신의 막료가 되어 수군 재건에 노력하였다. 조·명 연합군으로 출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598년(선조 31) 노량해전에서는 적탄을 맞고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하여 군을 지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오위도총부부총관, 회령부사, 함경북병사, 평안병사, 황해병사 등을 역임하였다. 1618년(광해군 10)에 도총관에 증직되었고, 1620년(광해군 12)에는 선무원종 일등공신에 녹훈, 병조판서로 증직·추서되었으며, 인조 때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722년(영조 48) 전라남도 해남의 오충사에 이순신과 함께 배향되었고, 1796년(정조 20)에는 충경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972년 충렬사가 건립되면서 이곳에 배향되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다.

유충걸은 1618년 진사시에 입격했는데, 그 해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서인으로 강등시켜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이에 분개하여 대과를 단념하고 공주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으로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화의 성립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그 후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를 거쳐 현감을 지냈다.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뒤에 설욕책을 상소하였는데, 세자 사부로 있던 이유태李惟泰는 유충걸의 상소문을 읽고 높은 충의에 감탄하였다. 여생의 대부분을 공주에서 은거하였는데, 송시열, 이유태, 박세채 등이 유충걸의 비문을 지을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 후손들이 1827년에 금호서錦湖書社를 세우고 정민공 유진동과 충경공 유형과 함께 제향해 오다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훼철되었다.

유충걸의 손자로 유성하柳星河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포도대장을 지낸

유병연(柳炳然, 1625~1681)이고, 자는 천향(天鄉)이다. 유성하는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데, 송문리 문성마을에는 유성하가 함평현감으로 재직했던 시기의 청백함을 기리는 생사당을 후손들이 옮겨와 봉안했던 문성영당의 터와 유성하가 강당을 열고 글을 읽던 곳이라 전해지는 초당바위가 있다. 묘소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언덕에 있으며, 묘지문(墓誌文)은 둘째 아들 유현장(柳顯章)이 지었다.

유성하의 손자이며 유취장의 아들인 유선기(柳善基, 1695~1722)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훈련원정, 훈국아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경종의 등극으로 1722년(경종 2)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발생한 신임사화(申壬士禍)에 아버지 유취장이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자 이에 연좌되어 이천부사로 재임 중에 함께 사사되었다. 부자가 함께 사사되자 유선기의 어머니 전주이씨



가계도

와 부인 경주이씨도 각각 남편을 따라 함께 자결하였다. 1740년(영조 16)에 부자가 복관되고, 이러한 효열의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742년(영조 18)에 유선기와 어머니 전주이씨, 부인 경주이씨가 정旌閣려를 받았으며, 유선기는 1756년(영조 32) 좌승지에 증직贈職되었다.

하봉리 파평윤씨 현감공파 ●●●

하봉리 파평윤씨는 500여년 전 연산군 시기에 과천현감을 하던 19세손 윤려尹礪가 낙향하면서 지금까지 터전을 이루고 있다. 낙향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연산군의 실정으로 낙향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윤려는 종종 연간에 증직으로 이조참판에 추증되는데 이 또한 연산군 시절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추측된다.

左 하봉리 파평윤씨 입향조 묘역
右 하봉리 파평윤씨 입향조 묘비





1	2
3	4
5	6

- 1 하봉리 파평윤씨 묘역 옛비석이 있던 흔적
- 2 하봉리 파평윤씨 소장 고책자들
이속에는 문중 후비록, 부마록 등도 포함되어 있다.
- 3-4 하봉리 파평윤씨 소장 고책자들
- 5-6 하봉리 파평윤씨 윤려의 사당





1	2
	3
4	5
6	7

- 1~3 하봉리 파평윤씨 윤려의 사당
- 4~5 하봉리 파평윤씨 조사모습
- 6 하봉리 파평윤씨 후손 윤천용의 묘
- 7 하봉리 파평윤씨 윤천용의 머리를 수습해왔다는 사람의 묘



윤려의 생몰년도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윤려의 아들 윤수건이 연산군 4년에 출생하고 1570년에 진사에 입격했음에 비추어 볼 때, 성종 연간에 태어나서 연산군 재위 시기에 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려의 묘는 하봉리와 인접해 있는 송정리가 초장지이다. 묘소에는 비석과 상석이 있고 우상하右上下로 전후배위의 묘소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아들 진사 윤수건 부부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후손으로는 23세손 윤천용尹天濬이 주목된다. 후손들은 절충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족보에는 ‘증 공신’이라 적혀 있다. 묘소의 상석에도 ‘임진전망 공신’이라 쓰여 있다. 윤천용은 임지왜란 때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죽음을 맞았는데 이때 윤천용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가 있어 하봉리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머리를 가져온 이는 윤천용의 부하 장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집안에서는 그에게 마을에 터전을 만들어 주어 살게 하다가 사후 윤천용의 묘소 옆에 장사지내주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윤씨 집안에서 별초를 하고 윤천용을 제사 지낼 때에는 그의 묘소에도 술을 부어 주며 예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하봉리 이천서씨 문목공 고창파 예제공파●●●

하봉리 이천서씨들은 공주 반포면 공암리에 터를 잡아 살았던 고창 서기의 후예들이다. 고창 서기의 9세손인 서치운이 하봉리 입향조로 알려져 있는데, 뚜렷한 입향 사유는 알 수 없다. 고창 서기가 살던 반포 공암에서 후손들의 거주지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여 이거하는 과정에서 하봉리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묘소의 위치를 통해 추적한 입향경로는 수산리-산학리-은용리-하봉리를 거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치운徐致運의 자는 덕심德心이고 1812년(순조 12)에 태어나 1861년(철종 12)에 졸하였다. 현재 하봉리에는 고창 서기의 13~14세 손들이 살고 있다.



하봉리 이천서씨 족보



하봉리 이천서씨 조사모습

하봉리 충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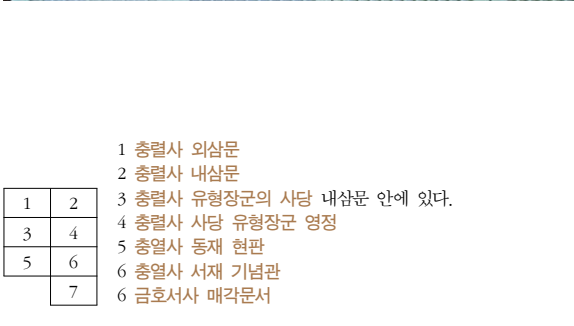
충렬사忠烈祠는 하봉리 하산마을에 위치한다. 하봉리는 금사공 유충걸의 넷째아들인 충의공 유병연의 후손들이 대대로 세거해 온 곳이다.

충렬사는 충경공 유형柳珩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사우로 1972년 9월에 조성되었다. 사우가 건립된 것은 불과 40여년 전이지만, 건립 연월은 1827년(순조 27) 후손들에 의해 송원리에 건립되었던 금호서사錦湖書社에서 비롯된다. 대교천과 금강이 만나는 송원리는 현재 세종시 남면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공주 땅으로 이곳에 유형의 3자인 유신걸의 아들 포옹공 유비연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다.

진주류씨가에서는 1827년에 금호서사錦湖書社를 세워 충민공 유진동柳辰全(1497~1561), 충경공 유형柳珩(1566~1615), 금사 유충걸柳忠傑 3인을 배향해 왔으나 아쉽게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공주의 유생 이계원李繼遠 등 37명이 1851년에 올린 등장等狀을 보면 ‘죽당 유진동, 석담 유형, 금사 유충걸의 충절을 찬양하고 이미 해남과 함평에서 사당을 지어 모시고 있으니 공주에도 서원건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



충렬사 전경



- 1 충렬사 외삼문
- 2 충렬사 내삼문
- 3 충렬사 유형장군의 사당 내삼문 안에 있다.
- 4 충렬사 사당 유형장군 영정
- 5 충렬사 동재 현판
- 6 충렬사 서재 기념관
- 6 금호서사 매각문서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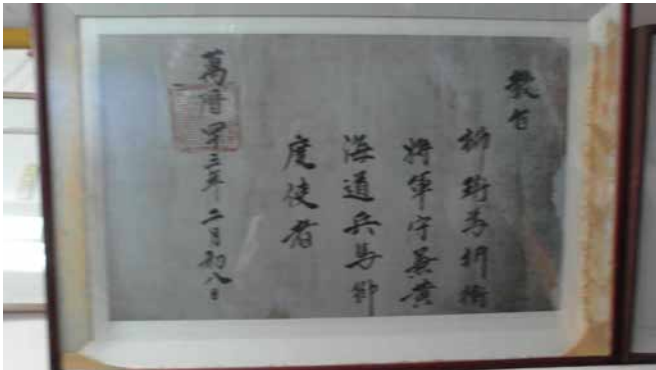
고 있다.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허락을 얻지 못하다가 1868년 금호서사는 대원군의 서원 정리로 훼철되는 운명을 맞았다. 해남과 함평은 유형의 사적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고 공주에는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었으므로 사우를 건립한 것이었지만, 이미 서원이 있는 인물을 중복해서 배향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이었다.

진주류씨가 공주로 이거하게 된 것은 유진동의 증손이며, 유형의 장남인 금사공 유충걸 시기로 알려져 있다. 광해군 폐모사건을 계기로 혼탁한 조정에 나아가기를 거부한채 낙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는 유충걸의 어머니 전주이씨의 고향이면서 처 능성구씨의 고향이 있던 곳이었다. 유충걸이 입향한 후 그의 후손들이 대교천을 따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며 대교천 주변 지역 곳곳에 세거지를 마련하였다.

후손들이 세거했던 공주에 금호서사를 두고 선조를 제향하였지만 끝내 훼철되고 말자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유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유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기면 하봉리에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충렬사 기념관





1	2
3	4
5	6

1 충렬사 기념관

2-6 충렬사 기념관 내부의 여러 모습들

충렬사는 사우와 내·외삼문, 비각 2동, 동·서재, 관리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역은 사고석 담장으로 말끔히 단장되어 있다. 충경공忠景公 유흥柳珩의 위패를 모신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익공계 가구 수법을 따랐다. 사당의 정면 우측의 비각에 있는 비는 1874년(고종 11) 금호서사를 건립하면서 세운 비이며, 좌측비각은 이 비를 번역하여 1976년에 노산 이은상이 짓고 영가 김충현이 쓴 비를 보존하고 있다. 내삼문은 ‘창의문彰義門’, 외삼문은 ‘충의문忠義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으며, 사우의 동편 담장 밖에는 이 지역의 진주유씨들이 배출한 삼강인물의 사적비 4기가 세워져 있다. 서재는 유품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봉리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와 정려 비●●●

충렬사 경내의 동쪽에 정려각과 정려비가 나란히 서 있다. 이 정려는 열녀 증 정부인 전주이씨, 효자 증 병조참판 유선기柳善基, 열녀 증 정부인 경주이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정려내부에는 1742년(영조 18)에 명정 받은 사실을 기록한 정려 현판 3개와 1988년 후손들이 세운 정려비가 있다. 전주이씨는 무민공 유취장柳就章의 부인이며, 유선기는 유취장의 아들이고, 경주이씨는 유선기의 부인이다.

유취장(1671~1722)은 결망화 유담연柳燦然의 손자로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훈련원정, 훈국아장 등을 역임 하였으나 경종의 등극으로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발생한 신임사화에 휘말려 역모의 누명을 썼다. 국문이 시작되자 회령부사로 있던 아우 유정장柳貞章은 자결하고, 혹독한 형문 끝에 결국 노론의 거두 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곧 사사되어 이른바 ‘5절도’라고 일컬어 졌다. 숙천부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특진을 하는 등 관官으로서의 업적과 제가齊家의 법도에 있어서는 본받을 점이 매우 많았다고 하나 사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청백



1	2
3	
4	5

1 충열사 삼효열 정려각
3, 4 충열사 삼효열 정려 현판

2 충열사 삼효열 비
5 충열사 삼효열 정려각과 비석들

清白과 효우孝友의 행실만이 회자되고 있다.

유취장의 아들 유선기(1695~1722)는 무과에 급제하여 이천부사로 재임 중 부친의 죄에 연좌되어 곧 사사되었다. 부자가 함께 사사되자 고부간인 전주 이씨와 경주 이씨도 남편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함께 죽기를 약속하였으니 전주이씨는 남편이 유배갔던 장성 땅에서, 경주이씨는 공주 땅에서 각각 13일간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채 하루 사이에 모두 목숨을 거두었다.

유취장의 처 전주 이씨는 이두천李斗千의 딸로, 공주지역에 세거하는 덕천군파德川郡派의 후손이다. 덕천군파의 세거지는 의당면 태산리(현 장군면 태산리) 일대로 진주유씨의 세거지인 대교리·중흥리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유선기의 처 경주이씨는 이중익李重翊의 딸이다.

사화로 인해 가문에 큰 화가 미칠 수 있었으나 정국이 다시 노론계로 바뀌면서 곧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에 대한 복권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1725년(영조 1) 충청감사 홍용조洪龍祚의 보고로 이들 세명의 효행과 절행에 대해 명정命旌의 은전을 내렸다. 또한 유선기의 노비로서 주인의 시신을 거두고 유선기의 두 아들을 정성으로 돌본 사동士同과 돌현孺玄 등에게도 상물을 내렸다. [충효등록 1726년(영조 2) 억울하게 죽은 유선기의 집에 홀전恤典을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고, 1740년(영조 16)에 부자가 복관되며, 가문의 효열의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742년(영조 18)에 유선기는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그런데 『여지도서』와 충청도읍지 등의 자료에는 증직과 함께 명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지리지의 기록이 명정이 아닌 정려 건립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 후 유취장은 1782년(정조 6) 병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이어 1802년(순조 2)에 심환지의 주청으로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1805년(순조 5)에는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받았다. 1808년(순조 8) 유생 김정언金鼎言의 상소에 의하여 신임충량辛壬忠良으로 불리었으며 1890년(고종 27) 유취장의 종손宗孫 유석관柳錫觀이 무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는 특별히

참상 선전관參上宣傳官을 가설加設하여 주기도 하였다.

정려각에는 중앙에 유선기의 명정현판, 좌측에 전주이씨 명정현판, 우측에 경주이씨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정려각 내부 중앙에 1988년 8월에 유근무가 쓴 진주유씨 삼효열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정려각 옆에는 유씨 문중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88년에 후손들이 세운 4기의 비석이 있다.

충신忠臣 증 좌승지贈左承旨 유공풍노柳公豐魯 정려비旌閭事蹟碑는 충신 유풍노柳豐魯(1812~1871)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비다. 유풍노는 1871년(고종 8) 신미양요때 어영청御營廳의 초관哨官으로 중군 어재연魚在淵의 휘하에서 활약하다가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좌승지로 증직되었고, 충신 정려를 받았다. 90세 노모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따라 전장에 나아갔던 유재로柳在魯에게 특별히 관직을 주어 가솔을 돌보도록 혜택을 내렸다. 비문은 유석규柳錫珪가 짓고 글씨는 최병무崔秉武가 썼다.

효자孝子 증 동몽교관贈童蒙敎官 유공홍원柳公弘源 정려사적비旌閭事蹟碑는 유홍원柳弘源(1743~1815)의 정려비이다. 유홍원은 맛있는 음식과 과실이 생기면 먹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께 드렸으며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거르지 않았다. 67세 되던 해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변을 맛보고 밤마다 복두칠성을 향해 자신이 대신 앓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와같은 효행이 알려져 1860년(철종 11)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효자정려를 받았다. 그 후 병화로 정려가 소실되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후손들에 의해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은 유근무柳根茂가 짓고 글씨는 유선호柳善浩가 썼다.

열녀烈女 증 정부인贈貞夫人 부령김씨扶寧金氏 정려사적비旌閭事蹟碑는 유형의 7대손 유희원柳晦源(1751~1798)의 처인 부령김씨의 정려사적비다. 부령김씨는 남편이 후사 없이 죽자 양자를 들이고 장례를 치룬 후 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그 열행이 알려져 특별히 정문이 내려지게 되었다. 양자 유상목柳

相穆(1765~1840)이 호서병마절도사湖西兵馬節度使에 제수되자 부령김씨는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남편 유희원은 177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도수군우후忠淸道水軍虞侯를 역임했고 1795년(정조 19)에 통정대부 삼수도호부사가 되었다. 아들 상목이 병사가 되면서 가선대부 병조참판을 증직받았다. 유희원과 부령김씨의 묘는 신평면 동원리에 있고 부령김씨의 정려도 묘역이 있는 동원리에 있다. 이곳의 비문은 이종선李種宣이 짓고 유재호柳在浩가 한글로 풀어썼으며 이공권李公權이 글자를 썼다.

충신忠臣 증조봉대부贈朝奉大夫 호조좌랑戶曹佐郎 진주유공지걸晉州柳公智傑 정려사적비旌閔事蹟碑는 1988년 8월에 후손들이 건립한 유지걸의 충신사적비이다. 유지걸의 12대 종손인 유근무柳根茂가 비문을 짓고 최병무崔秉武가 썼다.

하봉리 유형장군 신도비●●●

하봉리 충렬사 경내에 들어서서 우측으로 유형의 신도비가 보호각 안에 있다. 원래 유형의 묘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능곡 번덕동에 있었던 것인데 충렬사를 건립하면서 1973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신도비의 비문은 월사 이정구李廷龜가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篆을 하였던 것을 1874년 정학교丁學教가 다시 쓰고, 이남식李南軾이 전篆하여 고쳐 세웠다.

충렬사 경내의 신도비 옆에 세워져 있는 충렬비는 1976년에 이은상李殷相이 짓고 김충현金忠顯 이 글을 써 세운 것이다.



충열사 유형장군 신도비



충열사 유형장군 신도비각

하봉리 충의공 유병연 묘역과 재실 ●●●

하봉리 하산 마을에 충의공 유병연의 묘역과 그를 제향하는 재실인 충의사가 있다. 하봉리 하산은 일찍이 개 형국의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었다. 큰 개가 었드려 양 발로 감싸 안은 듯한 지형으로 개 모양에 대입해 보면 오른쪽 발이 있는 자리가 유병연의 묘역이고 왼쪽 발은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소나무 군락이 있어 수구막이 역할을 하였는데 수십년 전에 나무를 모두 베어 지금은 흔적이 없다.

유병연(柳炳然(1625~1681))은 유충걸의 넷째 아들로 자는 문숙(文叔)이다. 1648년(인조 26)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여러 벼슬을 거쳤다. 길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수로를 파서 농사에 도움을 주어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다. 1664년(현종 5) 한성부좌윤을 거쳐, 1672년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때에 정령(政令)을 엄명히 하고 기강을 확립시키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이



1	2
3	4 5

- 1 진주류씨 충의공 묘소 충의공 유병연은 유충걸의 4남이다.
- 2 진주류씨 충의공 묘비
- 3, 4 진주류씨 충의공 묘소 석물
- 5 진주류씨 충의공 묘소 조사 모습

	1
2	3
4	5

1 진주류씨 충의공 신도비
2-5 진주류씨 충의공 사당





	1
2	3
4	5

- 1 진주류씨 충의공 영정
- 2 진주류씨 충의공 사당 내 교지를 유희기는 충의공의 증손자이다.
- 3 진주류씨 충의공 사당 내 교지를 유희기의 문과갑과 출신임을 기록한 교지가 있다.
- 4 진주류씨 충의공 사당 내 교지를 유희기의 아들 유성하의 교지와 숙인김씨의 정부인교지이다.
- 5 진주류씨 충의공 사당 내 교지를 유희장군과 유충결의 교지도 있다.

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 관찰사가 또한 그의 죄를 거짓으로 꾸며 보고 하여 중형을 받게 되었으나 대장 신여철申汝哲이 그의 강직함과 청렴 공명함을 증언하고 변호하여 파직에 그쳤다. 그뒤 다시 부총관으로 임명되어

포도대장·전라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하고, 경기통어사를 지내고 죽으니,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사람됨이 건실하고 신중하였으며 여러 고을에 나갔으면서도 어디에서든 재화를 취하는 일이 없었고 일생을 청빈하게 살았다. 송시열(宋時烈)이 귀양갔을 때 허적(許積)·윤휴(尹鑣) 등이 송시열을 사형하도록 주청하였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앞장 서서 동지들을 이끌고 소문(疏文)으로 극간하여 구제하려 하였으나 일이 무사히 해결되어 그만두었다. 뒤에 송시열이 그의 비문을 지을 때 이 사실을 기록하여 깊이 통탄하였다. 형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796년 ‘충의(忠毅)’의 시호를 받았다. 타우(打愚) 이상(李翔)이 지은 행장이 전한다.

유병연의 신도비는 그의 형 유담연의 요청에 따라 이상(李翔)이 지은 행장에 기초하여 송시열이 지었는데 후에 추록 되었으며 1797년(정조 21)에 세웠고 충의사 앞에 두었다. 묘역에는 상석과 문인석, 석주 및 최근 세운 묘비가 있다.

- 『조선왕조실록』
『문과방목』
『사마방목』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충청도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읍지』
『연기지』, 1934.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편, 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한국지명총람』 4 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문중소장 족보
- 『연서면지』, 연서면지편찬위원회, 2013.
『공주의 전통마을』 1~10, 공주문화원, 2001~2011.
『무인 기상 드높인 충의 가문 진주류씨』, 공주문화원, 2009.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98.
『연기군 충·효·열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연기군, 1998.
『공주의 충·효·열 유적』, 공주문화원, 2000.

□ 도움을 주신 분

김병철(71세, 연서면 기룡리)
류근우(78세, 장군면 하봉리)
류종렬(49세, 연서면 쌍전리)
박노태(68세, 연서면 월하리)
박영규(83세, 장군면 평기리)
백장현(82세, 장군면 대고리)
성기무(78세, 연서면 와촌리)
유범준(77세, 연서면 부동리)
유진국(81세, 연서면 국촌리)
윤재균(68세, 연서면 봉암리)
이도형(62세, 장군면 태산리)
이용구(50세, 장군면 태산리)
이은환(60세, 장군면 태산리)
이철우(73세, 장군면 평기리)
장길전(72세, 연서면 고북리)
장홍순(83세, 연서면 고북리)
홍순남(79세, 연서면 신대리)
홍재희(67세, 연서면 성제리)

김소래(83세, 연서면 청나리)
류근주(57세, 장군면 하봉리)
류지경(77세, 연서면 성제리)
박노혁(64세, 연서면 월하리)
박용배이장님(연서면 월하리)
서해근(85세, 장군면 하봉리)
안제일(78세, 연서면 와촌리)
유의준(69세, 연서면 국촌리)
윤승현(69세, 장군면 하봉리)
윤종구(80세, 연서면 봉암리)
이석규(71세, 장군면 금암리)
이은찬(75세, 장군면 용현리)
이종영(80세, 연서면 쌍전리)
임병석(82세, 연서면 기룡리)
장찬재(67세, 연서면 와촌리)
조병무(78세, 연서면 월하리)
홍순목(74세, 연서면 성제리)
황근성(83세, 연서면 용암리)

□ 조사후기

3년간에 걸쳐서 세종시(연기군) 지역의 마을과 성씨를 조사하였으며, 이번에는 그 세 번째 결과물인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Ⅲ(연서면·장군면)』을 발간한다. 이번에도 조사 과정에서 3년째 참여한 남정환·강현숙 조사위원의 노고가 컸으며, 현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우리들은 한여름의 무더위와 초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다. 이는 추후에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외지인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한 나의 당초 계획은 향토사에 관심을 지닌 지역 인사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하면서, 일천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조사방법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토사가들의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앞으로는 향토사가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이러한 작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시작한 것이다. 이제 세종시의 1읍 9면 1행정동(14법정동) 가운데 2개 읍면(조치원읍·부강면)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향후 세종시 향토사가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조사를 마친다.

조사책임자 임선빈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끝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일이 3권에서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탄생하게 된다. 세종시가 되면서 편입된 지역인 장군면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 아는 분도 안계시고 지리도 잘 몰라서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적극적인 류근우 장군면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걱정했던 것 보다는 어렵지 않게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사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더운 여름을 지나고 눈썹인 시골길을 미끄러지며 다니고 입향조의 묘소를 조사하기위해 가파른 풀길을 헤치며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한 문중 한 문중마다 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조사를 통해서 엿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책에 올릴 수 있는 것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 조사대상 이었던 문중분들 모두에게 한치의 서운함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조사위원 강현숙

역사의 한페이지를 기록 한다는 것과 남긴 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상 싶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제3집인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를 위해 세종시가 되면서 공주에서 편입된 장군면과 의당면 일부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배경과 환경 변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군면 노인회장 류근우 회장님과, 이석규 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힘이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선빈 박사님의 주도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역사를 바르게 조사하기란 제1집과 제2집 때보다 어렵고 힘이 들어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늦게나마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끝까지 수고 해주신 임선빈 교수님과 강현숙 문화해설사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조사팀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본다.

조사위원 남정환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Ⅲ)
- 연서면 · 장군면

2013년 12월 20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집 필: 임선빈

사 진: 강현숙

조 사: 임선빈 · 강현숙 · 남정환

발 행: 세종문화원

인 쇄: 민속원

본 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세종문화원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